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
"마음의 원리를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월 11일) · 주간

제928호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친구를 만날 때 이익을 추구말라
친구간의 의리가 상하게 된다
순수한 생각으로 교우하라.
「보왕삼매론」

잃어버린 성보들 되찾기 쉬워진다

불교문화재硏, 불교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2006년 4월 불교계는 백양사 '아미타영산회상도'(1775년 제작)의 회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백양사가 1994년 백양사 극락보전에서 도둑맞은 '아미타영산회상도'를 서울 인사동의 사립미술관인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발견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

백양사 측은 "박물관에 걸린 탱화의 '화기'(그림 밑에 씌어진 글귀)를 보면 백양사가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지만 박물관 측에서 "1995년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1억 2000만원에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버티며 이 사건은 법정 소송까지 번졌다.

도난 여부와 7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선의취득' 조항을 들며 후불탱화 반환을 거부한 박물관 측이 불교계 여론에 의해 3개월만인 7월 후불탱화를 반환했지만 이 사건은 성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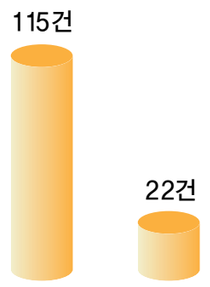
이처럼 도난과 훼손 등으로 유실당한 성보가 매년 발생하고 도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난해한 상황을 대비해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성보 정보를 즉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을 맞아 그동안의 조사 중심 체제에서 정비와 활용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해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과 사지조사 사업 등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전국 2700여 사찰의 문화재와 5400여 사지의 정보가 담길 통합관리시스템은 불교문화유산 아카이브로 구축돼 보다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찰 측 주지 스님을 비롯한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한 문화재 정보 및 책임 이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도난범 등으로 부터의 예방 효과 및 도난 사실을 즉각 입증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가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전후 도난 발생 비교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일제조사 後 도난율 70% 감소
국가지정문화재도 80건 늘어
자료 총괄한 아카이브 구축
근대문화재 등 조사 사업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회수한 김용사 불망비 귀부

불교문화재 도난 상황 집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115점에 달했다. 연 평균 8건 이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사찰문화재 일제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도난 건수는 연 평균 2건으로 크게 줄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난 건수는 총 22건으로 조사 전인 10년 동안(1992년~2001년)과 대조하면 약 71% 감소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 실장은 "이전에는 장물로 성보문화재가 나와도 원소재지 여부가 불투명해 유통이 됐지만 일제조사로 인해 소재지가 밝혀지면서 유통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도난 사건이 줄었다"며 "선의취득 부분도 문화재 정보 공유로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 측에서 조사자료를 토대로 도난 사실을 파악해 문화재를 되찾아온 사례도 있다. 2009년 회수한 김용사 불망비 귀부(거북모양 받침돌)가 그것이다.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실 실장은 "조사 기록에 있는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귀부가 김용사 소유임을 입증했다"며 "현재 김용사 주지 스님은 당시 주지 스님은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성보들이 조사를 거쳐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사찰문화재 조사 결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0점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로이 지정됐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매장문화재와 사지를 파악하는 사지조사 사업(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과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2013년 진행)의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성보관리나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문화재가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것"이라며 "조사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 활용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인터뷰 9면



새로운 출발 졸업!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는 2월 15일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2013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김희옥 총장은 식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지혜로 스스로를 밝히면서 주변을 함께 비추는 나눔의 정신이 바로 인류의 보편적 윤리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동국정신이다"며 졸업생들에게 동국인의 정신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841명, 석사 595명, 박사 96명 등 총 2,532명이 학위를 받았다. 불교대학 학위수여자들이 정각원에서 불교대학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북핵 사태, 지혜로운 대처 필요"

불교계 스님, 대북 전문가 잇달아 입장 내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해 불교계 스님과 대북 전문가들이 입장과 전망을 잇달아 내놨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13일 정토회 수요법회에서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법륜 스님은 부부싸움의 예를 들며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스님은 "북핵실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일 가능성이 있다. 누구를 탓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부부싸움이 크게 났다고 하자.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 방법을 찾아 화해를 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핵 사태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버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차기 정부 역시 이를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 핵실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법응 스님은 성명서에서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북한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확장한다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차기 정부 해결방안 기대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핵 확산 금지로 선회해야

각국은 핵무기 보유의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공멸의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스님은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실험을 중지하고 개방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60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증오에 찬 극한 대결이 얼마나 많은 불행한 결과를 생산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정책을 핵 확산 금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월 14일 열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기 이사회에서 최근 정세를 분석해 브리핑했다.

고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겠지만, 상반기 안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박근혜 당선인이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현 정부보다는 대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지원기금이 있다. 민추본에서 추진하는 평양불교회관 건립 사업 등을 연계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 정혜숙 기자

관련 칼럼 31면

928호 INDEX

종합 2·3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진화 중'
조계종 정전 60주년 세미나
'불국사, 석굴암' 최고 인기 유적

시방세계 5
국제선센터 선요가 강습 현장

신행 6
사찰 평생교육원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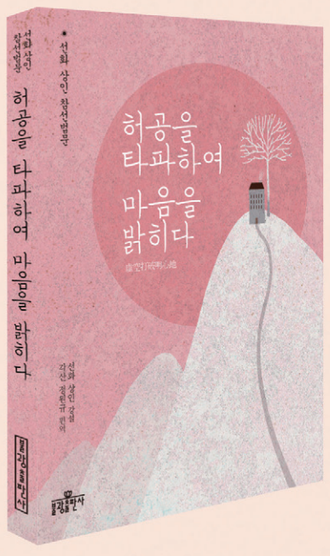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강화 보문사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중국 위앙종(潙仰宗)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의 활발발한 강설



왜 참선을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참선의 요결인가?
화두 참구란 무엇인가?
참선 수행에서 만나는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228쪽 | 값 9,000원



선화(宣化) 상인(1918~1995) : 법명은 안자(安慈), 자는 도륜(度輪)으로 중국 위앙종(潙仰宗) 제9대 조사이다. 중국 길림성 쌍성현에서 태어나 19세에 상지(常智) 대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1949년 홍콩으로 건너가 여러 사찰을 전법하였다. 1956년 운거산에서 허운(虛雲)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아 중국 위앙종의 제9대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법호를 받았다.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불교학당을 설립하여 불법을 전했다. 1974년 캘리포니아주에 만불성성(萬佛聖城)을 건립한 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다. 상인은 평생토록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참선과 염불 예참, 경전 연구, 계율 수지, 대중화합을 특히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 · 하) 등이 소개되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명법문 시리즈 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스님 외 17명
184쪽 | 11,000원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집착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놓아버려야 하니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강하게 집착하거나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재산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을 개별적으로 밑바닥까지 들어가 조사해보십시오.

신기루 같지 않던가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집착은 사라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이상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지고 고요해집니다.

반면 당신이 강한 집착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현생과 후생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강한 미련을 가지고 죽는다면 탐욕에 의해 고통받는 아귀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성자나 수행자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옷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누구보다도 만족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행자는 단 한순간마저도 낭비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가 어찌 세속적인 일로 삶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도농 사찰·사회 양극화 해법 찾는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신년 연구계획 발표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리타이어 푸어 등 3푸어 시대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도농 사찰 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찰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 사업이 진행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 사진)는 2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구사업 계획을 밝혔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올해 종책 · 불교 사회 · 기초연구 · 연구기반 구축 등 4가지 사업분야에서 총 18개 세부 연구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와 사찰의 양극화 현상을 다룬 연구 주제다. 사회 양극화 연구는 지난해 양극화 보고서 연장사업으로 3푸어 시대를 조망하고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진단한다. 연구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종책연구 분야의 종단 기초 재정연구는 극심해지고 있는 도농 사찰간 양극화 현상과 재정 자립 방안, 전국 사찰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 연구 성과는 8월 경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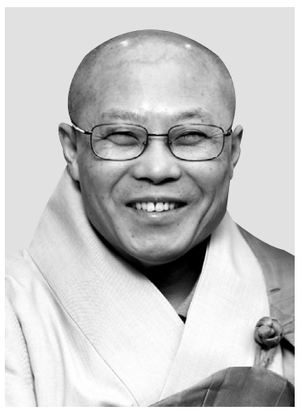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농촌사찰에 대해 "농촌의 노령화가 가파르게 전개됨에 따라 산중, 농촌 사찰들의 붕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회 동참자가 현저히 줄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신교 역시 농촌 교회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연구 조사가 이뤄졌지만, 불교계는 대안 연구가 전무하다"며 "중앙종단과 교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책연구 부문
수행지침 · 법계직무 등 연구
호국불교 역사 조사사업

사회연구 부문
3POOR 시대 조망해
불교 시대적 역할 모색

이와 함께 불교사회연구소는 △법계직무제도 △다문화 연구 △대국민여론조사 △한국불교진단 과제 △법회현황 조사 △정부 재정현황 조사 △수행 지침 연구 △호국불교 연구 등의 연구사업들을 추진한다.



승려의 신분 보장과 적재적소의 소임 배치를 위한 법계직무제도 수립 연구사업은 지난해 종단 쇄신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승가 전통 안에서의 직무제도와 관리 방안, 정부 · 타종교 사례 등 제도 수립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좌담회 등을 거쳐 관련 연구보고서를 6월 이전 결사추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문화 연구는 불교국가 이주민의 현황과 과제를 수행하며, 법회 현황 조사를 통해서는 신도들의 법회 및 신행에 대한 만족도를 폭 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보조금 3억 원이 지원되는 호국불교 연구는 남북한 산성, 승장, 호국불교사찰 연구, 기초자료집 발간 등 연구 사업과 더불어 서산대사 제향의례(4월), 남북 불교 공동 북한 보현사 서산대사 다례재(10월) 등의 행사들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불교사회연구소는 대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한국불교 대외적 이미지 현황과 국민들의 요구를 진단하며, 교계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기반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 3일에는 개원 2주년을 맞아 '종교, 사회 통합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자로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이 나서며 토론자로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이운삼 목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그간 종단에는 종책 연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이유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연구 사업들을 발굴해 종단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재가 이사 추천은 고유 권한"

종관위, 14일 긴급회의… "동창회, 월권행위 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 이하 종관위)가 동국대 승 · 재가 이사회 추천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종관위는 2월 14일 제87차 회의를 열고 최근 동국대 총동창회가 문제 제기한 이사회 정관 개정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종관위원들은 자의적으로 종법과 학교 정관을 해석해 물의를 빚은 동국대 총동창회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위원 덕문 스님은 "개방 이사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사학법 조항에 맞춰 선출됐다. 사학법 위반 사실은 없다"며 "종립학교관리법은 동국대 이사회 정관보다 상위법이다. 불교의 삼보정재가 들어간 학교를 건학이념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위원 성행 스님은 "총동장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김영순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종관위와 종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된 인사들을 동국대 이사회가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 오심 스님은 "상위법인 관리위원회법 7조 4항에는 승 · 재가 이사 모두 종관위에서 복수 추천하고 종회 결의를 통해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부결이 됐으면 차기 이사회에서 재차 상정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법인 사무처에 정관 개정 지시
이사 후보 2인 최종안 확인

이날 종관위는 위원회와 종회 동의를 거쳐 추천한 김선근, 김영순 이사 후보가 종단의 최종안임을 재결의했으며, 동국대 법인사무처와 이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총동창회에 대해서는 종관위와 종단의 위상에 손상을 입힌 만큼 관련자의 참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과 정관 개정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을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위원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종관위는 결의문을 통해 "위원회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와 종회 동의를 거친 동국대 이사 후보 2인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이사로 판단했다. 총동창회는 종단과 위원회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종관위는 총동창회에게는 "임원선임 관여와 정관개정반대 서명 독려 행위는 종단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총동창회의 월권행위이다. 이에 대한 참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국대 정관 어디에도 총동창회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없다"며 "동국대 설립 주체인 종단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 후보에 대해 동창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봉축 준비 시작

4월중 연희단 본격 구성

진각종이 부처님오신날을 3개월 여 앞두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와 종무원들로 구성된 봉축준비단은 2월 13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장엄등 작업장에서 장엄등 보수 및 정비를 시작했다. 올해 봉축행사에 사용될 장엄등과 소품등은 총 200여 점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대 장학금 수여

금강대 신입생 장학금 수여식이 2월 27일 오전 11시 단양 구인사에서 거행된다. 이날 신입생 165명 전원에게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2013학년도 1학기 원각불교장학금이 지급된다. 수여식에서 천태종 도용 종정예하가 수석입학자, 수능성적우수입학자, 남녀학생 대표 각 1명 등 신입생 대표 10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김주일 기자**

봉 ≪禪文化硏究≫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선정
성원해주신 불교학자 및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

2013년 제7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 제7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학 (선학 · 교학)
- 불교사 · 응용불교 · 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 불교사회복지
-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 제외)

3) 선정규모 및 특전
- **우수상(1명) 500만원, 학술상(3명) 1인당 30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선문화연구≫에 게재**

4) 제출서류(우편 혹은 전자메일)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2)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 1부
(3) 연구실적목록 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4) 이력서(주소 · 전화번호 · 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연구기대효과 포함]

5) 제출기한 및 발표
(1) 제출기한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4일(월) 오후 5시까지**
(2) 선정 및 통보 : **2013년 3월 10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3) 논문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13년 6월 초 (예정)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13년 6월

6) 참고사항
- 선정자는 2013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 월례발표회 원고 모집

1) 발표주제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3)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4) 한국근현대불교사상 및 문화(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2) 발표문 분량 : **A4 7 ~ 8매**

3) 발 표 자 격 : **박사과정 이상**

4) 발표신청기간 : **연중수시**

5) 특전
(1) 소정의 발표비 지급
(2) 심사 후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3) 등재지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문의 및 서류제출처
한 국 불 교 선 리 연 구 원 장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 팩스 02)734-9622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홈페이지 : http://www.seonhakwon.or.kr/seonli (전자메일 : seonhakwon@daum.net)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마감

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2월 8일 완료됐다.

주경 스님이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진행되는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수덕사 총무국장 효성 스님, 석청 스님이 입후보 했다.

법적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던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에는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이 재입후보했다.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후보로는 백양사 부주지 원일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호법국장 석장 스님, 백양사 사회국장 성진 스님, 前 자성과쇄신셜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 총 4명이 입후보했다.

사회분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에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장 종상 스님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2월 28일 오후 1시부터 각 교구별로 치러지며, 직능직대표선출위원회도 28일 오후 1시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불국사, 석굴암’ 최고 인기 문화유적

경북도 SNS 분석 결과

‘불국사’와 ‘석굴암’이 경북지역 최고 인기 문화유적지로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2월 11일 국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문화?유적지 인기분야에서 불국사가 최고로 꼽혔다고 밝혔다.

2위부터는 석굴암, 하회마을, 부석사, 대릉원으로 5위 안에 사찰이 3개가 속했다.

경상북도의 SNS분석은 문화 관광분야에서 최초로 분석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내 소셜미디어 자료 15억 3600만건(트위터 14억 5800만건 · 네이버 블로그 7800만건)을 대상으로 연관어 분석, 발생빈도 및 추이 분석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진행됐다.

분석보고서에는 불교문화유적이 많은 경주는 ‘문화관광’ ‘수학여행’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불교 문화 자체에 의미를 지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윤종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진화하는 월정사 단기출가

내년 개교 10주년… 계층별 프로그램 등 전환기 마련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의 단기출가학교는 2004년 개원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심한 일반인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전 단계인 행자생활을 체험함으로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9년, 내년이면 10년을 맞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계층별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있다. 내년 10주년을 맞는 단기출가학교는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황혼기 · 주부 출가학교 진행
참가자들 수행 욕구 충족
9년 간 1800명… 10% 출가
내년 하반기 기념행사 예정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황혼기 단기 출가학교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다. 황혼기 단기출가학교는 55~70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1일까지 모집 접수를 받는다. 학교는 3월 22~28일까지 진행된다.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출가학교는 오는 8월 23~29일 열리며, 모집은 8월 7일까지다.

기존의 단기출가학교는 20~60세까지 연령 제한으로 고령자들의 참가가 어려웠다. 또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가정을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은 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의들이 끊이지 않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단기출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법철 스님은 “황혼기 · 주부 단기출가학교는 기존의 출가학교와는 다르게 마음을 치유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찾는 등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참선 요가,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04년 개원한 단기출가학교도 올해로 햇수로 10년, 만 9년을 맞는다. 단기출가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황혼기 · 주부 단기출가학교는 그 일환이며 호응이 좋으면 계층별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한 출가학교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주년 기념행사 준비도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열릴 기념행사에는 그간 출가학교를 다녀간 졸업생과 이를 통해 출가한 스님들을 초청해 발자취를 되짚는 형식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또한 졸업생들의 생생한 수행담을 책으로 엮어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단기출가학교 체험자 가운데 실제 출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교 이후 9년여 간 1800명가량이 다녀갔고 이중 10%의 인원은 출가해 수행 · 정진하고 있다.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간 스님(6기 졸업)은 “오래 전부터 출가의 뜻이 있었고, 단기출가학교를 통해 그 발심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단기출가학교의 커리큘럼은 실제 출가 생활 별반 다르지 않아 막연히 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다. 출가자 감소 시대에 출가 정신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구 정토사 주지 대원 스님(18기 졸업)은 “단기출가학교 당시 불자였지만 내 자신을 거두기에 급급했다. 단기출가를 통해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방법을 알게 됐고, 출가까지 하게 됐다”며 “단기출가학교는 불교 수행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작은 실천이 자성 · 쇄신 결사를 완성”

자승 스님, 종무기관 신년하례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자성과 쇄신결사의 완성을 위해 주인 의식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2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7년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신년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신년덕담을 통해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직무를 냉철히 처리하고 동료와 화합, 소통하는 것이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자승 스님은 “종무원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자신의 제적사찰이나 일선 사찰들에게 제공하라”며 “이들 사찰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하는가에 따라 불교 중흥의 미래가 결정된다. 33대 집행부의 자성과쇄신 결사는 이런 조그마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2월 13일 조계사 대중전에서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의 결사를 완성하기 위해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자신의 실천이 불교 중흥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남의 일처럼 관망하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주경,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재가 종무원이 참석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정전 60년, 불교의 평화론을 되짚다

조계종 2월 27일 정전 60주년 세미나 개최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맞아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수불)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가 불교의 평화론과 평화운동을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범어사가 주관하고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가 추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 평화론과 평화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2월 27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석좌교수가 ‘불교와 이웃종교의 평화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불교평화의 이론적 모색’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평화운동의 성찰과 대안’을,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이창희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세미나에 대해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국민으로서 평화 유지를 위한 책임이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불교계는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봉행한다”며 “대회의 첫 행사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해소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정부의 천은사 관통도로가 갈등 원인”

화엄사 8일 긴급 교구 종회… 규탄 성명 발표

천은사 관통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해당 교구 본사인 화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화엄사는 2월 8일 특별교구종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엄사는 성명에서 "정부는 1982년 군사정권 당시 행정 편의를 위해 천은사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수용해 성삼재도로를 개설해 수행환경을 훼손하고도, 해결의지 없이 30여 년을 보냈다"며 "이는 결국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사찰과 도로를 이용하려는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했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 같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채 내려진 판결은 사회공동체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화엄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천명하고 "정부는 불법 행정행위가 초래한 사유권 침해와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경색된 남북 관계에도 교류는 지속”

민추본, 정기 이사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2년 사업 및 결산, 감사 결과 보고와 올해 주요사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민추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민추본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남북한 실무회담과 합동법회 봉행, 평양불교회관 건립, 대북 인도적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서산대사 제향을 북한 보현사 봉행 사업과 108산사순례단과 함께 하는 신계사 성지순례, 조불련 봉축행사 초청 등도 민추본의 역점 사업들이다.

이와 함께 민추본 이사회는 연임 ·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다. 민추본 이사회는 오는 3월 17일 임기 만료되는 당연직 이사 법광 스님(사회부장)과 현 이사 지홍 스님, 혜자스님(도선사 주지), 정념 스님(중앙종회의원),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연임키로 결의했다.

신임 이사에는 종훈스님(결사총괄부장), 법인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과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을 선임했다.

신중일 기자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몰려다니지 마라”

내 삶을 송두리째 깨우는 도법 스님의 죽비소리

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지금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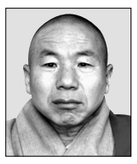
위로를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에어컨 처방과 비슷해서 순간적으로 편하고 좋을 수 있으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착각과 환상에 중독되게 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랑하고 몰려다닐 것이 아닙니다.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 겁 많음, 게으름, 나약함, 이해타산, 무력감 나아가 누군가가 나서서 내 문제를 잘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의 핑계가 보입니다. 그것을 혁명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큰 용기를 내야, 비로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_서문 중에서

문의 070-7606-7430



지금 당장, | 도법 지음 | 다산초당 | 13,000원

일 주 문



능인학원 졸업식

조계종 종립 능인학원 이사장 향적 스님은 2월 7일 교내 강당에서 제72회 졸업식을 갖고 중학교 423명, 고등학교 5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실전호흡수행 6기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3월 8일까지 실전호흡수행 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32-2183



동안거 해제 설법회

현각 스님은 3월 1일 오전 11시 부산 대광명사에서 동안거 해제 기념 설법회를 개최한다. (051)742-7610



한국 영향력 CEO 33人 선정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14일 TV조선이 주관하는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33人에 선정됐다.



명예약학박사 취득

남종현 그래미 회장은 2월 15일 동국대로부터 숙취해소제 '여명 808' 등을 개발하고 약학대학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약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지극 정성 다하면 무엇이든 이뤄져"

조광래 나호로발사추진단장



백척간두진일보 마음으로 임해

공황장애 진단에 신경안정제 복용

종립 동국대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지성여신(至誠如神.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 한 과학자의 사무실에 적힌 글귀였다. 우리나라가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에 성공한 1월 30일 환한 웃음을 짓는 이가 있었다. 나로호 발사 프로젝트를 지휘한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이었다.

독실한 불자인 조광래 단장은 항공우주과학계에서 이례적으로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학부와 석사(1984년) 박사(1988년)를 모두 수료했다.

1989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년 넘게 로켓 개발 외길만 걸어온 조광래 단장은 1990년대 과학 관측 로켓 개발을 주도했고, 2000년대 들어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나로호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두지휘했다.

조광래 단장은 나로호 발사 성공이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들과 지난 11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다. 30일 나로호 발사가 성공리에 이뤄지자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곳곳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숱한 날을 고생한 끝에 비로소 일궈낸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진한 눈물이었다.

지난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조광래 단장이 느낀 중압감은 컸다. 그로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했지만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심정으로 발사에 임했다.

조광래 단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 반드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전체를 걸고 준비했다"며 "우리 연구원들을 패잔병으로 만들지 않은 게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광래 단장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가 11년째 진행되며 개인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겨울에는 부산 제작공장에서 연구원 수십 명과 겨울비를 맞으며 실험을 강행해 단체로 독감에 걸리기도 했다.

조광래 단장은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의 이면에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이 숨어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조광래 단장은 "한국의 우주과학 연구 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러시아 흐르니체프사는 4만 명에 달하고, 러시아의 한 개 엔진업체도 2천명이 넘는다"며 "꾸준히 지원한 정부의 결단과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발사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로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을 자국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이른바 '스페이스(우주) 클럽'에 11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호희망재단, 네팔오지에 희망 전달



네팔 산악지대 마을에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다. 천호희망재단(이사장 월서)은 1월 31일 네팔 산악지대 밤띠마을 보우다초등학교에 물탱크와 화장실을 지원했다.

월서 스님은 밤띠마을 보우다 초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는 학용품과 배드민턴,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보우다 초등학교에는 40여명의 어린이가 공부하고 있다. 천호희망재단은 이번 결연에 따라 학교와 마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매달 5000루피를 후원할 예정이다.

월서 스님은 "교육 만이 미래를 담보한다"며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천호희망재단은 부처님 자비로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2년 6월 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 초, 중, 고등학교에 매월 정부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미얀마와 라오스로 활동 영역을 넓혀 교과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학림사 쌀 200포대 불우시설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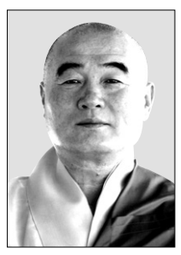
수락산 학림사는 새해를 맞아 자비 보시 정신 실천을 위한 행사로 불우 이웃 돕기 공양미 모으기 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모연된 쌀 20kg 200포대를 2월 13일 구청을 통해 관내 불우시설에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대연각사 자비의 쌀 부여군에 기탁



부여 대연각사(회주 불일)는 2월 6일 부여군청에서 입춘기도비로 마련한 자비의 쌀 20kg 108포대를 부여군 관내 불우 청소년 및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전달했다.(041)835-3933 노덕현 기자

전사련 2대 회장에 무산 스님 취임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전사련) 제2대 회장에 무산 스님이 취임했다.

무산 스님은 전사련의 향후 계획에 대해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희망과 의욕을 상징한다"며 "재임기간에 의욕만 앞세워 법인조직 관련 업무행정 현안 전반을 서두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연합회 회장들이 신임초기 관례적으로 지나친 의욕을 지니는 것과 모든 현안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증의 단점을 지적하며 "조직이 갖는 복합성과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두르면 졸속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산 스님은 이런 경험에 비추어 재임기간에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첫째는 집행부 실무진과 행정 속도를 맞춰 예상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성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점진적인 발전을 통한 연합회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둘째, 조직 활성화와 조직 경제 살리기를 재임기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초종파 실무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과감하게 중도인사,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인맥을 행정업무 외교라인에 포함 시켜 해당분야에 전문적이고 중량감 있는 인물을 집행부에 포진해 새로운 조직문화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 서남수, 김병관 새 정부 교육·국방 수장으로

서남수 내정자

교육부 인불회 창립 견인차 역할

송담 스님 법문 듣고 불교 수행



진각종립 위덕대 서남수 현 총장과 김병관 前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차관 시절 교육부 불교 신행모임인 인불회 창립을 견인했을 정도로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서 내정자는 지난해 위덕대 총장 취임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30년전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 법문을 접하고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며 "법명인 송도(松濤)도 송담 스님이 몸은 공직자로 세속에 있으나 마음은 불교수행에 담고 있으라는 의미로 내려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수료했으며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년 이상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관료다. 지난해 8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뒤, 9월부터 위덕대학교 제5대 총장을 맡아왔다.

김병관 내정자

군불총 회장 등 군포교 공로 커

반야심경 강의 진행 불교 교리 해박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독실한 신심을 자랑하는 불자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시절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며 군포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2007년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해박한 불교 교리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그는 2008년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당시 장교들을 대상으로 '수행과 반야심경'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강의에서 선수행의 관점에서 〈반야심경〉을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내정자는 당시 강의에서 "좋은 것, 옳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나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지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며 "번뇌를 일으키는 그 생각이 모두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본성이 다가온다. 진정한 나는 원래 없는 공(空)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의 대자유를 찾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본부 2사단 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부장, 1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확고한 안보관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2월 25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5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매순간 집중하면 심신의 아픔 모두 사라져요”



최성연 지도사(가운데)의 지도에 따라 국제선센터 수련생들이 선요가 동작을 배우고 있다. 1시간 30분 가량 요가가 진행된 뒤 참선이 이어진다. 선요가 강좌는 주중 · 주말, 오전 · 오후로 나눠 매일 진행된다.



요가 강좌 후 혜연 스님의 참선 지도 하에 수련생들이 입정에 들었다.



수련생들은 요가 이후 바른자세와 집중력을 갖고 참선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도심 속 선요가 현장–국제선센터

깍지 낀 손은 머리 뒤로 넣고, 무릎을 구부린 다리의 두 발은 발바닥끼리 마주한다. 땅에 의지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아등바등할 때쯤, 요가 선생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머리를 들고 양 어깨의 높이를 확인하세요. 높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틀어진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높다면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고 시선은 반대방향으로 향하세요. 자세를 교정하다보면 잘못된 자세로부터 오는 것들이 자연히 치유될 것입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선요가 강좌 현장. 편한 옷차림을 한 10여 명의 수련생들이 최성연 요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몸을 맡겼다.

고난이도의 요가자세가 요구되지 않지만 온몸을 고루 사용하고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땀이 흐른다. 동작 하나가 건강을 위한 것이란 믿음이 있어서일까, 그들 움직임에는 용맹정진 수행의 열기가 살아있다. 국제선센터 선요가 현장이다.

요가가 생활운동의 하나로 인정받으며 포교에 이를 활용하는 사찰과 단체들이 늘었다. 그 가운데서도 국제선센터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선요가를 통해 서울 목동지역 포교에 나서고 있다. 선요가는 참가자들이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와 마음을 고요히하는 참선을 결합해 심신의 건강을 함께 회복하는 수행이다. 국제선센터 선요가에는 60여 명의 수련생들이 오전과 퇴근 후 오후반에 나눠 활동하고 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먼저 몸을 다스리고 자신을 바라보면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최성연 지도사는 ‘요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요가의 한 동작을 따라해 보았다. 첫 동작은 일명 ‘시체자세’로 불리는 긴장을 완화 시키는 기초자세였다. 이어 팔베게하고 비틀기 자세 등으로 이어졌다.

압권은 ‘뱀 자세’였다. 숨을 마시면서 발끝을 펴 발등을 바닥에 댔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골반을 바닥으로 밀어 내렸다. 머리와 가슴을 들어올리니, 고개를 빳빳이 치켜든 모양새가 영락없는 코브라다.

“굳어있던 근육이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풀리는 것을 느끼세요. 발가락과 허리에서 전달되는 느낌을 관하세요. 바닥과 내가 완전히 연결됐는지도 살피고요.”

몸을 움직이니 통증이 느껴졌다. 이내 참았던 숨은 어느순간 탁 트였고,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호흡과 동작이 몸에 익으니 막혔던 느낌들이 솟아올랐고, 어느새 심신은 날개를 단 듯 가벼워졌다.

요가에서는 역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게 한다. 한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가지, 80가지 자세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 어색하게나마 여러 동작을 따라 해보니 요가가 왜 그런지 저절로 답이 나왔다.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올리는 남사스러움도, 주책없이 터져 나오는 잔방귀도 감수해야 한다. 점잔 떨 마음이 남아 있으면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요가였다. 몸을 움직이니 경직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열렸다. 한 동작을 완성할 때마다 생생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무념무상이다.

국제선센터 선요가로 포교나서
적절한 긴장과 이완, 호흡 강조
참선으로 마음 건강도 챙겨
지역 신행 흐름 짚어내 인기

이런 이유로 요가는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불교에서 모든 수행법은 내려놓음에 있다. 몸이 굳어 있음보다 긴장된 마음이 더 수행에는 방해물이다. 산란한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니 굳은 몸은 절로 부드러워 졌다. 거친 숨을 섬세히 다루다보면 자연히 정신은 집중됐다. ‘알아차림’과 ‘정신집중’을 중시하는 불교 수행과도 닿아있음을 느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요가 강좌 뒤에 참선 수행이 이어졌다.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혜연 스님의 지도하에 수련생들은 입정에 들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행한 공덕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회향합니다. 공덕이 나뉘어져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혜연 스님의 선창에 따라 수련생들은 마음을 내려놓으며 입정에서 깨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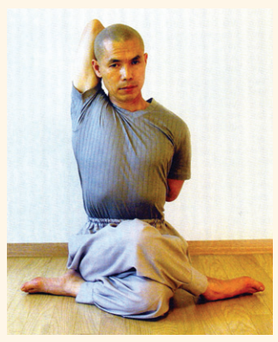
혜연 스님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때 하는 합장의 자세나 가부좌 뿐 아니라 거꾸로 엎드려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요가”라며 “부처님께 늘 경배한다는 마음으로, 또 나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요가를 한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강좌가 끝난 뒤 향류 김희남 씨(42)는 “안쓰던 근육을 쓰면서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 동작이 익으며 선요가가 재미있어졌다”며 “매일하며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산후 휴유증을 선요가를 통해 극복했다는 김 씨는 “선요가는 요가 수련 후 수식관 명상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 매력있다”고 말했다.

처음 개강할 때부터 선요가 강좌에 나오고 있는 청련화 씨(60)는 “디스크가 있었는데 요가로 많이 나아졌다”며 “요가를 실습하는 동안 신체가 전반적으로 이완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선에 도움이 되는 요가 자세





〈해인사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에서 발췌

소머리 자세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위에 겹치면서 양 발꿈치는 반대쪽 엉덩이에 가까이 댄다. 올라간 다리 쪽의 팔을 어깨 위로 돌리고 다른 팔은 허리 뒤로 휘감아 등뒤에서 양손을 마주잡은채 고요히 호흡한다. 이때 위쪽 팔꿈치는 뒷머리에 붙인다. 잡았던 손을 풀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용천을 누르고 호흡에 맞춰서 상체 숙이기를 몇 번 더 반복한다. 다리를 바꿔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다.





뱀 자세와 연속동작 엎드려서 양손으로 가슴 옆 바닥을 짚고 서서히 허리를 젖혀서 상체를 든다.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늘여 펴주는 느낌으로 머리도 마음껏 젖히고 시선은 최대한 뒤쪽에 둔다. 힘겨운 사람은 손짚는 위치를 조금 머리쪽으로 옮겨서 편하게 하면 된다.

두 번째 동작은 활자세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무릎을 굽혀 발복을 잡고 다리를 뻗으면서 상체를 들면 활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런 자세에서 앞뒤로 시소처럼 움직인다.



강좌로 내 마음도 남도 치유해요

불교계 평생교육원, 마음치유지도사 진행



참좋은 평생교육원의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수료생은 심리센터, 방과후 교습소, 호스피스 병동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조계사 · 통도사 평생교육원
마인드케어지도자 양성
참좋은…, 심리상담사 과정
민간자격증 취득 후 지도자로 나서

배우고 익히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 최근 불교계에 설립되면서 수강생들이 강좌에 열띤 참여를 보이고 있다.

교계 평생교육원은 특히 명상과 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불교의 주요 콘텐츠로 떠오른 '마음치유' '힐링' 등을 주제로 강좌를 열고 지도자를 양성해 불교계 새로운 포교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원장 도문, 02-732-1402)은 알아차림(Sati) 명상을 기반으로 한 마음건강 관리 및 지도자 격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기를 모집해 교육하고 있으며 3월 5일부터 3기를 모집해 15주 동안 강좌를 진행한다. 수업은 이론 30시간, 실기 100시간, 봉사 20시간으로 구성돼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본부장은 "불교포교사들은 많지만 마음수행 ·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지도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불교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수행과 명상위주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사진은 이태호 교수(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총괄기획이사), 붇다빠라 스님 등 수행 · 명상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돼 'MindCare 기술'을 주제로 좌식 · 걷기 · 생활속 마인드케어, 사띠(알아차림) 강화이론, 서양심리학 · 서양상담학 등을 가르친다.

조계사 평생교육원은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마인드케어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학교, 기업, 평생교육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밖에 조계사는 오는 3월 △선재 스님의 자연건강 사찰음식 집중연수과정 1기 △까야싸띠 명상체조 교실 △명상과 힐링, 세상과의 소통 등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자연건강 사찰음식 집중연수과정'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연건강식의 노하우를 배우고 조리 실습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단을 배우게 된다. '까야사띠 명상체조 교실'은 불교 전통무술인 선관무 수련동작과 불교 수행법인 사띠 수행법을 접목시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명상체조다.

'명상과 힐링, 세상과의 소통'에서는 호흡수행법 및 5분 명상법, 24시간 수행법을 배우게 된다.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축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은 12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축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원장 원산, 055-382-7182)은 조계사 평생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을 비롯한 사찰음식 연수과정, 명상체조 교실 등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통도사는 평생교육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마인드 뉴스(tong.vouvstudio.com)'를 개설해 마음과 명상 등 불교적인 수행법을 비롯한 마음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소식과 칼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축 평생교육원은 시민기자스쿨을 운영해 시민기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코레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치유 캠프를 실시해 통도사의 자연경관을 즐기고 휴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와 통도사 평생교육원이 초점을 두는 것은 마인드케어(Mindcare)다. 즉, 심성치유의 길을 안내할 마인드케어지도자 양성과정을 비롯해 도시마을공동체 실무과정, 교사마음건강캠프, 미디어다이어트 캠프, 학교폭력힐링캠프 등 전문적인 치유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

이태호 본부장은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 고통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마음 치유교육을 실시해 '불교적인 마음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평생교육원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은 2012년 4월 전국사찰로는 처음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 '참좋은 평생교육원'이 바로 그것.

참좋은 평생교육원(원장 김영한, 053-471-8225)은 일반 과정과 자격 과정, 취미과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12년까지 2기를 모집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수강생들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밖에 가요교실, 다도, 요가, 칭찬과 웃음치료 등 20여 개의 다양한 취미과정이 마련됐다.

김영한 원장은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이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0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자격이 부여되며 47명의 심리상담사가 배출됐다"며 "이들은 대관음사에서 운영중인 참좋은 심리센터를 비롯해 학교, 방과후 교습소, 유치원 어린이집 및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Tip

불교대학과 평생교육원의 차이는?

전국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은 경전공부, 교리강좌 등 불교를 주제로 한다. 평생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교육기관으로 불교용어와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마음치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치유대상 역시 불자들보다는 기업연수와 중고등학교 특성화 활동, 대학생들의 예비사회화 과정, 교육직무연수 등으로 확대된다.

봄맞이 사찰음식으로 입맛 찾아요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레시피 소개



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사찰음식 화보집〉에 수록된 레시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사찰음식 자료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범국민 식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업단이 발행한 〈한국사찰음식화보집〉에 수록된 다양한 레시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사찰음식은 심신의 열을 더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신채(파,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고, 버섯과 다시마, 재피, 들깨 등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 영양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를 통해 공개된 레시피는 총 30여 가지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사찰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온 메뉴를 조사하고 계량화한 것이다.

이번 레시피들은 경북 임허사의 '두피를 튼튼하게 해주는 팥죽', 충남 흥주사의 '깊은 바다의 맛, 다시마고추장' 등 사찰별 특징이 담긴 대표 메뉴로, 향후 계절을 비롯해 명절 · 절기별, 주식과 부식, 떡 등 종류별로 추가될 예정이다.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3월 12일부터 사찰음식 강좌를 실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찰음식 노하우를 전한다.

대안 스님(금수암 주지,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대표) 우관 스님(現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 대표), 적문 스님(평택 수도사 주지,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장), 정관 스님(삼척 신흥사 주지, 現 풋내산사음식교육관 대표) 등 국내 정상급 사찰음식 전문가인 스님들의 강좌를 통해 사찰음식의 역사와 재료의 성질, 사찰식 상차림 등을 만날 수 있다.

양천구 국제선센터에서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 초보자를 위한 '초급강좌'와 초급강좌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중급강좌' 2개 교육으로 나뉘어져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문의 (02)2655-2776

신중일 기자

제34회 전국만해백일장대회 열려

대불청,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서…2000여 명 참가예상



전국 유일의 최다인원이 참가하는 백일장 행사인 제34회 전국만해백일장대회가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시 · 시조, 산문분야로 나누어 전국의 초 · 중 · 고등부 및 대학 · 일반부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만해백일장에는 500여 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최고상인 만해대상에는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전국 만해백일장은 3.1민족자주독립선언을 기념하고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의 계승을 위해 지난 1979년 3월 1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전국유일의 최다인원이 참가하는 백일장 행사로 올해로 34회째를 맞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2003년부터는 참가자들의 작품 표절 방지를 위해 중등부, 고등부의 경우 감독관의 감독 하에 강의실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회 공신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부의 경우 우수상 이상 수상을 하면 대학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서 가점 요인이 되는 등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여성개발원, 승만경 · 웰다잉 강좌 개설

26일 정기총회 열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 · 이하 여성개발원)이 신년을 맞아 강좌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다.

여성개발원은 3월 26일~5월 14일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제7기 승만경 봄 강좌'를 연다.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승만부인사자후경〉을 교재로 승만경 경전을 통해 여성성불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웰다잉지도자 기본과정도 개설된다. 3월 14일~5월 2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 됨'을 주제로 진행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의 개강식 법문을 시작으로 변성식 소장(마음건강연구소 소장)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정진희 웰다잉운동본부장이 '웰다잉 개요'를, 여행 스님(원자력병원 영산법당 지도법사)이 '불교에서 바라본 죽음'을, 황수경 교수(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가 '삶의 의미와 불교수행'을,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이 '내마음 보기-관계의 치유'를,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이 '현실에서의 죽음'을, 방송인 김병조 씨가 '자살,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를, 김기호 대표(아름다운 삶 수련원)가 '죽음은 삶의 최고 발명품'을, 이범수 겸임교수(동국대 생사의례학과) · 최서윤 웰다잉 지도사가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날은 일묵 스님(제따와나 선원장)이 회향법문과 수료식이 진행된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2월 26일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 및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봉행

귀의삼보 하옵고,
한국불교의 고승이자 대석학으로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탄허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탄허대종사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탄신다례재 및 수행일화집 봉정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7(2013). 2. 24. (일) 10:30 ~ 12:0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 문 의 : 033)339-6800
■ 행사 내용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다례재 : 10:30 ~ 11:00
• 수행일화집 '方山窟의 無影樹'와 법어집 '방산굴법어 증보판' 및 논문집 '되돌아본 100년, 탄허' 봉정법회 : 11:00 ~ 12:00

불기 2557(2013)년 2월 15일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합장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안내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와 한암문도회는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 · 출판사업, 홍보사업, 연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사 업 명	일 정	장 소
■ 학술 / 출판사업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제2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탄허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	4.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국제회의장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 및 책자 발간		
– 탄허대종사 증언집 '방산굴의 무영수' 발간	2. 24.	
– 탄허대종사 유묵집 발간	4. 15.	
– 탄허대종사 법어집 '방산굴법어' 증보판 발간	2. 24.	
– '되돌아본 100년, 탄허' 단행본 발간	2. 24.	
– '탄허대종사의 인재와 교육' 단행본 발간	8. 31.	
– '탄허대종사 생애와 가르침' 소책자 발간	4. 15.	
■ 홍보사업		
• '탄허대종사의 사상과 생애' 다큐멘타리 제작 및 방송	5월 중순	불교TV, KBS
• 탄허대종사 100주년 방송 홍보 및 육성법문 방영	1월 – 12월	불교TV
■ 연대사업		
• 틱낫한스님의 '치유 · 행복 · 상생' 명상수행학교 운영	5. 3. – 7.	월정사
■ 교육사업		
• 화엄강좌 개설 및 운영	10. 12. – 20.	월정사
•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특별 강연	4. 15.	국립중앙박물관
• 무비스님 초청 특별 강연	4.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문화사업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유묵특별전 – "한국근대고승유묵展-오대산월정사 한암 · 탄허선사 특별전"	4. 15. – 6. 16. 7. 10. – 8. 25. 9. 9. – 10. 3. 10. 10. – 11. 24. 12. 10. – 2014. 2. 1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다례재	2. 24.	월정사
• 탄허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재	6. 2.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 및 입선작 전시회	6. 2.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10. 12.	월정사
•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나눔의 치유음악회	10. 19.	월정사

일터 경험 통해 소외아동들 꿈 심어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의지나눔 5기 수료, 호응 커



기업인, 법조인, 교육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아이들을 초청해 일과 경험담 및 삶의 과정을 들려준다. 최근에는 플로리스트, 승마관리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도 소개하고 있다.

교육양극화 해소 위해 탄생
60여 가지 직업의 세계 체험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청소년들 "자신감 얻고 길 보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교육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월평균 자녀 보충교육비(과외비)가 10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는 빈곤아동들이 소외감·괴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빈곤가정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하거나 꿈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경험을 제공해 높은 꿈과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하는 불교계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Sharewill)' 운동(이하 의지나눔).

의지나눔 운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996년부터 350여 명의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결연후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결연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주변에 꿈과 목표를 제시해줄 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의지를 나누어줄 만한 삶의 모델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직업세계와 경험담을 들려주어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인, 법조인, 교육인, 정치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아이들을 초청해 일과 경험담 및 삶의 과정을 들려주고자 2007년 본격적으로 의지나눔 운동을 시작했다.

'경험을 나누면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걸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스타일리스트, 브랜드마케터, 요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과 청소년들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그러다 복지재단은 이전까지 일회적인 성격을 띠던 의지나눔 운동을 2008년 9월부터는 기수별로 모집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매년 3월까지 서울·경기도권 소외계층 청소년을 모집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15~17회기에 걸쳐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월 19일에 의지나눔 5기 수료식이 한화빌딩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너의 꿈을 펼쳐봐'를 주제로 1부 프로그램과 2부 수료식으로 마련됐다. 개그맨 조지훈과의 만남을 끝으로 5기 참가자들은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변화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의지나눔을 통해 청소년들은 8개월 동안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뮤지컬, 영화관람을 비롯해 공부비법 등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듣는다.

지금까지 재능자원봉사자들이 소개한 직업 현장은 60여 가지다. 의료인, 큐레이터(학예연구사), 기자, 사회복지사, 북아트 전문가 등 다양하다.

현재까지 참여한 청소년들은 천여 명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의지나눔에 참여한 강수민 양은 "내가 직접 해보지 못했던 여러 직업들을 체험해 보고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여러 전문 직업인들을 만나 직업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들으면서 내 꿈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은비 양은 "의지나눔 운동을 통해 최고의 추억과 자신감을 얻어 너무 행복하다"며 "친구들에게 의지나눔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의지나눔에는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동국대 자원봉사자 모임인 108리더스 회원들도 함께해 청소년들의 말동무가 돼주고 인생의 조력자가 돼 준다.

이제인 동국대 108리더스 회원은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선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봤다. 좋은 추억도 되고 보람도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3월 의지나눔 6기생 모집을 통해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복지재단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진다[有志者事竟成]'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목표와 희망이 있다면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는 힘이 생긴다"며 "앞으로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욱 넓은 세상에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천태·진각종 사회복지사업 '박차'

복지재단 신년 사업계획 소개

신년을 맞아 천태·진각종 복지재단이 재단별로 특화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에 적극 나선다.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도정)은 지난해 금강대 사회복지학과와 상호발전협약을 맺고 노인복지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등 9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금강대와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 △상호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운영자문 △전문사회복지인력양성을 위한 실습처 제공 및 노인복지현장 교육사업 △기타 노인복지 및 해당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천태종 복지재단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전문가를 초빙해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연수를 개최해 직원역량을 강화한다. 대외적으로는 부처님오신날 열리는 불교문화마당에서는 내·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체험을 제공해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지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8월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천태여름캠프를 개최해 어린이포교 활동과 아동복지사업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 정사)은 설립 15주년 맞아 올해를 '진각복지비전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비전확립을 위한 주요사업을 실시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재단 설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진각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진각복지비전 수립을 위한 진각복지미래연구 TFT구성 및 운영 △법인 자체시설 및 특화사업 확대 △산하시설 경영성과 평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종사자 직무역량평가(인성, 불성, 전문성)를 통한 인재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각종은 복지사업을 해외로 확대해 이어갈 계획이다.

네팔에 부지를 확보한 진각종은 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아동센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혜정 정사는 "앞으로 진각복지재단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어느 한 분야의 특수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할 것"이라며 "한 도(道)마다 모든 이를 아우르는 복지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종하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매년 기부

신년맞아 1500만원 전달…총 4500여 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관음사 주지·사진)은 2월 14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에 자비나눔 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매년 아름다운동행에 보시를 해온 종하 스님은 새해를 맞아 기금을 보시하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대중들이 자비나눔에 십시일반 동참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행해지길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종하 스님은 2009년 아름다운동행의 출범 후 저소득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의 첫 번째 기부자로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후 2010년과 2011년 아이티, 일본 대지진에 긴급구호기금 등에 4500여 만원을 기부했다. 이나은 기자

군포 정각사, 노인요양센터 수탁 운영

산본병원 장례식장과 협약, 장례지원사업 실시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사진 왼쪽).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사진왼쪽)은 원광대 산본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홍석·사진오른쪽)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례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 군포지역의 복지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가 지역 공공시설과 협약을 맺고 군포지역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각사는 군포시보건소 부설 노인전문 보건센터에서 운영 중인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원장 정엄)를 수탁 받아 2월 1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운영에 나선다.

요양센터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식, 요양,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생활지원, 의료재활, 여가문화, 치매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엄 스님은 "지역에 있는 요양원들과 연계해 보호자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원봉사자, 중소자영업자, 교회, 사회 등 종교와 인종, 출신을 떠나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각사에서 운영하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홍석)과 함께 군포지역 장애인 및 사회공헌 활동자(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를 대상으로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원광대 산본병원 장례식장은 1월 25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사용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김용철 관장은 "장애인을 위해 배려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 많은 단체와 기업과 연계해 장애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자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399-1888 이나은 기자

2월 환자, 급성림프성백혈병 오대영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월의 치료비 지원환자로 '급성림프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오대영(21·남)〈사진〉씨를 선정했다. 오씨는 5살의 어린 나이에 백혈병을 이겨냈지만 긴 투병기간으로 인해 부모가 이혼했고 양육을 맡던 아버지도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백혈병마저 재발해 72살의 할머니가 유일하게 오씨를 간병하고 있다.

골수기증자를 기다리며 치료 기회를 보던 오씨는 최근 골수기증자가 나타났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골수이식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2013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최고지도자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명리학최고지도자과정	유방현
풍수지리최고지도자과정	최병용
서예교육강사과정	이영철
자연치유사최고과정	이충식
부동산재테크최고과정	김기찬
장례지도사과정	유재철
무교최고지도자과정	김 용
피부미용치유사최고지도자과정	이형환

전문가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육효와 구성기학	김도희
치유요가테라피강사과정	임동호
오행식이요법과정	이영주
수맥탐사-심화	임세빈
간 건강상담사	이형환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과정	이형환

일반교육과정

● 자연치유 / 문화예술분야

과 정 명	책임교수
무단기공[武丹氣功]	김형진
노인심리상담사 전공	정명숙
단전호흡(국선도)	정택동
명상심리상담사	방기연
수맥탐사-기초	임세빈
인상학 전공	박정희
얼굴마케팅	강선구
노인건강지도사	한주연
위락치유법	하규용
체질과 식이요법	이영주
학습진로상담사	안성재
한국무용 전공	한주연
행복힐링과 3파이토 치료법	이보구
홍채진단	임정희

● 불교문예분야

불교경영성공전략	임상도
위빠사나	이종숙
법고기초 전공	장덕스님

● 미래예측분야

기초사주달인	나광영
논리사주 전공	박성희
마의상법 전공	박은영
명리실전 전공	김동현
명리기초 전공	정재혁
명리통변 전공	천승민
명리상담창업과정	한대수
명리질병예측론	김경배
매화역수 전공	김정숙
맹파명리 전공	장순옥
성명사주 전공 Ⅰ	안희성
성명사주 전공 Ⅱ	안희성
생활풍수인테리어전공	한동수/곽민석
숫자풀이 인연법	박춘건
우리집 좋은 기운 만들기	정재직
자연명리 전공	유기임
주역타로	정재직
주역작명 전공	박동환
진본 대육임 경영학	유창남
타로카드 전공	최현주
풍수실용전업 전공	양만열
현장명리 전공	장순옥
현공풍수 전공	한승철
홍연기문 전공	조철휘

학점은행제 과목

과 정 명	담당교수
기초동양화	하영준
동양화기법	이용석
문인화 Ⅰ	하영준
수묵화 Ⅰ	박병배
채색화 Ⅰ	이대용
한국미술사	이소영
동양미술사	이소영
드로잉 1	이대용
서예 Ⅰ	곽노봉
서예 Ⅱ	곽노봉
서화론	곽노봉
동양화론	하영준
문인화 Ⅱ	박병배
모필표현법	곽노봉
한국회화론	이소영
전각	이영철
조형심리학개론	이영철
드로잉 Ⅱ	이대용
백묘	배정하
서양미술사	하영준
수묵화 Ⅱ	이용석
채색화 Ⅱ	박선진
한국근대회화사	이소영
동양화감상론	하영준
동양화실기연구 Ⅰ	박선진
동양화재료실습	이용석
미술해부학	이소영
한문	이영철
불교학개론	심상현
불교문화의 이해	주명철
명상과 단전호흡	김형록
요가	임동호
영어	백원기
생활서예	이영철
중국철학사	윤무학
유가철학	윤무학
옻칠의 성분분석	권순섭
옻칠기법	권순섭

일반교양과정

과 정 명	담당교수
도가경전강독	윤무학
유가경전강독	윤무학
서예실기연구	이영철
문인화 실기	하영준
한글서예실기	장용남

문의 전화 02)3668-9890, 9871~2 www.dongbang.ac.kr

“국가권력에 의존한 ‘불교사’를 바로 보자”

동국대 정각원- 근현대 한국불교

김광식 교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과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듯, 불교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필 때는 반드시 불교 역사를 알아야 한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1월 26일, 2월 2일 2회에 걸쳐 김광식 교수(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를 초청해 ‘근현대 한국불교’를 주제로 법회를 열었다. 김광식 교수는 일제 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역사를 정리하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계종단과 기타종단이 국가권력 문제에 맞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억불숭유정책으로 불교는 산중으로 쫓겨났고 수많은 탄압을 받았다. 때문에 불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식민지 통치 경영에 맞게 한국의 사찰을 억압하기 위해 사찰령(寺刹令)을 제정·공포했다. 일본은 민족운동의 거점인 사찰을 통제하고 후원을 차단하고 일제가 불교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시혜론(施惠論)을 선전하면서 일본불교를 유입하고 관철하고자 했다. 일본불교의 대표적인 관행이 대처승(帶妻僧) 제도로, 우리나라 스님들과 충돌, 저항, 타협이 생겼다. 일제 강점기의 경향을 유형별로 △주류의 흐름 △만당(卍黨)의 흐름 △조선불교 선종(禪宗)의 흐름 △대각교: 백용성, 온건개혁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류의 흐름

당시 한국 스님의 80%는 주류의 흐름을 따랐다. 이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과 타협하는 성격을 띠었다. 대처승 7천명 중 독신 스님은 200여 명 밖에 안됐다. 또한 일본은 불교종단 및 종단의 설립을 인정하지 하지 않았다. 대부분 스님들은 이를 묵인했지만 스님의 인권과 불교 위상은 일본불교로 인해 조선시대보다는 높아졌고 사찰재산도 보호를 받았다. 때문에 스님들은 일본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자연적으로 대처승을 수용했고, 주류에서는 일본불교를 우호적으로 봤다.

종단을 인정하지 않는 일제는 한국불교를 직접 관리하겠다면서 30본산 연락사무소(1911년)와 30본산 연합사무소(1912년)만 설립하자 주류의 스님들은 자주·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기로 노력했다. 3·1운동 후 결성된 조선불교청년회, 유신회 등이 그것이다. 주류 세력의 스님들은 불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인 1924년 재단법인 교무원을 설립했고, 1929년 승려대회를 통해 종헌종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종헌체제를 대처승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1935~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우리 불교를 총알받이와 재산강탈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표기관 설립을 주문한다. 그러나 반응이 없자,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사찰인 박문사의 일본 스님이 “한국불교를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이에 이종욱, 김상호, 만공, 오성월 스님이 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총본산과 종단을 만들자고 추진해 각황사를 보수해 현재 조계사로 이전하고 1941년 4월 23일 임제 스님의 선 정신을 담은 조선불교 조계종(曹溪宗)을 출범했다. 종정을 만들고 종무총장(지금의 총무원장)을 만들고 종회를 만드는 등 자생적인 종단을 출범 시켰다.

만당의 흐름: 한용운, 진보개혁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스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다. 만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유심〉을 통해 계몽을 선도하고 수양을 하자는 운동을 일으켰고 1920년에는 청년회, 유신회, 사찰령철폐 운동을 펼쳤다. 만해 스님은 1924년 조선불교청년회 총재 자리를 맡아 1929년 승려대회를 주도해 종헌체제를 만들고 불교 자주화를 추진했다. 1930년 5월에 만해 스님을 따르던 추종세력의 핵심인 스님 20여 명이 비밀결사조직인 만당(卍黨)을 만들었다. 이들은 △정교분립 △교정확립 △불교대중화를 강령으로 대중불교, 도회지 불교를 내세워 청년·민중운동 활동을 했다. 그러다 1934년 만당이 노출되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당원들이 일제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조선불교 선종의 흐름: 선학원 수좌

당시 스님들은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전통불교가 변질되고, 계율풍토가 이완돼 선풍이 후퇴됐다는 자각을 했다. 전국 2000~3000개의 모든 사찰이 총독부 통제아래에 있으니 민족적 자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찰령 체제와 조선총독부과 무관한 절을 만들기로 하고 선학원(禪學院)을 설립했다.

1921년 만공, 오성월, 백용성 스님 등이 주축이 돼 선방 수좌 스님들이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를 만들었으며, 적음 스님이 1931년 불사금을 기부해 선학원을 재건하고 잡지를 발간하고 부녀자들도 참선에 동참케 하는 등 불교 대중화를 추진했다.

이후 1934년 재단법인인 조선불교 선리참구원(禪理參究院)을 만들어 재정을 확립하고 이듬해 3월 일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불교포교를 위해 조선불교 선종(禪宗)을 만들었다. 스스로 종규와 종무원 및 종정을 세웠고, 방한암 스님, 만공 스님 등이 종정으로 추대됐다. 1941년 선학원 고승 40여 명이 모여 계율을 진작하고 조계종 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박한영, 하동산, 자운, 청담, 금오, 운허 스님 등이 주도해 10일 동안 ‘유교법회(遺教法會)’를 열었다. 일본은 이러한 선학원을 암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당시 일제의 태평양전쟁으로인해 군수물자를 바치고 창씨개명을 하는 등 엄혹한 시절, 스님들이 자생적으로 법회를 열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김광식 교수는 … 건국대 대학원을 수료(문학박사)하고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부천대 초빙교수, 만해마을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 몸담고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한국현대불교사연구〉 등 20여 권이 있다.

강점기 불교 일본불교 영향 불가피
부정부패, 비자주적 성향 남아
국가 권력 문제에 전략적 대응 필요

대각교; 백용성 온건개혁

백용성 스님은 1911년 전라도에서 깨달음을 얻고 상경했다. 만해 스님과 인사동 포교당에서 일제 저항운동을 하면서 선포교, 임제종 운동을 했다.

1915년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압력으로 백용성 스님은 독자노선을 택했고, 임제파강구소, 선종포교당 등을 만들어 포교활동을 했다. 그러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민족대표 33인으로서 3·1운동〈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유로 2~3년간 구금당했다. 이때 백용성 스님은 천주교, 개신교 신자가 성경 한권으로 기도·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용성 스님은 세납 60대 일 때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대중들에 알려야겠다는 발심했다.

용성 스님은 수좌 스님들의 동의를 받아 조선총독부에 대처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여러 번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종단을 탈퇴하고 1927년 대각교 선언을 한 후 대처승, 승려대처식육 폐지 건백서를 발표했다. 당시 65세라는 나이는 최고령자로 인식됐다.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용성 스님은 불교경전을 번역하고 연변에 과수원에 농사를 짓고 포교당을 세우고 빈민교육에 앞장섰다.

일제 강점기의 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행하고 모순이 많은 시절이었다. 불교가 정권과 국가에 예속돼 눈치를 보고 조선총독부에 얽매이고 지하에서 로비 등이 오가면서 세속화되고 부정부패화 됐다.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

현대불교

해방 후 한국불교는 국가권력과의 대응이 불교의 변화와 발전 등에 중요한 변수였다. 삼국·고려·조선 등 전근대에는 불교가 유일한 종교였으나, 근대에 들어 천주교, 개신교가 유입됐고, 해방후 일제가 추방되고 미군정이 시행되면서 개신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권력)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운영·종교정책 등이 다르게 전개됐다.

이는 자연적으로 불교계의 성쇠, 발전, 퇴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대불교는 △해방공간(1945~1950) △불교정화 공간(1954~1962) △산업화·민주화(1964~1993) △1987년 민주화 본격화, 199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해방공간

미군정 체제에서는 일제하의 불교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처승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단 집행부와 재야 혁신단체 사이에 ‘대처승은 법사로, 청정비구·수행승으로 스님을 모셔야 한다’면서 치열한 갈등·대립을 겪었다. 또한 불교가 산과 논밭 등 사유재산이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949·50년 농지개혁을 실시해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다. 당시 전국의 1000여 개의 일본사찰중 남한에 있던 590개의 적산사찰(일본이 소유하던 사찰)은 미군정에 의해서 모두 개신교와 친일세력에 제공됐다.

이후 스님들은 사찰령을 철폐하고 자주적으로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군정에 건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차별적 대우가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공무원 60%가 기독교였고 불교는 5%도 채 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였으나 모친이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었다. 불교정화운동도 지지하고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잃은 스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 사찰 주위 2㎞이내에 있는 농지와 문화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한계는 불교 존립을 국가권력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이 구현한 친기독교 정책(크리스마스 공휴일)과 개신교 성장에는 무감각 했다는 것이다.

불교정화 공간(1954~1962); 8년 현대불교의 정체성, 노선; 결정된 시기

1954년 5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은 사찰을 떠나라는 내용의 정화유시를 발표했다. 이 유시에 힘을 얻은 독신비구승들은 1954년 7월 6일 종명을 ‘불교조계종’으로 하는 종헌을 제정하고 새로운 종헌을 채택했다. 그 주된 내용은 종조를 보조 국사로 하고 승단은 비구승단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의 유시와 새로운 종헌은 비구승들이 대처승으로부터 종권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였다. 게다가 비구승들은 이러한 법적 근거 이외에도 두 차례의 전국비구승대회(1954년 8월 24일과 9월 27일)를 개최해 다시 한 번 종단 내적 합법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당화와 세력화를 시도했다.

이후 4.19와 5.16사태 등으로 불교정화운동이 진통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비구승과 대처승이 합의를 보고 1962년 4월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새출발 했다. 정화운동으로 불교는 내분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기독교는 원조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산업화, 민주화 공간

박정희 정권 때부터 불교가 서서히 성장했다. 이 당시 군인들이 정치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농촌출신에 불교신자였다. 불교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1975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군승제도가 도입됐다.

지속적으로 불교와 국가는 우호적 관계를 맺다가 1980년 10월 27일 법난이 일어났다. 군부정권이 정권 유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를 희생양으로 삼고 불교의 문제점이었던 부정부패 등을 척결해 사회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발생했다. 군인들이 법당에 침입해 간첩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많은 스님들을 고문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불교가 각성을 하고 민족불교, 호국불교대신 민중불교를 주창하고 불교와 국가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고민이 생기면서 실천승가회, 민중불교연합 등 수많은 단체들이 등장했다. 1986년 9월 7일 해인사 승려대회가 열려 스님 2000여 명이 모여 지난 5~6년간 불교·국가관계를 개편하고 법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운동이 열렸다. 이 사건이 당시 스님들이 각성하고 현 정권에 눈을 뜨게 한 사건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발단이 1994년 종단개혁을 불러오고 2008년 종교편향 서울시청 범불교도대회를 가져왔다.

최근 조계종이 템플스테이를 2002년부터 시행하면서 불교가 비약적 성장을 했다. 종교와 무관한 일반인, 외국인에게 불교의 친화적 이미지를 심어줬다.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추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종교간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계종단과 기타종단이 국가권력 문제에 맞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불교음악,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시식/예불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7시	이기봉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대령/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7시	*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마일운	30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시	조인각	30
불교의식(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4시	심만춘	*

학 점 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영산재 행위전승 학습	불교의식이론	화	오후 1~4시	30
사물실습	불교의식실기	화	오후 1~7시	30
범패실습 I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30
영산재 의례절차 II	영산과정	금	오후 1~7시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약간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편 입 학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 2013년 1월 14일 ~ 2월 28일
■전 형 료 : 50,000원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최 원 허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02)392-3234, Fax:02)392-3239 홈페이지:www.okchunbud.kr

“봄 오기 전 사찰 흰개미 방제 필요”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방지대책 주문

기후변화로 인해 목조건축물 훼손의 최대 요인인 흰개미의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봄철을 앞두고 사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보존과학과 교수는 2월 14일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 안전관리 토론회에서 흰개미 피해 등 생물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과 사찰을 비롯한 목조건축물의 방제대책을 촉구했다.

목조문화재 훼손의 주요요인인 흰개미는 그 위험성에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식 확인이 이뤄졌다. 정용재 교수가 2009년 흰개미 탐지견과 탐지장비로 전국 사찰과 사적 16개소 231개 동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흰개미 피해를 입은 건물은 33.8%인 78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손상을 입은 곳도 7.8%인 18개 동에 이르렀는데 특히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등 목재로 이뤄진 사찰이 흰개미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용재 교수는 “흰개미는 건물 주변 그루터기에 서식처를 두고 생활하며 4~5월경 새로운 서식처를 찾는다”며 “한국 기후가 따듯해지며 흰개미 활동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방제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인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종무소까지 피해가 있었다”며 “대장경판 등 주요 목재문화재가 피해를 입기 전 본격적인 방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열대와 아열대에 주로 분포하는 흰개미는 그동안 온대인 한국에서

산림 방재 이후 잔재 남아 악영향

사찰 접근 흰개미 징검다리 역할

사찰 잡목 및 배수로 시급히 정비해야

활동이 미미 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아열대로 편입되며 급속도로 그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정 교수는 “흰개미 방제를 위해서는 목조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각 사찰에서는 흰개미의 주요 서식지인 나무 그루터기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사찰이 2008년부터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구축한 산불방재라인으로 인해 흰개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추가 정비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예산과 장비, 인력부족으로 방재라인이 완벽히 구축되지 못해 이로 인해 벌목되고 남은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적재된 상태”라며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그루터기들도 제거되지 않아 흰개미가 목조건축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보통 사찰에서는 장작더미를 건물주변에 쌓아놓는데 이는 흰개미를 유인하는 주요요인”이라며 “사찰 뒤편을 가면 앞면이 건조한데 비해 산비탈을 접한 부분은 대부분이 습하다. 이런 환경 또한 흰개미 서식의 좋은 환경이므로 배수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흰개미 서식의 자가 점검 내역으로 기둥 바닥의 목재부스러기 유무, 천장의 빗물 누수 현상, 주변 그루터기의 서식 등을 들고 마루 구들에 군불을 넣고, 배수시설과 주변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흰개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 경복궁(서울)
2. 종묘(서울)
3. 통도사(경남 양산)
4. 직지사(경북 김천)
5. 풍남문(전북 전주)
6. 불갑사(전남 영광)
7. 능가사(전남 고흥)
8. 송광사(전남 순천)
9. 선암사(전남 순천)
10. 거제현 관아 (경남 거제)
11. 범어사(부산)
12. 용화사(경남 양산)
13. 해인사(경남 합천)
14. 전등사(인천 강화)
15. 하회마을(경북 안동)
16. 봉정사(경북 안동)

국내 흰개미 출현지역의 분포도

아열대 기후변화로 남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 눈에 띈다.

동국대, 올 상반기 ‘불교학 박사’ 9명 배출

불교 주제 석사학위 취득자 14명

올 상반기 동국대에서 9명의 새로운 ‘불교박사’가 탄생했다. 동국대는 2월 12일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보명 스님, 영산재 작법무의 교수법 연구 - 바라무 동작을 중심으로(응용불교전공) △이수덕, 불교수행 과정에 나타난 마장과 대치연구(불교교학전공) △박규리, 경허선시연구(응용선학전공) △장은화, 미국 禪수행, 그 전개와 변용의 연구(선학전공) △강형철, 상키야와 불교의 찰나멸에 관한 대론 연구 - Yuktidipika를 중심으로-(인도철학전공) △손성필, 16,17세기 불교 정책과 불교계의 동향(한국사학전공) △조성금,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미술사학전공)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미술사학전공) △이화수, 한국 사찰벽화의 재료특성과 보존방안 연구(불교미술전공)등 9편이다.

이중 이수덕 박사의 ‘불교수행과정에 나타난 마장과 대치연구’는 불교수행 과정에서 극복 대상인 마장이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다양하게 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수덕 박사는 “초기 아함경에서 마장은 마왕 파순으로 집약돼 나타났지만 점차 번뇌론으로 잔개됐다”며 “대승불교에서 마장은 유식 이론이 강조되며 오개(五蓋)를 비롯한 수행자의 번뇌가 마의 주체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어 “초기불교 이후 인도의 부파, 대승불교, 중국의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마장에 대한 연구와 그 대치방안이 보여주는 것은 불교가 자력수행의 종교로서 내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했기 때

수행과정 마장 극복의 역사 조명

선시 해석 문제 제시 등 눈길

문”이라며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자들의 신행에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허선시연구’를 통해 선시의 형성배경과 그 영향을 고찰한 박규리 박사는 “현재 학계에서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시의 개념 및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도가나 유가적 시선으로 선시를 한시처럼 해석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리 박사는 “선시는 대기설법의 일환으로 ‘오도’가 본질이기에 수사법보다 성취한 경지를 살펴야 한다”며 “문학을 주로 한 선시연구의 활발함에 비해 선학적 관점에서의 선시연구는 뒤떨어진 실정으로 향후 선시연구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교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은 △이복재(철인), 일본 중산의 유식 사분설 연구(불교교학전공) △최화정, 원효전기류에 대한 비교신화학적 연구(불교교학전공) △허지혜, 티벳 금강무에 관한 연구(불교교학전공) △강호진, 신라 의상의 언어관 연구(불교교학전공) △조순애(혜장), 화엄경의 원에 대한 연구(불교교학전공) △최영삼, 대승기신론의 여래장연기설 연구(불교사학전공) △이현숙, 한국의 불교 악기 연구(불교사학전공) △이정환(진광), 박산무이의『참선경어』연구(선학전공)

△김수련, 초기불교에서 자비의 悲(karuna)에 대한 연구(인도불교전공) △조성오(무언), 잘리야 숫따(Jaliyasutta) 연구(인도불교전공) △이현아, 통일신라말기 석조여래좌상 연구(미술사학과) △김은정, 고려나전의 재질과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미술사학전공) △박세진, 통도사 용화전 벽화 연구(미술사학전공) △전유정, 고려전기 안성지역 석조불상 연구(미술사학전공) 등 14편이다.

한편, 동국대 2013년도 상반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41명, 석사 595명, 박사 96명 등 총 2,532명이 학위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2013년도 동국대 불교관련 박사학위 수여자

성 명	논문제목
박민경 (普明)	영산재 작법무의 교수법 연구 -바라무 동작을 중심으로-
이수덕	불교수행 과정에 나타난 魔障과 對治硏究
박규리	鏡虛禪詩硏究
장은화	미국 禪수행, 그 전개와 변용의 연구
강형철	상키야와 불교의 찰나멸에 관한 대론 연구 -Yuktidipika를 중심으로-
손성필	16,17세기 불교 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조성금	天山 위구르王國의 佛敎繪畵 연구
진정환	高麗前期 佛敎石造美術 硏究
이화수	한국 사찰벽화의 재료특성과 보존방안 연구

“문화재 조사서 보존 체제로 전환할 것”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사찰문화재일제조사, 전국폐사지 조사 등을 통해 국내 최대 불교문화재 데이터를 확보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바탕하에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2013년을 불교문화유산 초석의 해로 정하고 문화재 조사 중심 체제에서 문화재 보존과 정비, 활용으로 체제를 전환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먼저 불교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정보 활용의 틀을 구축한다.

각림 스님은 “불교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은 2700여개 사찰의 문화재와 5400여개 폐사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정보인프라”라며 “불교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축적해 온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와 폐사지 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아카이브로 구축돼 유관기관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사찰별 문화재 정보와 역사 사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된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폐사지 보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지보존 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또 보존 정비 분야에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현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 중인 ‘사찰문화재 일제조사’(200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와 ‘전국 사지 조사’(2010년부터 2015년까지) 등 중장기 사업 또한 지속 진행된다.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는 2013년 전국 사찰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11년간의 일제조사를 갈무리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전국 사찰 소장 경판 조사사업이 실시된다.

2400사찰, 5400사지 정보 제공

유관기관과 아카이브 형성

또 사지조사사업은 2013년 울산,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 사찰에서 실시된다. 특히 2013년에는 비지정소재문화재가 있는 사지, 훼손 우려가 있는 사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된다.

각림 스님은 “사지조사로 상대적으로 알려려 있지 않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모아질 예정”이라며 “북한에 있는 불교문화재 현황 파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각림 스님은 “불교문화 유산을 콘텐츠화 시키기는 것은 불교 세계화와 고급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재연구소 경판 조사 장면.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다시 수면위로

지리산 댐은 국토부 강행에 관련예산 전액 삭감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 · 시민단체가 반대해 무산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월 4일 함양군과 산청군에서 열린 도 · 군정 현안보고회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 함양과 산청이 서로 싸우면 어느 한 곳도 유치에 성공할 수 없다"며 "경남도가 적극 조정 · 중재에 나설 것이다"고 선언했다. 경남도 차원에서 추진 방침을 밝힌 것.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경남 산청군이 중산리관광지~장터목 인근간 5.2㎞, 함양군이 백무동~망바위간 3.4㎞,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온천지구~노고단 하단부간 4.3 ㎞, 전북 남원시가 반선지구~중봉간 6.6㎞에 각각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는 2012년 6월 산청, 함양, 구례, 남원군의 잇따른 신청에 환경부가 환경 악화를 들어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설치장소를 단일화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후 4개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유치전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도지사의 단일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지리산공동행동준비위원회와 종교 ·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 등은 지리산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지리산은 역사의 보고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라며 "자연공원

홍준표 지사 "적극 중재로 유치"

종교환경단체 "돈벌이용" 반대

국토부 "지리산댐도 짓겠다"



지리산댐 3D 조감도. 종교환경단체들은 용유담, 실상사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까지 개악하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리산을 '돈벌이용 철탑공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퇴행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지리산댐(함양 문정댐) 건설 방침을 밝혀 지역 주민과 종교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국토부는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년)'을 통해 함양 임천에 문정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댐은 저수용량 1억 7000만t으로 투입예산은 1조 원에 달한다.

이 댐이 건설되면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예고 후 보류 상태인 함양 용유담이 수몰되며 실상사 등도 피해를 입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시 용수수급 전망을 비롯해 수자원 필요량 산정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와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예산 확보시 댐 건설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길 없는 길' 다시 연다

수덕사 4월 16~18일 국제禪수행대회 개최

경허선사 열반100주기를 기념해 열린 국제선수행대회 '길 없는 길(The Pathless Path)' 2차대회가 4월 16~18일 개최된다.

한국선불교 법맥을 잇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비롯해 출재가자의 무차대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선수행대회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특별법문과 함께 수불 스님, 대봉 스님, 대진 스님, 청안 스님 등이 선수행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6일 만공 스님 탄신다례를 시작으로 황하루에서 설정 스님의 법문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저녁예불 이후 경허선사 추모음악회가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수불 스님의 법문에 이어 자유철야정진이 진행된다.

17일에는 경허 선사의 수행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행사가 가야사터를 시작해



백제의 미소길, 서산마애불, 보원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원사 터에서는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의 법문이 진행되며 간월암 참배 이후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 법문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익산시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합동훈련

익산시는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중요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합동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익산시는 2월 14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익산소방서와 합동으로 보물 825호 숭림사 보광전 지붕 및 주변 야산에 낙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조치 및 신고접수, 초기진압활동, 인명구조활동, 중요문화재 반출, 산림연소 방어순으로 시범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또 익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숭림사, 석불사, 나바위성당의 소방 · 전기 · 가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경비인력 및 관리자에게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등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수인원으로 관내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고도 익산의 문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엔 불교가 없다?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불교콘텐츠 배제

광주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불교콘텐츠가 없어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00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전체 5조 2900억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되며 광주시내에 6개의 권역을 설정해 각종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하지만 아시아 문화교류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 아시아 문화의 기반을 제공한 불교는 제외돼 있다.

광주시는 201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할 총 50개 사업(2275억원 규모)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8건, 기 승인사업 9건, 계속사업 23건 등이다.

이중 2014년 추진할 신규사업은 아시아 도작 역사문화공원 조성, 아시아 미디어스퀘어 조성, 산업단지 아트팩토리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분야 10건과 아시아예술품거래센터 건립, 아시아광고문화축전 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분야 5건,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강화 분야 3건 등 총 18건이다.

이중 불교관련 콘텐츠는 전무한 상황.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시범사업에도 불교콘텐츠는 전무했다.

특히 광주 양림동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교류권역 사업에 근대 기독교의 선교지과 교회들이 포함된 상대적인 소외감은 더하다.

문제는 불교계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회장이 공석 중인 광주불교계의 대표단체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수 년째 큰 부침을 겪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불교계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콘텐츠 배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전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는 광주불교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6개 본사와 각 사찰들이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신규사업들이 추가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불교콘텐츠를 추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빈정사, 고문헌 자료 디지털화 협약식

"근대불교에 사셨던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호남지역 근대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일반인들에게 전해진다.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2월 7일 전남대 도서관(관장 마재숙 의학과 교수)과 '고문헌 자료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빈정사에 소장되어 있던 고문헌 163책의 목록과 원문을 디지털화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고문헌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빈정사의 고문헌은 남도 불교 최고 강백이었던 석산 스님(1901~1985, 전 범어사 강주)이 수집을 시작한 이후 지선 스님(백양사 수좌)이 보강해 간직해온 문헌들로, 호남지역의 불교문화를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불교의식집인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 등은 1400년대와 1500년대에 호남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경 서적들로 국내에 몇 권 남지 않은 희귀본이다.



법선 스님은 "호남불교를 연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연구가 되는 자료들은 광주에는 없는 근대불교의 자료로 당시 서책을 만든 많은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느껴지고, 서지학과 서체학의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 유물로 지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잘 보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담당할 마재숙 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문빈정사의 불교전적 및 기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것은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호남지역 불교연구 및 한국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는 1959년 창건된 이후 불교교육과 실천적 불교 운동에 참여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등 사회개혁운동을 실천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의 '불교 힐링아카데미'가 뜬다

자비신행회, 불교 힐링아카데미 개설

광주의 대표적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오는 4월 3일~6월 26일까지 전체 13강에 걸쳐 '멘토들과 함께 떠나는 힐링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강사에는 △현장 스님(대원사 회주), 티벳불교에서 배우는 내적치유의 힘 △목우 스님(선암사 강주),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삶의 끝자락에서 배우는 삶의 시작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더불어 나누는 힘 자비! 그 안에 담긴 힐링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마음이란 무엇인가 △해강 스님(실상사 주지), 선재동자의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부장), 어느 누가 아프지 않으랴 △연광 스님(증심사 주지), 행복을 꿈꾸는 종교, 행복을 꿈꾸는 그대 △혜광 스님(정토사 주지), 聞思修!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삶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참사람운동을 통해 만난 힐링 △무문 스님(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행복을 위한 디딤돌, 계율과 자기치유 △범능 스님(불지사 주지), 범능 스님의 노래이야기, △붓다락키따 스님(보리수선원장), 내 생에 단 한번뿐인 오늘 등이 참여한다. 강연은 100분간의 힐링강연과 강사와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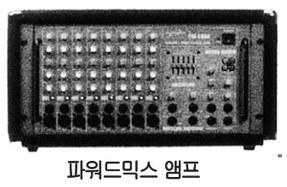
행사를 주최한 임영광 자비신행회 화엄학림 학장은 "이번 힐링 여행은 마음의 치유와 평화, 더불어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경신대도 빛으로 생명을 연장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는 수육보영
진법으로 천안 도안 심안 영안 혜안을 열어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 득도하는 천하 제일의 계사년 대운맞이 천안통 대법회

육경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벗기는 생명과 운명을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루진통을 열어 상통천문 하달지리 근본 진광 진법으로 모든 생명은 빛에서 왔기에 경신일은 하늘이 응하고 지구가 답하며 마음을 빛으로 열어 몸에 빙의된 귀신 잡신 일체 영가들 까지도 자시와 오시에 모든 죄업과 번뇌마장까지도 진광의 빛으로 쓸어버려 생명을 연장하고 성불득도는 물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장애없이 성장 발전 승리하는 지구촌 최상의 기도인 것이고 운명을 연장 100세에 도전하며,

이제는 방편불교가 끝나 말년 말법을 지키는 하일드 말잘쓰 미륵달마 도법으로 자성이 들어 다니는 문을 보아 성불 득도하는 금강진법 사구계로 10년을 염불, 목탁, 참선, 만경, 글과 문자 수행한 공덕보다도 한 번의 경신수행으로 천안통을 얻어 성불득도하는 천하제일의 수행인 것이며 도는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를 깨닫는 것이 각이자 선이고 도통인 것이다. 고로 수행 마장은 자기조상 해탈 못한 영가가 마음속에 제일 큰 도둑으로 조종하고 강도 중에 제일 큰 강도는 세월인 것을 경신일에 일체 마장을 몰아내어 병 없는 건강 운명 천지공사를 빛으로 몰아내어 큰대업과 명예 출세 통치 경영 종교 예술 정치 경제등 큰 뜻이 있거나 성불 득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성현이 되는 빛으로 화현하며 종교종파를 초월하는 무량수 시대에 360세와 100세에 경신 빛으로 도전 천하를 다스리는 도황 열쇠를 얻어 평생 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지구촌 최대의 일류스승되는 것이고 몸에 붙은 천신 만신 빙의신은 한방 양방 병원에서 잡지 못하는 것을 경신도법만이 자기 대에서 부리고 자손으로 안가는 해원상생법이고 모태 유산 일체 청춘 몽달 조상영가들과 결혼, 직장, 질병, 술병, 노름으로 탕진하는 정신병 육신병 귀신병을 소멸하는 육경신 대법회로 앞서가는 스승되소서. 나무아미타불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풍수지리 진법 제왕 금시발복 한국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양반은 씨가 있어도 제왕이 되는 성불득도는 씨가 없는 천하 명당터
정가 30만원(종사자나 인연자는 50% 할인)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시부터 2시간 특별 운명천지공사 강의
■기도입제 :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밤해시
■기도해제 :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밤해시

■육경신 기도비 150만원(침식제공) 6회 분할가능
■준비물 간편한 옷 세면도구 필기도구 선착순 접수

농협 029-01-167866 곽 한영(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태일대사 . 010-7228-8567 일진스님
웅조미륵달마 육경신도통회 총본산 생명과 운명을 연장
삼탑산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진 불 선 원 태양의 집

韓中 불자 청년 수행으로 '하나'

부산 보리선수, 2013 한 · 중 국제청년법회 개최



부산보리선수에서 개최된 '2013년 국제 청년 법회'에서 한국 B-boy들에게 중국 청년들이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부산 보리선수(주지 법생)는 설을 맞아 한 · 중 청년 교류를 위한 '2013 국제청년법회'를 개최했다. 2013년 2월 6일~2월 12일 부산 해운대 보리선수 법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 · 중 청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 단체토론, 설날 파티, 가면무도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부산 보리선수 주지 법생 스님은 "이번 국제 청년법회는 한 · 중 청년들이 함께하는 첫 행사여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다. 청년들의 국제 교류는 물론 불법을 익혀 자비와 관용의 힘을 길러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오체투지와 대광명 수행 체험

'리더십 훈련'도 호응 높아

7일간 열린 국제청년법회는 수행과 리더십교육 그리고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 등으로 구성됐다. 그 중 가장 핵심프로그램이 바로 수행이다. 참가자들은 오체투지와 대광명 수행법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과 지혜를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티베트 불교의 색채가 묻어나는 음악속에 진행돼 참가자들의 흥미를 고취시켰다. 수행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였지만 수행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여느 수행자들 못지않게 진지했다. 특히, 대광명 수행법은 음악에 맞춰 고요히 몸을 움직이는 명상수련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보리선수에서 개발한 현대적 수행법이다.

리더십훈련 역시 학생들에게 호응이 컸다. 10명이 한 팀을 구성 팀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소통과 강연능력을 배양하고, 조직계획능력, 창조능력, 단체협조능력 등 사회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교육들로 진행됐다. 참가자 김하영 씨는 "팀별 토론과 스피치에 임하는 중국 청년들의 태도가 너무도 진지해 큰 감명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역시 청년법회에 빠질 수 없는 행사는 축제다. 설날파티와 가장무도회는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여는 행사였다. 팀별로 준비한 즉석 만담, 단막극, 악기연주, 노래와 춤은 소통이 되지 않는 한 · 중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중국 교포 김희진 씨는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설날 축제는 중국 중앙 방송국 특집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다. 참가한 젊은이들은 정말 재주가 많아요. 한국B-boy팀의 초청공연과 가장무도회 시간은 제게 잊지 못할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불법의 자비로운 빛이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을 여기에 모이게 한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故 강석진 회장에 박사학위 추서

동명대에서 수여식 진행

일반종합대학으로서는 처음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한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는 2월 15일 학위수여식에서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이자 옛 부산의 세계적 향토기업 동명목재 故 강석진 회장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故 강석진 회장은 부산의 대표적 재가 신행단체인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신심깊은 불자였다. 그는 우리나라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시대 국가 수출과 근대화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단일 업종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의 동명목재를 경영해 국가 위상을 높였고, 1967년부터 1974까지 8년간 대한민국 납세왕, 1968년에서 1971년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수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명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 장면. 설동근 총장이 故강석진 회장의 손자 강경도 씨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BBS회관을 건립, BBS운동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큰 나눔을 일평생 실천했고, 1977년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을 설립, 동원공업전문대학(현 동명대학교)를 개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은해사, 템플스테이교육관 상량식

조계종제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는 2월 12일 템플스테이교육관 대법륜전 상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각원 법타 스님, 조실 혜인 스님, 중앙박물관장 원학 스님, 돈명 스님, 돈관 스님 외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은해사 대법륜전은 연면적 1513평이며, 건축 총면적은 655평(1층 390평,2층 265평)으로 1층에는 방, VIP 방, 휴게실, 강의실, 사무실, 방송실, 화장실, 샤워실, 다용도실로 구성됐다. 2층은 설법전으로 1천여 명이 동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천 은해사 템플스테이교육관 상량식 장면

각종 시설은 180여명이 동시 수용해 템플스테이 및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성철스님 특별전 이색후기공모전

2월 20일까지 응모 마감

가야산 호랑이,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이 부산에서 한창이다. 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 주최 측인 부산시민회관과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산불교방송이 이색적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관람후기를 공모하여 총 123명에게 비행기 탑승권, 모발시술권, 공연관람권,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한정판 테디베어 인형 등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 관람후기 공모마감은 2월 20일까지이며 부산시민회관과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에 2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전시가 한창인 부산시민회관 한 슬갤러리 현장에서는 전시도록(5천원) 판매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5권 동시구매자에게는 소형 테디베어를, 10권 동시구매자에게는 중형 테디베어를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 도록수익금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빈한 삶과 서릿발 같은 수행으로 불교계와 대중들의 가슴에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의 유품과 사진, 영상물 등 총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다. (051)630-5200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물은 자연 그대로 흐르게 하자

일본의 이름 있는 고찰에 가면 일본 고유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을 볼 수가 있다. 일본정원은 못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야리미즈(遣水)라고 하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만들어서 멀리 있는 물을 못으로 끌어온다. 바로 이 야리미즈 때문에 일본사찰에서는 항상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사찰은 경역 내에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사찰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류가 있고, 사찰내부에도 작은 수로가 흐르는 경우가 많아 굳이 물길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연수로에 손을 대왔다. 사찰에서도 치수와 이수를 위해 사찰 내 · 외부의 물길에 손을 대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찰에서의 치수는 홍수피해가 없도록 계류주변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석축을 하는 것이었고, 이수는 계류에 있던 돌로 보를 쌓아 확보한 적은 양의 물을 이용하는 정도였지 물길의 구조를 달리하거나 수로단면을 변경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사찰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길을 아예 없애거나 물길을 바꾸어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를 여러 사찰에서 볼 수가 있다. 또한 물길을 바꾸지는 않지만 흐름이 오래되어 아름답기 그지없었던 수로에 콘크리트를 바르거나 발파석을 얼기설기 쌓아 현상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사찰에서는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어 자연을 도입하고 사시사철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불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천연적으로 형성된 물길까지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찰은 단순히 불교적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적 기능만을 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가진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찰이 가진 자연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물길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는 한번 훼손될 경우 다시는 원상을 회복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태적 복원능력이라는 것이 항상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자연수로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사찰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경기도 ㅎ사찰

공부하다 죽어라

혜암스님의 벼락같은 화두 정찬주 지음

성철스님 이야기 『자기를 속이지 말라』 법정스님 이야기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에 이어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암자를 따라가며 써내려간 이야기가 담긴 또 하나의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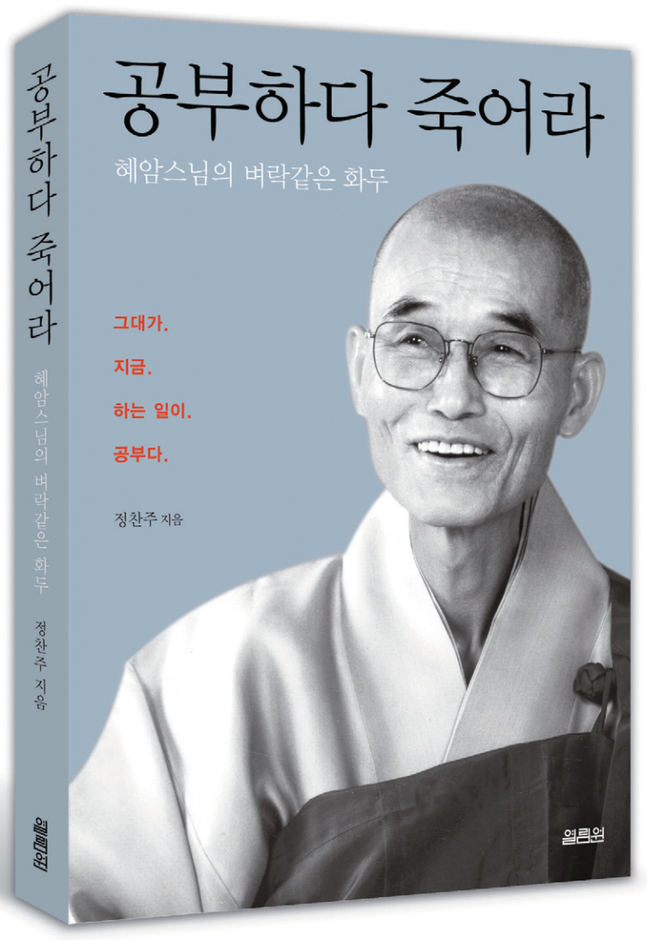
학생은 무아를 느낄 때까지 즐겁게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조직 속에서 무아를 경험할 만큼 나를 비워야 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역시 나를 버리는 무아 상태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

늙은 쥐가 쌀궤를 한 구멍만 뚫듯 해야 합니다. 미련한 쥐나 어린 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쌀궤를 뚫을 적에 이짝에 뚫었다 저짝에 뚫었다 하는데 늙은 쥐는 쌀궤를 많이 뚫어봤기 때문에 쌀이 나오든 말든 죽어라고 한 구멍만 뚫습니다. 화두 공부도 늙은 쥐가 쌀궤 뚫듯이 해야 도가 깨달아집니다. —혜암스님 어록 중에서

혜암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효봉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릿발같이 독려하던 스님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뿐이었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부터 방바닥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평생 동안 지켰다.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성철스님 이후에는 종단개혁에 앞장섰다. 해인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으며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신간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다.



www.Yolimwon.com 구입문의 (02)3144-3700 열림원

관음보살이 중생을 기다리며 열어놓은 '문'

③ 해수관음도량…강화 보문사(普門寺)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강화도 옆 석모도. 섬에서 다시 '섬'이라고 부르는 그 곳을 오늘은 '산'이라 부른다. 낙가산(洛迦山). 그 이름은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보타락가산에서 왔다. 그곳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도량 보문사가 있다. 남해 보리암, 동해 양양 낙산사와 함께 3대 해수관음도량이다.

보문사에 가면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보타락가산의 '낙가산'은 바다 가운데 솟은 산을 말한다. 보문사가 있는 석모도는 작은 섬이다. 앞서 말한 대로 '낙가산'이다. 도량을 열었던 회정 스님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계신 곳을 찾은 것이다.

그 낙가산이 시작되는 곳에 문 하나가 열려 있다. '보문(普門)', 관세음보살이 열어 놓은 문이니 극락으로 가는 문이 틀림없다. 보문사는 관세음보살이 늘 중생을 기다리며 열어놓은 '문'이다. 문을 지나 가파른 길을 오르면 33관음보살사리탑과 오백나한이 힘들었던 여정을 위로한다. 숨을 돌리고 눈을 고쳐 뜨면 와불을 모신 와불전, 나한전 석실,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 넉넉한 마당이 낙가산 기슭을 장엄하고 있다.

보문사의 백미는 눈썹바위 아래 모신 마애관음좌상이다. 서쪽 바다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마애관음좌상을 보기 위해선 1km 정도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계단이 재미있다. 처음 12계단을 올라가면 좌우에 석등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서 다시 108계단을 올라간 곳에 '관음성전계단불사공덕비'가 있다. 다시 108계단을 오르면 한 쌍의 석등이 있고, 다시 118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면 반야용선이 있다. 거기서 48계단을 더 올라가면 마애관음좌상을 만날 수 있다. 어찌 이토록 기막힌 자리일까. 하늘과 바다와 땅이 모두 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자리에 관음보살이 나투고 있다. 저 멀리 사바를 살피고 있는 관음보살 앞에 서면 비로소 내가 어디에 와있는지 알게 된다.

마애관음좌상은 1928년 배선주 주지 스님이 보문사가 관음성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금강산 표훈사의 이화응 스님과 함께한 불사로, 좌상의 높이는 920cm이고, 너비는 330cm에 달하는 거상이다. 크기를 척수로 환산하면 높이 32척에 너비가 11척이 되는데, 이것은 곧 관음보살의 32응신(應身)과 11면(面)을 상징한다. 마애관음좌상의 백미는 일출과 낙조다. 일출을 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낙조는 그 보다 기회가 많다. 마애관음상은 신강화팔경 중의 하나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에 회정 대사가 열었다. 여러 창건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창건설이다. 금강산 보덕굴에서 수행하고 있던 회정 스님이 이곳으로 옮겨와 절을 세우고 보니 산세가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서천 사자국의 보타락가산과 흡사했다. 산 이름을 낙가산이라 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없이 나투시는 관세음보살 원력의 광대무변함을 의미하는 '보문'을 도량의 이름으로 썼다.

보문사를 알기 위해서는 강화도의 역사를 지나칠 수 없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지나간 곳이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고, 불교가 전해지던 삼국시대의 많은 불교설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불교가 전해진 곳이다. 381년에 아도 화상이 연 것으로 전해지는 전등사가 그렇고, 보문사가 그렇다.

조선시대에 들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거치면서 강화도에 위치한 사찰들은 왕실 관계 문적들을 보관하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강화도 사찰의 국가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 불교는 활력을 얻는다. 즉 강화의 많은 사찰들의 중건 및 중수불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진다. 19세기에 들어서도 강화의 여러 절에서는 중창불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보문사도 1812년 중창불사가 이뤄졌다. 퇴락한 보문사를 중창하기로 발원한 한 스님이 선비 홍봉장이 쓴 권선문을 가지고 가람을 일신했다. 1967년에는 나한전 불사가 있었고, 1839년 명성황후의 전교로 보문사의 요사와 객실을 중건하는 등 신라 이후 관음도량으로서의 명성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른다.

보문사에 가려면

보문사는 강화군 서부에 위치한 석모도란 섬에 있다. 석모도는 강화군의 주도인 강화도에 인접한 작은 섬이다. 우선 강화도까지 가야한다. 김포시와 강화군을 잇는 강화대교를 이용해 강화도에 도착하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석포리행 배를 타야한다. 승용차와 함께 승선할 수 있다. 보문사 가는 맛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배를 타고 가는 것. 비록 짧은 거리지만 뱃길을 가야 한다는 게 왠지 '쉽지 않은 길'이어서 좋다. 도량에 가는 맛은 이 '쉽지 않은 길'에 있다. 도량을 찾은 보람이 배가된다.

따라오는 갈매기들과 눈을 맞추며 7~8분 쯤 배를 타면 석모도 석포리 선착장에 도착한다. 가져간 승용차를 이용해 바로 보문사로 향하면 되고,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보문사행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보문사까지는 약 9km인데, 3km 쯤의 전득이 고개를 넘으면 뱃길에서 본 바다의 잔상끝에 바닥을 드러낸 서해 특유의 풍경과 시간이 멈춰선 듯한 전원 풍경이 이어진다. 석모도의 풍경 속을 10 여분 달리면 보문사 입구다. 주차장에 차를 놓고 5분 정도 걸으면 도량이다.

보문사의 인물

• **창건주 회정 스님**…창건주인 스님의 기록은 아쉽게도 각종 사서류나 불교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창건설 외에 스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 **한국 근대불교의 고승 박한영(1870~1948) 스님**…스님은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에 강하게 맞서 싸운 불교 운동가였으며,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교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불교 교육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백용성 · 한용운 스님과 함께 일제강점기에서 한국불교를 지켜낸 3대 선각자로 평가받고 있다.

• **현대의 고승 춘성(1981~1977) 선사**…스님은 한국 선종의 맥을 이은 선승으로서, 한평생 탈속 무애도인(無碍道人)으로서 무소유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근대의 대표적 고승 가운데 한 분이다. 특히 스님은 1960년대 후반 보문사 회주로 주석하면서 절의 사격을 높였다.

• **근대 보문사의 중창주 홍봉장 · 홍희준**…앞서 말했듯 보문사의 중창에는 강화의 선비 홍봉장이 쓴 〈보문사권선문〉이 큰 역할을 했으므로 비록 홍봉장 자신이 재물을 내어 불사를 이룬 것은 아닐지라도 그를 중창주로 대우함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1906년에는 그의 손자인 홍희준이 할아버지의 〈보문사권선문〉에 이어 〈보문사후록〉을 썼다.

강화 보문사=박재완 기자



보문사의 백미는 눈썹바위 아래 모신 마애관음좌상이다. 서쪽 바다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마애관음좌상을 보기 위해선 1km 정도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한다.



마애관음좌상에서 내려다본 보문사와 석모도 갯벌



보문사 전경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석모도 자연휴양림

주변보기

〈사찰〉

석모도 안의 절은 보문사 하나다. 인접해 있는 강화도의 절들을 소개한다.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외포리 에서 약 25km)
▲**정수사** 화도면 사기리 464-3(전등사에서 약 10km)
▲**적석사**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74(외포리에서 약 15km)
▲**백련사**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적석사에서 약 10km)
▲**청련사**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550(백련사에서 약 5km)

〈가볼 만한 곳〉

• **석모도 갯벌**

석모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곳이다. 가족이 함께 해산물 채취 등을 하면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 **석모도 자연휴양림(032-932-1100)**

울창한 숲과 다양한 자생식물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 석모도 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자연학습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민머루 해수욕장**

배에서 내려 보문사 방향으로 전득이고개를 지나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대학생들의 학술탐사와 역시 가족단위 생태교육장으로도 이용된다. 천연기념물(419호) 저어새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 **마니산**–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산으로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다.

• **강화성**–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3번지 / 고종 때 강화도로 천도하며 쌓은 성이다.

〈묵을 곳, 먹을 곳〉

▲묵을 곳
석모도자연휴양림(032-932-1100)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1(보문사에서 약 5km)
투윈스 펜션(032-932-3356), 위딜 펜션(032-932-8870)
벨에어 펜션(032-933-8161)

▲먹을 곳
통나무 식당(032-932-3261), 감나무골(032-932-4384)
돌캐(032-932-3221), 보문사 입구 식당촌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불교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4.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_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1년 또는 2년 과정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본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학 과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2. 12. 24(월) ~2013. 2. 18(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3. 2. 18(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3. 2. 19(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3. 2. 19(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의 필기_실기_면접고사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 · 불교회화를 수학하고자 하는 자
3.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 · 불교회화를 수학하고자 하는 자

※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Ⅵ. 전형료

1.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본 종단의 포교사자격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과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사행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 FAX:(02)744-3461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기행, 착한관광은 무엇일까

여행지역 사람들 삶 살피는게 생태기행



한살림〈사진 왼쪽〉과 제주참여연대〈사진 오른쪽〉에서 진행한 생태기행. 생태적 기행은 결국 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과 애환, 고통에 귀기울리는 것이다.

여행은 자유를 의미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 광고의 카피문구다. 떠난다는 것은 곧 업무와 인간 관계로 얽혀있는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미지의 새로운 것과 접촉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10여전 유흥준 교수의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답사여행 붐을 조성한 적이 있었다. 이후 많은 문화기행단체들이 생겨서 인원을 모집해 답사기행을 떠나는 활동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행과 기행에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다. 아주 오래전, 계곡이나 유원지는 술먹고 춤추는 소비적 여행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노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그후 여행이 문화답사라는 학습 형태로 붐을 이루다가 최근에는 '걷기여행'이 유행이다. 제주도 올레길 부터 지리산과 북한산 둘레길, 고양시의 가을길, 남양주시 다산길, 강화 나들길 등등. 이 '걷기바람'으로 인해 지방자치체마다 '길 만들기 사업'을 벌여 관광명소로 만들고 싶어한다.

걷기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순례고, 수행이기도 하다. 이미 도법 스님이 5년간 전국을 걸으며 생명평화 순례를 했고, 수경 스님이 4대강 유역을 역시 걸었다. 한편 훨씬 이전부터 원공 스님 같은 분은 34년간 일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전국을 걸어다녔다. 이미 많은 스님들에겐 만행의 경험도 축적되어 있어 걷기에 관한한 불교에 더 많은 경험과 내력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관광과 여행은 결국 그 지역 자연을 오염시키고 사람과 토착문화를 파괴한다. 과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여행과 기행은 무엇일까?

관광, 여행, 기행, 답사, 순례의 차이

관광과 여행, 기행, 답사, 순례 등의 용어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 '관광'은 본래 '나라나 지역의 빛을 본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경치를 구경하고 휴가와 여흥을 위해 풍광을 둘러보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위해 지방이나 외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통칭의 포괄적 언어로 사용한다다. 그러나 '기행'은 자기만의 즐거움과 여흥을 추구하는 관광과는 의미가 다르다. 기행은 방문한 지역을 배우려하고 보고 느끼려는 학습 여행이다. 여기에 '답사'는 더 적극적으로 지역과 사람을 배우려는 학습적 의지를 분명히 한 여행이고, '순례'는 장소가 갖는 역사성을 되새기면서 사람과 지역의 성스러움을 느끼며 숭앙하는 수행이자 의식으로서의 여행이다.

관광으로 표현되는 여행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적이며 향락적이다. 또한 관광지가 대체로 자기를 모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 퇴폐적인 문화가 번창하게 되게 되고 지역의 타락한 문화를 전염시키는 곳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행은 다르다. 자연을 느끼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지역 문화에 대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기행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물품을 판매하고 호텔이나 기타 시설을 활용하게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 중심적인 관광은, 자연이 훼손되건 지역문화가 파괴되건 아랑곳하지 않고 산천을 휩쓸고 지나가는 메뚜기때처럼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파괴시킨다.

그래서 관광지는 유흥지가 되고 쓰레기가 넘치며 지역의 전통문화가 상업회되고 오염된다. 더욱이 많은 물건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은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해외여행은 어떨까? 한때 우리나라는 인도여행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 이제 그 열풍이 중동방문열풍으로, 또 사막과 아프리카로 그 유행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약 10~15년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본인들이 지나간 여행 코스와 스타일을 한국인들이 따라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중국인들이 이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 지나가면서 문화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여행은 상업화되었다. 지방이든 국가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 부흥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업적 관광은 산도 강도 바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넘쳐나는 쓰레기및 오염으로 고통 받게 된다.

생태기행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이 좋은 기행일까. 생태적 여행이란 무엇일까? 생태기행은 자신의 여행이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나아가 여행을 통해 지역을 배우고 사람을 느끼며, 역사를 인식하는 학습 여행이다. 따라서 가능한 자가용 이용보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권장하고, 도보로 두리번 거리면서 게으르게 걷기를 권장한다. 자동차가 느끼는 자연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다. 그러나 걷게 되면 풍광 하나하나와 새록새록 다가와 깊이 사색 하고 그들과 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깊숲에 풀꽃을 허리 조아리며 깊이 자세히 들여다볼수 있게 된다.

관광여행은 자기중심적, 소비적 패턴
좋은기행은 자연과 역사와 하나 되는 것
지역가면 경로당서 노인들 부터 만나자
쓰레기 및 지역 관광객 최소화도 중요

그리하여 걸으면 다가오는 새로운 장면이나 상황을 마음을 열고 담담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산행은 올라가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산행의 목표는 산을 오르는 행위 그 자체이지 정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행도 목적지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보다 준비하고 걸어가는 과정 자체도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가능한 고속도로보다 국도로, 국도보다는 시골의 작은 도로를 이용할 일이다. 둘레길이나 올레길도 걸으려면 몇시간에 주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목표에 연연해 하지 않는 여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 자연에 관심 갖고 충분한 사전 학습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돌과 나무가 단순히 보이지 않고 숫한 역사적 두께와 사연을 간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보다 깊은 감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생태적 기행은 결국 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과 애환, 고통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면 그곳의 경로당을 먼저 찾아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박물관을 가보길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그렇게 해야 그 마을과 고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연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지역민들의 문화에 부정적인 충격이나 영향을 주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옷차림도 안될 것이다.

여행자는 절대 과도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거나 자연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나아가 지역의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가져오도록 하며 일회용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적은 인원일 경우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충격이 적지만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곳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지역의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의 숙박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과 벌레와 짐승 등 자연을 놀라게 하는 마이크나 고성방가는 감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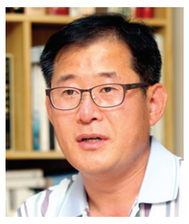
해외여행도 공정여행과 착한여행으로

인도나 네팔 라오스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를 방문할 때 한국인들은 현지인에 대한 오만한 태도로 지탄 받거나, 눈살 찌푸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었다. 더욱이 성매매를 위한 관광이나 엽기적 보신관광 문화는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돈을 극도로 아끼려는 배낭여행객들은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여행자는 언제나 현지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여행도 학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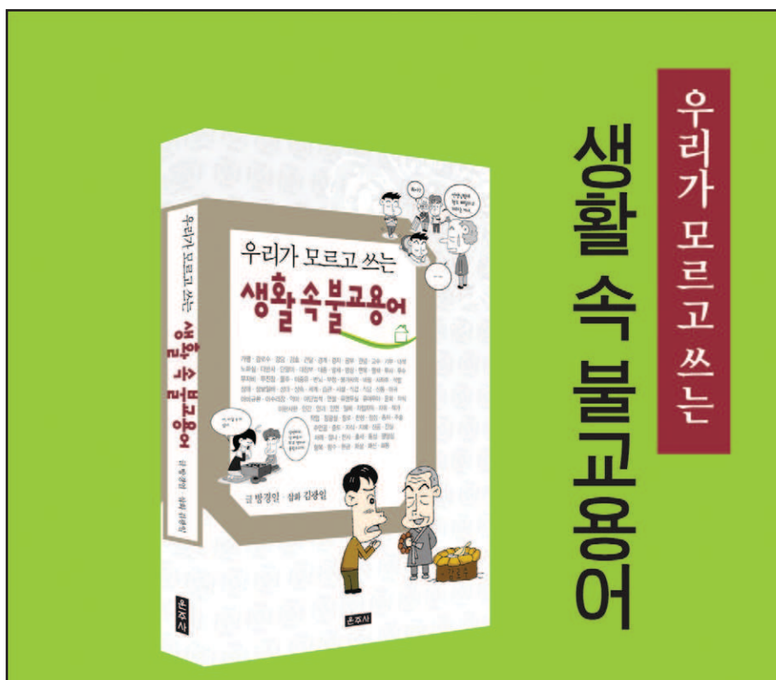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순대나 번데기를 먹거나 오징어를 굽는 냄새에는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많다. 이처럼 여행을 통해 나라마다 문화적 특징들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하게 된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러한 음식문화를 비난해서는 안되듯이, 우리도 또한 다른 동남아의 전통문화와 음식문화에 대해 "더럽다. 징그럽다. 흉측하다"라는 말이나 표현을 해서도 안된다.

해외여행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켜보되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같이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곳은 우리와 같은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들의 삶이 우리와 전혀 달라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다를 뿐,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행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자연을 더욱 거룩하게 여기고, 만나는 한사람 한사람을 부처로 보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문화를 가슴으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세, 곧 순례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값10,000원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신세대 장병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어떻게 군생활을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
군법사인 저자가 강원도 산골의 병영에서 전하는
병사들의 일상과 군생활의 지혜!

병사와 풍경소리





보경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56쪽/값 10,000원

젊은 장병들의 애환과 고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보람과 희망 찾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젊은 청춘들의 훈훈한 이야기들!

전문가와 일반 불자들을 아우르는
알기 쉬운 해설!

대승기신론의 세계



계환 지음/신국판양장/388쪽/값 17,000원

깨달음도 미혹도 중생심 안에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입문서이자 개론서,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이라면 누구나 『대승기신론』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안목 확 트여 비구·비구니·재가자 같이 공부시켜



方山老의 無影樹 〈4〉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범룡 스님

※본 내용은 범룡 스님 입적(2005) 전, 2002년의 대담이다.



범룡 스님
봉암사 · 동화사 비로암 조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등 역임

-스님께서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하여, 1937년 강원도 3본산 승려 연합수련소에 입소하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로 오셔서 처음 탄허 스님을 만나셨다는데 그 당시 탄허 스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탄허 스님은 선원 대중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3본산 승려 연합수련소의 수련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저녁때가 되면 한암 스님께 올라가 원문에 토(吐)를 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배운 뒤 이튿날 우리에게 쭉 읽어 주었지요. 그리고 대중들이 듣다가 의심이 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암 스님이 직접 대답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탄허 스님이 풀어서 읽어 주면 대중들은 그것을 듣고, 대중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면 한암 스님이 대답해 주는 방식이었지요. 그때는 책이 귀한 시절이라 목판본 책을 몇 질 구해다가 5, 6명이 빙 둘러앉아서 보았는데 우리는 한문이 서툴러서 강의를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법문은 꼭 듣고 싶었지요. 내용을 잘 모른다 해도 자꾸 듣다보면 가끔씩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수련소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암 스님도 같이 공부하셨던것으로 아는데 도반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유점사 · 건봉사 · 월정사에서 열 명씩 왔으니 대략 서른 명 가량은 되었지요. 고암 스님, 영암 스님, 백양사의 서옹 스님 같은 분들은 우리들보다 위였지요. 그 분들은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화엄경〉과 이통현의 .〈화엄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이 없어서 .〈화엄경〉을 구하기 위해 북경과 남경에 연락해서 겨우 10질을 구했지요.

-그러면 한암 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이 한문도 잘 하고, 또 중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듣기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은 현토(懸吐) 하는 방법을 두고 하루 종일 논란하신 적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 때도 있었지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암 스님은 탄허 스님을 하나 길러낸 셈이지요.

-그때 탄허 스님께 배운 것은 이통현의. 〈화엄론〉이외에 무엇이 더 있었습니까?

.〈금강경〉, .〈보조법어〉, .〈육조단경〉을 배웠어요. .〈범망경〉은 내가 상원사로 가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현토(懸吐)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모두 달랐지요. 그래도 한암 스님의 토(吐)가 가장 낫다고 해서 통도사 어느 스님은 한암 스님의 .〈육조단경〉 토(吐)를 그대로 베껴갔어요. 그때 한암 스님이 토(吐)를 달 때 보니, '~하고', '~하니', '~하며' 로 해야 하는가를 두고 한참 동안이나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탄허 스님은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그대로 죽 읽어 내려가는 것이에요.

-한암 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의 현토(懸吐)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탄허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본래 유가(儒家)에서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자 남화경〉 같은 책을 읽어보니 통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경을 보고 나서 보니 그때야 .〈장자〉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탄허 스님은 장자를 다 줄줄 외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관응 스님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유식론〉과 .〈구사론〉은 관응 스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제일일 텐데, .〈장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한국에 가면 내가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탄허 스님을 만나 보니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또 역사가 황의돈 선생은 탄허 스님을 보고 말하기를, "집에다 처자를 놔두고 와, 그래 .〈장자 남화경〉을 줄줄 외우고 있어."라는 말을 하였지요. 한암 스님도 "탄허가 나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가끔 했어요. 한암 스님도 수많은 경전을 다 보셨지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암스님께 배워 다음날 강의
한암 스님 "나보다 낫다" 칭찬
고암·영암·서옹 오대산 도반

-탄허 스님의 유학 선생인 이극종 선생이 상원사에 와서 한암 스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한암 스님의 부친이 상원사에 오신 적은 있었어요. 한암 스님의 부친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도인이 되었다고 하니 월정사에 와서 "내가 한암 도인의 아버지다." 하였지요. 그리고 상원사로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한암 스님이 우연히 문을 열고 보니 당신 아버지가 올라오고 계신단 말야. 그래 버선발로 뛰어나가 땅에서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딱 하루를 묵고 갔어요.

-요즘도 절에서는 대중들이 울력을 하는데 그때 상원사에서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도 직접 울력에 참여하셨습니까?

한암 스님은 울력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으셨고, 탄허 스님은 중강을 하는 때라 미리 공부를 해 두어야 하므로 한암 스님께 "저는 울력을 조금 빼 주십시오." 하면 한암 스님은 "그러면 되나? 그래도 네가 나가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왓장을 져 올리는 울력을 하였는데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길옆에 풀이 많잖아요. 그래 그 풀을 우리들이 울력으로 다 깎았어요. 그런데 수좌들이 서툴러서 자꾸 손을 베니 한암 스님이 내려와서는 "왜 무엇 때문에 손을 베는가? 낫과 손을 함께 움직이니 손을 벨 수밖에 없지. 이렇게 풀을 잘 잡고 낫질을 하면 손을 벨 염려가 조금도 없지." 하고는 시범을 보여주었지요. 말하자면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니 손을 벤다는 것이었어요.

-탄허 스님이 바둑을 잘 둔다는 말이 있는데 바둑 두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탄허 스님이 바둑을 잘 둔다는 말은 들었어도 상원사에서 바둑을 두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당시 총무원장인 이종욱 스님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서울에서 월정사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탄허스님이 상원사에 계셨지만 세배하러 안 갈 수가 있나요? 세배하러 가면 종욱 스님이 "탄허 스님이 그렇게 바둑을 잘 둔다면서요?" 하고 자꾸 바둑을 한 판 두자고 우기면 탄허 스님은 마지못해 한 번 두곤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탄허 스님이 이겼다고 그래요. 탄허 스님의 바둑수가 대단히 높아요. 탄허 스님은 "내가 글공부하느라고 바둑을 안 두었지 조금만 노력하면 국수가 될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탄허 스님의 바둑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배웠는데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이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암 스님께서 1941년 선학원에서 열린 유교법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는 않았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한암 스님 옆에 있었어요. 선학원에서 밤중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명은 청담스님이고, 또 한 명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고승법회를 한다고 하니, 한암 스님 하시는 말씀이 "자칭 고승으로 할 수 있는가. 유교법회로 하라." 했어요.

-범룡 스님께서 상원사에 계실 때 탄허 스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탄허 스님은 잠을 잘 적에 꼭 겹 자로 된 목침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주무시는데 한 잠 자고 나면 목침 따로 수건 따로 각자가 흩어지지요. 그래서 깨면 다시 그것을 모아서 자곤 하셨어요. 그 목침은 버드나무나 피나무와 같이 말랑말랑한 나무를 손수 깎아서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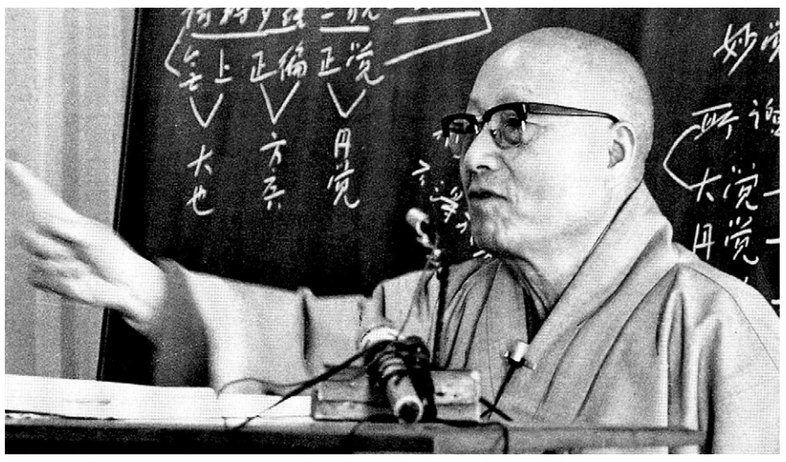
-범룡 스님은 상원사를 떠나 각처를 돌아다니시며 참선 수행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상원사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한암 스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지요. 그때 나는 상원사 중대에 있었는데 낮 12시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노스님의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희섭 스님이 산등성이 꼬불꼬불한 데를 반쯤 올라와서 노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소리를 지르기에 나는 속으로 '돌아가시면 할 수 없지' 하면서 내려가 보니 좌복에 앉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가사 장삼을 입혀드리자 옆으로 넘어 가셨거든요. 그래 좌복에 앉은 채로 뒤로 밀었는데 처음에는 고개가 안 넘어 갔지만 조금 있으니 머리가 뒤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때 마침 김현기라는 사람이 부대의 정훈부장인데 절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부산에 가서 총무원에 주어서 한암 스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두 알게 된 것이지요.

-태고사의 명칭을 조계사로 고칠 때 범룡 스님이 그 제안을 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내가 그랬을 거예요. 청담 스님이 비구측 총무원을 주도하고 나가니, 옆에서 자꾸 훈수를 한다고 그러면 복잡해지니 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그때 몸이 아파서 그랬나? 아무튼 그때 조계사로 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을 조계사로 처음 바꿀 때 현판을 탄허 스님이 썼다고 하지요? 탄허 스님의 글씨가 힘이 있고 좋지 않습니까?



탄허 스님은 저녁 때 한암 스님께 원문을 배우고 다음날 대중에게 강의했다.

물론이지요. 그 간판을 탄허 스님이 썼는데 그것을 글씨가 좋다고 누가 떼어 가 버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화운동 당시에 소구산 스님과 김지효 스님이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고 할복을 기도하였는데, 그 이후 그 스님들의 별명을 소단지, 김할복이라고 했는데, 그 별명을 탄허 스님이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애국사상을 가진 처사님 한 분이 구산 스님과 지효스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공양 대접을 하였지요. 그때 탄허 스님하고 나하고 같이 그 공양 대접에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 말을 내가 들었지요. 겨울이었지요.

-정화운동 이후에 탄허 스님이 월정사와 영은사에서 오대산수도원을 개설하였거든요. 이는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시도한 것인데 그 유명한 .〈화엄경합론〉을 번역하였어요. 이는 역경의 대작불사인데 범룡 스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훌륭한 역경불사였지요. 여담입니다만 .〈화엄경〉 현토에 있어서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토(吐)는 서로 맛이 달라요. 한암 스님도 대단하시지만 탄허 스님도 대단했지요.

-한암 스님은 평소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5가지 조건 참선 · 염불 · 간경 · 예식 · 가람수호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탄허 스님이 고루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즉, 한암 스님의 정신이 탄허 스님에게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한암 스님은 계행 · 선지(禪旨) · 간경(看經), 글씨까지 고루 있어서 뭐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특히 스님의 편지를 보면 글씨가 깨끗하니 거기에 모든 사람이 탄복하지요. 그런데 탄허 스님이 그분에게서 배웠는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요.

-탄허 스님의 한문과 경학실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즈음 불교계 현실을 보면 탄허 스님처럼 해박한 경전 실력, 한문 능통, 유불선 회통 등의 분야에 정통한 스님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탄허 스님이 강의한다고 하면 어떤 수좌들은 맨날 장자 · 노자 · 공자가 나오니 안 간다고 그래요. 나는 그러면.〈화엄경〉을 강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장자 · 노자 · 공자를 누가 아나? 그 셋을 섞어서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지요.

-탄허 스님의 일생을 보면 여느 스님하고 다른 점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수도원을 열 때에는 비구와 비구니, 나아가서는 재가자들을 같이 공부시킨 점도 그렇지요?

탄허 스님은 한 마디로 안목이 탁 트였다고 말할 수 있지요. 옛날사람 같지 않아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였어요. "둔하긴 나같이 둔한 사람이 없고, 알려고 노력하면 나만큼 노력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화엄경〉을 번역할 적엔 그저 한잠 정도만 자고 쓰곤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강의도 쉽게 가르치는 교수법으로 유명하지요. 언제 저렇게 산골에서 교수하는 법을 알았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는 수련소에서 중강을 보면서 숙달되었다고 봐요. 강의할 때 보면 유 · 불 · 선을 다 갖다 대요. 탄허 스님은 머리상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좀 많이 들어 있겠어요?

-조계종단 혹은 불교사 속에서 탄허 스님의 위상과 성격을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이 가르쳤으니, 제2의 한암이라고 볼 수 있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 큰스님 약력
지정 문화재 佛畵匠 기능보유자 (19-호)
한양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종추상
14회 불교미술 대전 공예 최고상수상
사.대한민국 문화종합 예술대상
사.한양미협 초대대작 심사위원
국제미협 禪書畵展 대상
사.한양미협 분과위원
국제미협 선서회 부문 초창작가
국제미협 문화종합 예술대상
2005년 MBC 생방송큐 방영
2012년 불교TV 달마도 방영
(현)해운 달마정사 주지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각성 큰스님 "원각경보안보살장
(圓覺經普眼菩薩章)"고운사 특강

수행자여!
환을 여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알고저 한다면 원각경 〈보안장〉을 보라.
몸과 마음이 환이라 의보와 정보의 관이 멸하면 청정하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나리라. 이 보안보살은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루 인연공덕으로 선근을 심으시길 발원하면서...



◐ 일 시 : 2013년 3월 4일(월) ~ 3월 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100,000)
◐ 참가대중 : 사부대중 누구나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www.gosusa.net

무심은 모든것 수용… 완성된 상태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7〉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관세음보살은 큰 자비를, 대세지보살은 큰 지혜를 상징한다. 유마는 '정명(淨名)'이란 뜻이다. 청정[淨]이란 성품을 말하고, 이름[名]이란 모습을 말한다.

사실 보살은 모습이 없다. 모습 없이 작용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려다보니 이름을 빌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고 드러낸 것뿐이다.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올바른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이치만 드러낼 뿐, 실질적인 가치를 알고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자비, 지혜 그리고 청정이 모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성품 안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품과 모습이 다르지 않으므로, 정명이라 한 것이다. 여러 대보살들로 표현된 덕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어 한마음을 여의지 않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이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유마거사 모두 성품의 현현일 뿐이다. 시작과 끝이 동시인 모습 없는 모습에서, 인연 따라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된다. 그렇게 천차만별의 모습이 되었지만, 모두가 성품을 여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까닭을 알면 받아들이지만, 모르면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한다. '관세음보살 만나야지.' 혹은 '염불, 기도 열심히 해서 염피관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야지.' 하는 것들은 모두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모두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된 장치에 불과한 것인데, 경의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자기 식대로 보고 실천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깨달음은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여여한 성품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모두 그 속의 일인 줄 알아서 담담하게 수용할 뿐이다.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바탕을 열고 쓰되, '열심히 해야지.' 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바로 쓰고 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염피관음력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문수보살의 지혜로 전환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의 모양에 집착하고 경계를 취하면서 모두 도를 등지고 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에 매달리면서, 도를 등지는 줄도 모르고 등진다. 본래 여여한 성품의 근본실상을 한 생각 돌이켜서 자각하는 순간, '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에 이른 것을, 허망한 모양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모양을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저 내려놓고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진귀한 보물도 탐하지 않고
오물도 싫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곧 무심
무심할 수 있으면 바로 究竟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는데
평상심을 만들거나 구하면
평상심과는 멀어진다
물들지 않은 마음이 평상심

보살은 모습이 없다
관음 · 문수 · 보현 · 유마는
성품의 현현일뿐
경전의 말씀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깨닫지 못하면
불보살님에 매달려
도를 등지게 된다"

갠지스 강의 모래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제석, 범천 및 천신들이 밟고 지나가도 기뻐하지 않는다. 또한 소, 양, 벌레, 개미 등이 밟고 지나가도 성내지 않는다. 이 모래는 진귀한 보물이나 향도 탐하지 않고, 분뇨와 오물이라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다. 모든 모습을 떠난 곳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시 차별이 없다. 단지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경(究竟)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직하에 무심할 수 없다면, 여러 겁 동안 수행해도 마침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성문 · 연각 · 보살 삼승의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품이라는 마음자리는 본래 무심이다. 무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완성된 상태를 말한다. 자기가 본래 무심임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닦는다 해도 도를 이룰 수 없다. 흔히 평상심이 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평상심을 따로 만들거나 찾고 구하면, 이미 평상심과는 멀어지고 만다. 본래 갖고 있는,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평상심이며 무심이자 본래면목 자리이고 성품의 근원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인연들이 천차만별로 온갖 차별된 경계를 만들었을 뿐이다. 한 생각 돌이켜서, 불보살과 내 성품이 본래 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업은 불보살님의 업을 능가할 수 없음을 알아서, 스스로를 낮추고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것이 정진으로 이어지고, 정진의 힘은 지혜로 화현되면서 삶의 질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증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확철대오 해서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생각이 차별을 만들다보면 잊게 된다. "나는 어리석은데 어떻게 내가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몸뚱아리에 집착한 소리다. 실상 자리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허망한 몸뚱아리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믿으니, 그만 마구니가 되고 귀신한테 홀리는 격이 된다. 이 자리는 성품만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차별된 경계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근본을 찌르면 그만일 뿐, 만들어진 경계에 생각이 끄달려서는 안 된다.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신 · 10주 · 10행 · 10회향에 이르러서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10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는 사람도 있다. 더디거나 빠르거나 무심을 얻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더 닦고 증득할 것이 없다. 참으로 얻을 것도 없지만,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본래 무심인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면 이미 성품을 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만들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있는 그림자도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그림자를 다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㊼



이제, 수보리여, 보살승에 나아간 자는 이와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가능성의 정치철학

옛스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但不爲也, 非弗能也]"라는 구절을 자주 만나게 된다. 짧지만, 그만큼 울림이 큰 명언(名言)이다. 그런데 나는 작년 여름 〈맹자〉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그것이 맹자의 절창(絶唱)임을 알게 됐다.

짧지만,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맹자의 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리라. 다 아는 것처럼, 맹자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무력(武力)에 의지한 정치가 아니라 인의(仁義)에 의지하는 정치를 펼치라는 이야기를 하러 다녔던 분이다. 여러 나라의 정치가를 만났다.

그러나 그 정치가들의 그릇[根機, 根器]에 맹자는 늘 답답해했다. 겨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나 했기 때문이다.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시나이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맹자는 그들을 논박(論駁)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 정치가들은 전부 그들 나라의 현실적 능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 형편에서는 이로움이나 부국강병책에 더욱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맹자는 달랐다. 그가 보기에 어떤 정치가일지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어질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어질 수 있고, 의롭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맹자의 왕도(王道)정치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그렇게 맹자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맹자는 늘 그것이 안타까웠다.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거기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이.

발심의 초월주의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려는 의지를 한껏 끌어올리는 것을 발심(發心)이라 말한다. 비유하자면, 내 능력은 사실 아파트 1층 정도의 높이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 하려는 의지를 한껏 끌어올리게 되면 15층 아파트의 15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단박에 말이다. 그 발심의 내용을 〈금강경〉은 "위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맹자의 그토록 간곡한 호소에 대하여, 누가 "네,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호응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내 〈맹자〉 공부가 완독(完讀)이 아니라 발췌독(拔萃讀)이었기에 그 점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쉽게 그런 정치가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라면 그 어디선가 일찍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났을 터이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중생이다. 발심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1층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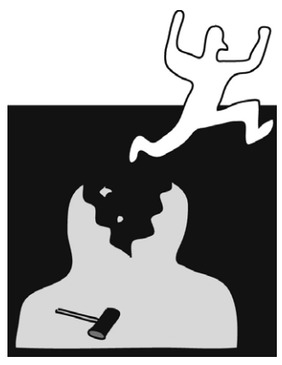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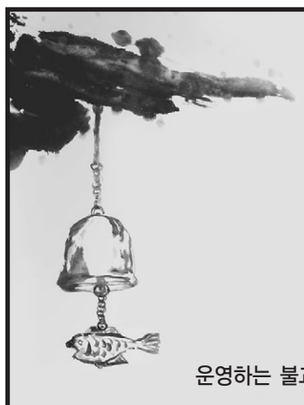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를 그냥 여기 두라, 고 말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그러면서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 변명한다. 이는 중생들의 은산철벽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범상한 능력을 초월하게 된다. 발심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라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중생이다.

〈금강경〉의 질문자 수보리는 "발심한 사람들의 (발심 이후의) 수행법"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발심한 사람들의 수행법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한껏 끌어올리고 난 뒤에 〈금강경〉을 읽어야 한다. 바로, 지금! 그렇게 발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 정		기간	교 과 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까지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소치의 쓸쓸한 새해 귀향 소식 전해

장동으로 추사를 찾았던 소치의 인연은 초의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이 기연(奇緣)은 소치의 일생에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추사의 슬하에서 화품(畵品)을 논평하는 고견을 듣는 일 외에도 절세(絶世)의 기품을 지닌 서화를 일람할 수 있게 된 소치의 탁마 이력은 천출로 타고난 그의 예술성을 한층 일신(日新)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스승에서 안목을 높일 일격(一見)을 듣는 것보다 새해에 고향을 찾는 일이 더 다급했던 소치의 소탈한 속내는 1839년 정월 9일에 쓴 추사의 편지에 여실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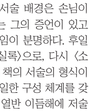


추사와 소치의 해후 시기를 밝힌 단서 〈벽해타운첩〉

추사와 소치 해후 시기 정정해야
"몸을 벗어나면 본래 장애 없는 것"

까. 형해(形骸:몸)를 벗어나면 본래 장애가 없는 것이니 칼을 잡고 짐승을 잡든 통 짐을 지든 모두 다 반드시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팥이 아파서 글자 획이 빗나가 기준이 없으므로, 장황이 쓸 수 없군요. 다시 오시기를 계획하시어 지팡이 하나로 표연히 달려오십시오. 모두 뒤로 미루고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근호 (1839)년 정월 9일 심득종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14신과 최근 발굴된 〈벽해타운첩〉에서 함께 수록된 것이다. 기해(1839)년 정월 9일에 쓴 것이란 단서는 〈벽해타운첩〉을 통해 비로소 밝혀진 셈이다. 특히 이 편지에 "허 소치가 새해에 작별하고 고향에 돌아가기에 다급해하지만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 대목은 그의 일시적인 귀향의 시기를 밝힌 단서이다. 심제 학계에 알려진 내용(1839년 겨울)과 이 편지의 내용(1839년 정월)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소치 연구의 핵심 자료는 〈몽연록(夢緣錄)〉이었다. 이 책은 소치가 진도로 귀향하여 1867년경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저술 장소는 진도의 운림각(雲林閣)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그가 〈몽연록(夢緣錄)〉서문에서 "황량한 곳에서 홀로 슬퍼하며 서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뜻밖에 손님이 찾아와 다정하게 며칠을 쉬는 동안 문답한 것이 있어 이것을 엮어 〈몽연록〉이라 불렀다"라고 했다. 서술 배경은 손님이 찾아와 문답한 것을 엮었다는 그의 증언이 있고 보면 이 책은 소치의 최고목일이 분명하다. 후일 서명을 〈몽연록〉에서 〈소치실록〉으로, 다시 〈소치실기〉로 정정했다. 특히 이 책의 서술의 행식이 초의의 〈선문사변만어〉와 동일한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초의의 열반 이듬해에 저술된 〈몽연록〉은 소치의 의지처였던 두 스승과의 인연과 자신의 삶을 반추하려했던 것이라고 여겨지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이 편지는 소치와 추사의 해후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1839년이 아니라 1838년으로, 정정해야하는 근거 자료이다. 이 외에도 그가 장동을 찾았을 때 추사가 상중(衷中)이었다는 증언은 추사가 양지이기에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던 전후 사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몽연록〉에 기해(1839)년에 추사와의 만남다는 소치의 회고는 착오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마음 원리 알면 정신치료 가능"

"불교는 부처님이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우리 마음의 원리를 터득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화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화를 지켜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현수 박사(56)는 정신과 의사다. 하지만 그의 직함 앞에는 또다른 수식어가 붙는다. 바로 불교 수행을 경험하고 이를 치료에 접목시키는 일상에서 깨어 있는 수행자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밝혀주는 동시에 방상을 바리고 실체를 보게 하는 훈련을 유도하는 방식을 환자에게 적용한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보여지는 유용한 면만 가볍게 차용해 치료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 박사의 모든 치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항상 빠알리어 사전이 놓여 있다. 궁금할 때 언제든지 찾아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다. 부처님 법을 원어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직접 빠알리어와 산스크리스트어를 공부해 매일 니까야 경전을 읽는 철저한 수행자 전현수 박사.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어린시절에는 불교가 하나의 막연한 문화였다고 한다.

이런 그가 불교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5년 결혼을 앞두고 만난 고익진 박사와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아내의 스승이었던 고익진 박사를 만나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특히 '불교라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의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를 계기로 그는 고익진 박사가 지도하는 '일성보살'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됐고 레지던트 2년차여서 엄청 바쁜 시기였는데 수행에 몰입하게 되었죠. 그때 저를 가장 크게 지배했던 것이 업설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는 세간의 현상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라는 것을 체득했죠"

그는 한 달에 한번 고익진 박사가 질문을 주면 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달에 가서 답을 하고 확인받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때부터 코로움이 생기면 내가 세상과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었구나 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환자들을 돌보는데 적용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좌선을 할 정도로 열심히 수행을 할 때였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군병사 치료에 적용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최초 융합 치료였죠"

이렇게 불교와 정신 치료는 전현수 박사의 삶을 지배하는 큰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1988년 고익진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 박사의 불교 수행도 답보 상태에 이른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접목을 갈망하고 있었고 이런 그에게 새로운 계기가 생기게 된다. 바로 2003년 우루디따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바로 이번 생에〉라는 책을 읽고 몸과 마음의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전 박사는 위빠사나 관련 서적을 상당수 읽으면서 수행시스템을 복원하고 싶다는 원을 세운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 문을 닫고 미얀마로 향한다.

"당시는 정신치료와 불교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두를 극복하고 싶었죠. 미얀마 양곤 왕테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몸의 속성,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됐어요."

또한 불교, 심리학, 정신의학 등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불교와 심리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로 발전하게 된다. 경전 읽기도 꾸준히 했다. 산스크리스트어와 빠알리어를 공부해 꼼꼼히 경전 읽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와 정신치료 패트를 각각 나눠어 파일을 만들어 나갔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또한 내가 경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불교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기도 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신의학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불교는 심리학이고 심리치료라고

불교와 정신과치료 융합 발원
2009년 병원 문닫고 수행 위해 떠나
위빠사나로 몸 · 마음 원리 체득
환자들에게 불교 마음치료 적용

말이죠. 또 불교는 윤회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전 박사는 이 과정에서는 선정을 경험해 보고 싶고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2009년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그는 다시 병원 문을 닫고 1년 동안 수행과 여행을 위해 길을 떠난다. 가장 먼저 가게 된 곳이 말레시아 타이핑에 있는 명상센터였다. 여기서 그는 6개월간 수행을 하고 선정을 경험하게 된다. "꾸준히 수행을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행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숨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초선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목표로 하는 생과 생의 연결 즉 윤회를 아는 데에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후 그는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로 가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궁금해 하는 윤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생과 생은 연결돼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테어나자 마자 전생이 기억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전생을 보는 방법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선정을 닦아서 알 수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치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수행과 여행을 통해 느낀 내용을 그는 2010년 〈마음치료이야기〉로 펼쳐낸다. 또한 지난 해에는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내용을 담은 〈생각사용설명서〉를 출간하게 된다.

"〈생각사용설명서〉는 생각이 어떻게 실제를 못 보게 하는지 또 생각이 없이지면서 실제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을 자책하고 후회하는데서 고로움이 시작되죠. 하지만 생각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실제를 보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그는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순간의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일니다. 마음은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되요. 또 좋은 대상을 생각하면 좋은 대상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그쪽으로 길이 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마타 수행은 우리 몸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곳에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수행법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전 그들에게 하루종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말하죠. 이를 꾸준히 반복해 실천한 환자는 자신의 병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면 정신병을 막을 수 있고 마음치료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전박사는 불교 수행 역시 실제를 보게 해주는 훈련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관찰을 통해서 세상과 몸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셨던 분이에요. 경험을 통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 것은 안 했던 매우 현실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정신이나 마음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이를 잘 훈련하면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 박사는 가장 탁월한 마음치료사였던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치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놓아 버리면 괴로움이 없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화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화가 날 수 있고 화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화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수행을 통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경험하고 체험해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의 법은 관찰 경험에서 나온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데 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끔 해야 하죠. 또한 부처님의 보편적 지혜를 불자들이 체득해 일반적인 용어로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초기경전 공부가 끝나는 대로 대승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는 전현수 박사. 끊임없이 불교를 공부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그는 자기 수행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일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hsl@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현수 박사는 … 전현수 박사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대 대학원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 1990년에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했다.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융합을 시도해오던 그는 2003년에는 한 달간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를 만들었다. 2009년 3월부터는 1년간 병원 문을 닫고 수행과 여행 그리고 글쓰기로 시간을 보냈다. 저서로는 〈울고 싶을 때 울어라〉〈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생각사용설명서〉 등이 있다.



2009년 병원문을 닫고 수행과 여행을 체험한 전현수 박사는 인도 여행 당시 달라이라마를 친견했다.



2012년 전현수 박사는 아잔브람 스님이 지도하는 세계명상힐링랭프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미얀마 양곤에서 삭발을 하고 비구가 되어 생활했던 전현수 박사의 탁발 모습.

전법일기

주지 스님은 살림꾼이었다

회비제, 전법의 기반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처음에 출가할 때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신도들이 법당 난방기를 켜두고 가면 그걸 끄면서 나는 불평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가면 그걸 닫으면서 중얼거렸다. 수도꼭지가 덜 잠겨 물이 흐를 때도, 가스 밸브가 덜 잠겼을 때도, 대낮에 전등을 끄지 않았을 때도 내 인상은 굳어졌다.

일반인들은 에써 외면하려 하지만 사실 절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연료를 넣어야 가는 자동차처럼, 불전에 갖가지 공양물도 올려야 하고, 너나없이 음식도 먹어야 한다. 직원 월급,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연료… 지출은 종류도 많다. 게다가 어린이 · 청소년법회까지.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기도비로 절을 운영한다. 정월과 초파일, 백중 때 목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한 해 살림을 산다. 지출 베분에 실패하면 빚을 져야 하고 살림살이에 허덕거려야 한다. 그럴 때 들어오는 재비(齋費)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다. 주지를 맡으면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건 이미 물 건너갔지만 최소한 허덕거리며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회비제' 였다. 대다수의 개신교인이 하다는 십일조 같은 건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 신도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희사금을 받아 절을 운영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단순하게 월 보시금을 내라고 하면 흔쾌히 낼 신도를 찾아보긴 힘들다.



그림 · 박구원

기도비의 변형된 형태
회비제 도입 재정난 이겨
나눔과 문화축제 '풍성'

그래서 나는 축원과 연계시켰다. 처음 주지로 부임하면서 시작한 다라니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월 5만원의 회비를 신도들에게 내도록 제안했다. 사실상 기도비의 변형된 형태인 셈이다. 아무튼 회비만 내면 백일기도는 물론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도, 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신중기도, 정월 대보름 방생, 연1회 삼사순례까지 자동 동참하도록 하였고, 1년 이상 회비를 내면 범당 입년등도 그냥 올려주었다. 백중 영가 위패와 인등을 빼고는 전부 포함시켰다. 신도들도 좋아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2009년, 회비제를 시작한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93명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평균 150명의 신도가 동참했다. 재정이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 나눔과 전법에 대한 지출액수도 더 늘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매주 일요일 50~7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고, 배드민턴대회 때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어우러진다. 정월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때는 도량이 주민들로 넘쳐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때는 1천 명 이상의 주민이 절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갖는다. 혜민 스님 초청법회 때는 무려 3천 명이나 참석했었다!

나눔에 있어서는, 한 달에 세 번 어르신 공양과 둥거노인 대상 반찬 도시락 배달,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 영정 사진촬영,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부처님 오신날의 장학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비의 쌀 나누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중학교 교복 지원, 자비의 김장나누기, 팥죽 나누기…. 우리절에는 사람들이 부시로 드나들고 신도들은 잰 걸음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나는 늘 분주하게 산다. 내 삶이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간다.



한북 스님(대한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 ·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철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대) (소)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샤갸(불교축제), 러시아연방 회통시키는 촉매제

푸틴 대통령, '음력 설 불교 축제' 주목…축사 보내
칼미키야, 부리야트, 투바 … 법회 · 연등 띄우기 · 횃불 순례 등

다민족 · 다문화의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이 음력 새해에 맞춰 연방 곳곳에서 마련된 불교 축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연방 주요 매체인 타스(TASS) 통신은 크레믈리(Kremlin, 크렘린)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 자료를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곳곳에서 음력 설을 맞이해 대형 축제를 개최한 불교계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가) 젊은이들의 정신적 · 애국적 교육과 종교 간 화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불교도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민족 간 평화와 국민 화합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눈길을 잡은 음력 설 불교 축제는 '샤갸(Shagaa)'다. 음력 새해를 맞아 마련되는 이 축제는 '백월축제(White Moon Festival)'라고도 불리는데, 1990년 이후 러시아연방이 음력 설을 공식 휴일(休日)로 지정할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이 축제는 칼미키야(Kalmykia), 부리야트(Buryatia), 투바(Tuva) 등의 러시아연방 남부 지역에서 주로 개최되었는데, "매년 축제 규모와 참석자 수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샤갸의 주요 프로그램은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연등이나 횃불 등을 밝혀 서원을 다잡고 액막이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타라 모래 만다라'를 재현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 등이 마련되기도 한다.

여기에 각 지역에서 존경 받는 티베트 불교계 스님들이 봉행하는 대중 법회도 빼놓을 수 없다. 투바온라인(Tuva-Online)은 올해 백월축제 중 다죠(Dorzho) 스님의 법문을 인용, "러시아연방이 티베트 독립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티베트 역사와 문화를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칼미키야 엘리스타(Elista)에 있는 불교사원에서 봉행된 올해 음력 설 맞이 법회.


칼미키야 불교계가 백월(White Moon) 축제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연등 날리기' 행사.

투바의 올해 샤갸의 하이라이트는 '횃불 순례(The Lighting of Fire)'. 이는 청장년 불교도들이 횃불을 들고 투바의 수도 키질(Kyzyl)의 주산인 도기(Dogee) 산을 오르는 것이다. 투바온라인은 "1킬로미터 남짓한 순례 불빛에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크게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칼미키야 불교계가 백월축제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연등 날리기' 행사 역시 새해 희망을 다잡는 동시에 밤하늘에 환하게 밝힌 연등을 띄워 축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칼미키야, 부리야트, 투바를 비롯한 러시아연방에는 300만여 명의 불교도들이 있다"고 전한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987년 레닌그라드 방문 이후, 1992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부리야트와 칼미키야에서 33명의 행자와 스님에게 사미계와 비구계 수계한 것이 지금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풀이하고, "130여 종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연방에서 불교는 서로를 융화시키는 문화적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연방은 서구에서 불교도 2위의 국가이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에는 500여 개의 불교공동체가 있는데, 대부분 칼미키야, 부리야트, 투바 등지에 흩어져 있는데, 17세기 18세기를 전후해 불교가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부리야트의 경우 몽골의 티베트불교가 17세기에 전해졌고, 재정 러시아 때인 1741년 엘리자베타(Elisaveta Alexeievna) 여제가 부리야트의 불교를 공식 인정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발전했다. 투바의 투르크 족에게 티베트불교가 전해진 것은 18세기이다. 처음엔 티베트불교 종파인 겔룩파가 성하다가 현재에는 닝마파도 번창했다. 본래 몽골족인 칼미키야는 몽골에서 독립해 카스피해 유역의 볼가강과 돈강 사이로 이주할 때부터 독실한 티베트불교도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7〉



신불교는 불가촉천민이 믿는 종교 '무시'

신불교의 문제점과 한계

인도의 신불교는 불가촉천민들을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에서 해방시키려는 의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인도에서 신불교가 생겨난 이후 인도 사회, 특히 힌두들이 그들을 완전히 독립적인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불가촉천민들의 개종을 반대해 온 극우힌두정당의 대표는 부처님은 새 종교를 제창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의 고대 사상을 새삼 강조했을 뿐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힌두성전인 바그바드 기타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님은 힌두신인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힌두교 신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신불교를 힌두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식시키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가촉천민을 무시하던 시선을 그대로 불교에 투영해 신불교를 천한 불가촉천민들이 믿는 천한 종교로 바라보기도 한다. 또한 불교도라는 것이 곧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 인도의 국립대학에서 불교역사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혹시 불교신자이신가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나는 브라만이야.'이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가부가 아닌, 자신의 카스트를 드러내는 그의 대답에서 '상위 카스트인 내가 어떻게 불교도일 수 있겠는가!' 하는 뉘앙스를 읽고 씁쓸했다.

이런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이 모두 불교신자인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1951년 180,823명이었던 불교인구가 집단개종이 있은 이후인 1961년에는 3,250,227명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 실시된 인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도의 불교인구는 7,955,207명이다. 이 중 암베드카르의 고향이자 개종식이 열렸던 곳인 마하라쉬트라주의 불교신도는 5,838,710명이다. 이것은 인도전체 불교인구의 73%

신불교도들, 종교적 정체성 확립 못해
억압하던 힌두 신분제 해방에만 관심
불교기념일 · 힌두기념일 함께 기려
암베르카르 불교교재에만 의존 문제

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것은 신불교가 전 인도에 걸친 종교세력이 되지 못하고 암베드카르가 속한 카스트와 그의 추종자들 내에서만 호응을 받은 것임을 드러낸다. 암베드카르의 개종호소에 다른 지역의 불가촉천민들은 사실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암베드카르가 개종 이후 2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개종 후에도 많은 신불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인도의



암베드카르의 저서인 〈붓다와 그의 가르침(the Buddha and his dhamma)〉과 암베드카르

사회학자는 암베드카르의 카스트인 마하르 출신 신불교도들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정에서 붓다와 암베드카르의 사진과 함께 여전히 힌두신들이 집안에 모셔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불교기념일과 함께 힌두기념일을 기리고 있는 신불교도들도 많았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은 불교도이자 힌두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신불교와 힌두교의 완전한 결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처음 신불교도들은 개종을 할 때는 불자가 되는 것 보다는 힌두교를 떠나는 것이 더 시급했다. 따라서 일부 신불교도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종교를 떠나는 것에 만족했고 새로운 종교에 대한 학습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이런 현상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불가촉천민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하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는데 몰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들과 하위카스트를 위한 할당제가 있다. 이것은 불가촉천민들이나 하위카스트들을 위해 국회에서도 의석의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나 대학에서도 그들을 위한 배정이 있어 일정비율의 신입생을 그들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다. 1990년 이전에는 힌두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헌법상의 하층민 보호조치를 누릴 권한을 상실했다. 이런 사회적 불이익 앞에서 많은 불가촉천민들은 개종을 망설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불교로의 개종이 큰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1990년에 있었던 헌법개정으로 인해 개종 전의 카스트가 불가촉천민에 속하는 카스트일 경우에는 개종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불교단체들을 불가촉천민들에게 불교개종을 호소하면서 이 점을 크게 홍보하고 있다.

신불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암베드카르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불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할 위험까지 가져왔다는 점이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저술했는데 이는 경전 등을 쉽게 접하기 어렵고 팔리나 산스크리트어를 잘 알지 못하는 신불교도들에게 거의 유일한 불교교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책을 통해 불교들 받아들이는 신불교도들은 암베드카르가 저술한 내용에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암베드카르의 말은 부처님의 말과 동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암베드카르는 개인적인 견해들을 많이 첨가했는데 그 중에는 기존의 불교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또한 많다. 그러나 암베드카르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심지어는 일부 학자들마저도 전통의 불교해석과 다른 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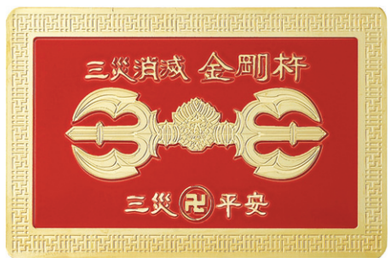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삶은 고가 아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문가에게 듣는 불교 금속 공예 강좌

리움미술관 '찬란한…' 3월 15일 개강 총 12회 강좌



리움미술관은 3월 15일부터 금동불상 등 금속공예 관련 강좌를 펼친다. 사진은 금동미륵반가상

리움 미술관이 '찬란한 염원, 금속공예' 강좌를 3월 15일 개강한다. 강좌는 깨달음의 염원을 담은 불교 공예를 비롯해 금속 공예 기법, 고분 속 금관 이야기, 조선의 장신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정은우 동아대 교수의 '진리의 염원 영겁의 미소, 한국의 금동불상'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의 '번뇌를 태우는 염원, 백제 금동향로', '깨달음의 소리 범종'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가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끈다.

리움 미술관은 "한반도의 문명과 함께 발전해 온 금속공예의 여정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는 강좌다. 변치 않는 영원함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신에 대한 절대적인 귀의라는 양극을 순수 결정체로 표현한 금속 공예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강좌는 3월 15일~6월 7일 총 12회로 금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30만원이다.

이와 함께 리움미술관은 4월 9일~5월 1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단기강좌로 '영화 & 미술'을 진행한다. 이 강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화 장르 중 하나인 영화와 현대미술의 조우를 시대적 흐름으로 짚어본다.

각 강좌의 정원은 100명이며 수강생들은 리움미술관의 상설전과 기획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02)2014-6900 정혜숙 기자

금속공예강좌

회(월/일)	구 분	내 용	강 사
1회(3/15)	개괄	찬란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금속공예	최응천(동국대 박물관장)
2회(3/22)	기원과 기법	금속공예의 기원, 한국식 청동검의 탄생	이한상(대전대 교수)
3회(3/29)		손끝의 아름다움, 금속공예의 기법	김연수(국립고궁박물관)
4회(4/05)	왕실의 상징	무덤 속 한국의 주인 – 백제	이한상(대전대 교수)
5회(4/12)		무덤 속 한국의 주인 – 신라, 통일신라	이송란(덕성여대 교수)
6회(4/19)		권위의 표상 – 고려/조선의 왕실 금속 공예	주경미(문화재전문위원)
7회(4/26)	진리의 염원	영겁의 미소 – 한국의 금동불상	정은우(동아대 교수)
8회(5/03)		부처의 진신, 불탑과 사리함	한정호(동국대 교수)
9회(5/10)		번뇌를 태우는 염원, 백제 금동향로	최응천(동국대 박물관장)
10회(5/24)		깨달음의 소리, 범종	최응천(동국대 박물관장)
11회(5/31)	생활속 장식	금보다 귀한 유리 이야기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 관장)
12회(6/07)		조선 선비와 여인네의 장신구	박경은(국립부여박물관 학예사)

하우스(House)서 울려 퍼지는 불음의 향연

부산 포크락밴드 해조음 정기 하우스 콘서트



포크락 밴드 해조음은 지난 1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음악학원에서 최초로 첫 하우스콘서트를 열고 매달 정기 공연을 펼친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 하우스콘서트는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연이다. 연주자는 제작 비용 부담을 줄여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 또한 관객들은 좀 더 가까이서 좋은 음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박창수 씨는 자신의 연희동 2층 주택을 개조해 만든 공연장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열고 이를 10년 넘게 이어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공연문화에 힘입어 불교계에서도 하우스콘서트를 여는 포크락밴드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해조음은 부산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인정사(주지 · 수진)의 6인조 포크락 밴드다. 해조음은 지난 1월 19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음악학원에서 최초로 첫 하우스콘서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리더 홍광현 씨는 "지난해 찬불가 2집 앨범이 나온 기념으로 해인정사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이후 소극장 정기공연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학원의 무대와 조명을 개조해 하우스콘스트를 열자는데 합의를 하고 올 1월부터 공연을 열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첫 공연에는 50여 명의 관객들로 객석이 꽉 찼고 해조음은 창작연주곡, 국악곡, 팝송 등의 음악을 선사했다. 홍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를 하고 직접 준비한 다과도 내어드렸다. 관객들도 힐링 공연이 됐다며 매우 만족해했다. 이 열기를 모아 매달 셋째주 토요일 저녁 7시마다 정기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해인정사 밴드로 시작
홍광현 씨 등 6인조 구성으로 활동
음악학원 공간 내어 찬불 공연
매달 셋째주 토요일 대중 찾아가

해조음은 2001년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첫 음반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라는 모토를 걸고 불자들로 구성된 해인정사 'Buddhist Band 해조음'으로 재창단하게 된다. 밴드는 보컬에 김연진, 보컬과 기타에 리더 홍광현, 건반 조오령, 베이스 기타 김정태, 해금의 나리, 휘슬과 오카리나 옥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조음 창단에는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홍 씨는 "어린 시절 다녔던 부산 연산동 마하사라는 사찰에서 스님을 알게 되었으니 벌써 그 인연이 30여 년이 넘었다. 이후 수진 스님의 격려로 불교계에서도 대중 밴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2005년 해조음을 창단하게 됐다. 다들 프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불교의 깊은 뜻을 편하게 전달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해인 스님이 작사를 해주면 여기에 내가 곡을 붙여 음악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스님과의 인연을 설명한다.

해조음은 12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콘서트 단독공연을 맡을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다. 콘서트를 10여 회 개최했고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새우리병원과 부산대학병원 음악회 등 병원 위문공연을 80 여 회 개최한 바 있다.

해조음은 지금까지 4장의 정규 앨범을 냈는데 그 중 두 장이 찬불가 음반이다. 홍 씨는 "산사음악회 등 불교 무대에도 서지만 다른 무대에도 서기 때문에 찬불 음반과 대중 음반을 구분해 앨범을 내고 있다. 하지만 찬불음반 역시 포크락 풍의 대중적인 분위기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해조음(海潮音)의 '해조'는 썰물이 들고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는 바닷가 근처에 도량이 많은 부산을 상징하는 이름이자 해수관음보살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생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님처럼 해조음은 2013년부터 세상을 향한 나눔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산간벽지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진 스님과 함께 무료공연을 펼치고자 한 것.

홍 씨는 "지금도 해조음 멤버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음악지도를 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간벽지 학생들을 위한 공연으로 문화 혜택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또한 하우스콘서트 수익금 등으로 장학금 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며 계획을 전했다.

(051)759-0825 정혜숙 기자

동국대 한방병원, 드라마 '한의학' 자문

MBC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 제작 지원



'구암 허준'의 첫 촬영 장면

동국대 분당한방병원(병원장 김장현)이 MBC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의 한의학자문을 맡아 드라마 제작을 지원한다. 이는 1999년 '허준', 2003년 '대장금', 2012년 '마의'에 이어 4번째다.

드라마 '구암 허준'은 1999년에 '허준'을 집필했던 최완규 작가가 대본을 맡았고, '선덕여왕' '계백' 등을 연출한 김근홍 PD가 감독을 맡아 제작하게 된다. 40분 분량 120부작 일일드라마로 오는 3월부터 오후 9시대에 편성된다.

이에 김근홍 감독 등 '구암 허준' 제작진과 출연진 30여명이 2월 1일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을 방문해 의학자문 지원에 대한 상호 협의와 한의학 침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은 드라마 제작기간 동안 한의학적 고증을 통한 작품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의 전통의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재능기부 작품 수익금으로 미얀마 교육사업 후원

더프라미스 불교박람회 5명 작가 참여…이재용 · 존위드먼 등 작품 주목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가 3월 7~1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 6회 불교박람회에서 작가들의 재능기부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더 프라미스는 갤러리 엠의 추천 작가 5명의 작품을 재능기부 받아 비영리 분야 나눔특별관을 통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참여 작가는 이재용(사진), 이시우(유화), 존 위드먼(유화), 한지민(판화), 박대조 등이다. 특히 이재용 작가의 작품은 여러 사진을 찍어 합쳐 만든 흑백의 작품으로 은은한 동양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존 위드먼의 작품은 잊고 살았던 낡고 오래된 책, 음반, 박스 등 옛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 수익금은 더프라미스의 미얀마 교육사업으로 후원된다. 또한 더프라미스는 전시와 더불어 캡슐 커피를 판매한 수익금도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2013 불교박람회'는 3월 7일~10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열리며 불교의 문화와 생활,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전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찰음식, 차, 템플스테이 체험은 물론 힐링 토크, 초청법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전통문화유산을 시연하는 '코리아 헤리티지 콘서트'도 준비된다. 더불어 열리는 '제 1회 붓다 아트페어'에서는 한국 불교 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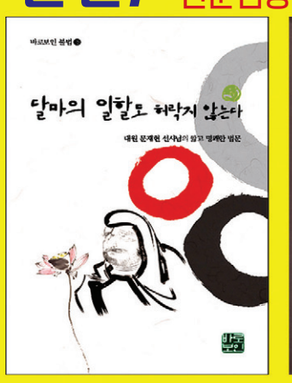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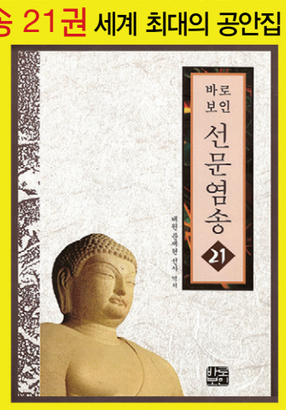
특히, 박람회 기간 중 연일 열리는 초청 강연은 저명한 스님들의 법문으로 채워진다. 각 강연은 불교의 근본 원리와 부처의 근본 가르침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선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 및 즉문즉답도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12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며 25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02)569-1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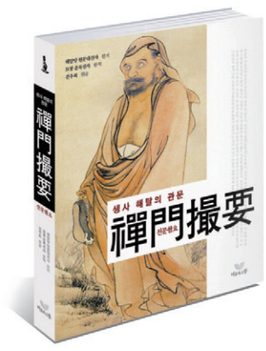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재용 작가의 '시선의 기억 # 개양귀비'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조사祖師의 문門 안에 들어
불조佛祖의 근본 체득하는 길!
"생사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함이 생사 없음에 계합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계합함이 생사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니라."

출간 즉시 2쇄 돌입!
생사해탈의 관문
《선문촬요禪門撮要》
묘봉 찬주 · 견우회 엮음
변형크라운판 | 흑백 | 452쪽
15,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본래성품 깨달아 인간성 회복하는 핵심 선禪법문
《선문촬요》는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1849~1912)선사가 엮은 책으로, 중국과 한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을 한 데 모은 대표적인 선어록. 혜암선사가 편역한 달마혈맥론(達磨血脈論), 달마관심론(達磨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 선경어(禪警語)의 한문 원문에 토를 달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한자 마다 한글 음을 달아 독송하기에도 편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 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학생 심리 상담
3. 빙의 퇴마, 원인모른 병, 정신이상, 환시, 환청
4.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011-772-4606 / 031-842-8023

자연의 소중함 '범어'로 일깨웠어요

독일 작가 스톨한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작품 기증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했던 독일 작가가 범어사성보박물관에 레고 작품을 기증해 화제다. 유르겐 스톨한스(Jurgen Stollhans)는 지난 4개월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등 한국불교문화와 친숙해졌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자신의 작품 '범어'로 완성한 것이다. 여기서 범어는 범어사의 전설에 나오는 물고기를 의미한다.

스톨한스는 부산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지칠 줄 모르는 한국의 민속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두 개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 하나가 통신기술의 미학 너머에 있는 한국의 시각적 정수를 포착한 드로잉 시리즈이며, 다른 하나가 대형 물고기 '범어'이다.

1월 31일 범어사성보박물관에 기증된 '범어'는 옥스퍼드사의 블록 75000여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범어사 근처 산 속에서 나타난 금어의 신비스러운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작가가 템플스테이 체험 등의 느낌을 드로잉과 메모로 남겨두었다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물고기의 크기만 키운 대형 장난감과는 차별화를 이룬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대인들에게 문명의 틀을 깨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작품 정면에는 '다시 콘크리트로'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서예체로 새겨진 이



유르겐 스톨한스의 '범어'

글씨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에게서 받은 서예 글씨를 스캔 받아 작품화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의 작품에 왜 '다시 콘크리트로'라는 문구를 새겼을까?

템플스테이 경험 등을 살려 레고로 대형물고기 제작

부산비엔날레 조직위 박민희 씨는 "일종의 반어법이다. 자연의 반대 콘크리트를 패러디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유르겐 스톨한스는 부산에 와서 수많은 공사현장들을 목격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케치프레이즈 문구를 패러디하게 된 것이다. 작품은 산업화·근대화 이전의 삶 그 자연을 찾아 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경으로 만나는 옛 이야기

통도사 동경전…5월말까지

'제 10회 작은 전시회 - 통도사의 동경(銅鏡)' 전이 5월말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 동제팔능형꽃과새무늬동경과 동제쌍용운무늬동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동경(銅鏡)은 구리 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서 넓게 사용되어 왔다. 주로 종교나 제사용 도구로 사용 되었으며 또한 거울을 만드는 장인을 경사(鏡師)라 하여 각 지역마다 이런 장인을 두기도 했다.

성보박물관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 동경이 본격적으로 자체제작 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삼국유사〉의 고조선 편에 삼부인(三符印)이라 하여 환웅께서 칼, 방울과 함께 거울을 가져와 세상을 열었다는 기록이 보인다"고


고려의 동제쌍용운무늬동경(銅製雙龍雲文銅鏡)

설명했다.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 동경은 자신을 바로 잡는 도구이며, 삶의 넋두리를 뱉어내고, 또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했던 유일한 통로였다. 우리네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비추는 소품 동경을 통해 조상들의 자취를 느껴 보는 것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055)382-1001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안상(眼象)→영기창 ㊦

'안상(眼象)'은 아무 의미 없는 말

2005년에 처음으로 안상(眼象)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누구에게 물어도 시원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흔히 한자 용어를 직역하여 '코끼리 눈'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예술품에 거의 반드시 있는 안상이란 그 정체가 무엇일까?

안상(眼象)에 대해서는 다행히 진홍섭 선생님이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일지사, 1997) 라는 책의 「한국의 眼象文樣」이라는 논문 서두에 일본학자의 설명을 소개하면서 그 용어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하여 놓았다. 그러나 일본의 학풍을 따르고 있는 우리 학계는 일본학자들이 풀어놓은 오류를 답습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국에서 '眼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까닭은, 한국에는 적당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학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일본 용어를 택한 셈이다.

일본학자들의 오류 중 하나 '영기창'으로 제자리 찾아야

일본의 제1세대 미술사학자, 이시다(石田茂作)씨는 역사적으로 두 용어가 있는데, '牙床'이란 명칭이 일찍이 나라(奈良)시대에 쓰여 졌고, 말기에는 '牙象'이란 용어도 병행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목공예의 상다리(床脚)에 장식 혹은 보강의 목적으로 부가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두 용어를 모두 음독하여 게쇼(ge-sho) 혹은 겐쇼(gen-sho)라고 읽는다고 한다. 그런데 후지와라(藤原)시대 말기부터 같은 음과 같은 글자로 眼象이란 한자 식 표기가 등장하는데 발음이 이상의 두 용어와 같은 gen-sho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眼象은 뜻이 아무 것도 없는 일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발음만 같은 이두 같은 셈이다. 이시다씨는, 한국의 고분벽화나 불상대좌에 보이는 것을 보면 꼭 동물의 이빨(牙)를 연상케 하여 아상(牙床)의 명칭에 알맞다고 했다. 안상 자체를 일종의 장식으로 생각하였지 그 자체에 특별한 뜻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했다. 마치 '공간을 메우기 위한 변다한 안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중국-한국-일본의 학자들은 안상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조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영기창(이후부터 이 글에서 '안상'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한다)의 개념을 목가구인 평상에서 찾으려 했으므로, 다른 장르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형태의 아름다운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영기창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영기창에서 만물이 탄생하여 나타난다

우선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안상(眼象)'을 '영기창(靈氣窓)'이란 용어를 만들어 그 까닭을 설명해 나갈 생각이다. 이른바 세간이나 학계에서 흔히 부르는 '안상'은 불상대좌나 석탑, 도자공예, 금속공예 그리고 목조건축 등, 모든 장르에 수없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상징을 띠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어떤 장르이건 안상은 맨 밑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조형임을 암시한다. 안상이란 단지 보강도 장식도 아니다. 그러한 형이하학적 차원을 넘어선, '최고의 형이상학적인 영기화생의 도상을 이루는 조형'이 바로 영기창이다. 영기창은 아름다운 다양한 영기문(靈氣文)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은 무한한 우주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공간 안에서 비천이 나타나 날며 용이 나르며 사천왕이 나타나 위엄을 부리며, 여래가 현신하여 앉아 있으므로, '영기창을 통하여 모든 존귀한 존재가 영기화생하는 경이로운 광경'이다. 영기문에서 만물이 탄생하듯, 영기창의 공간에서 만물이 탄생하여 나타난다.

특히 불상대좌나 불단 등 목가구를 영화시키기 위해 정교한 영기문을 부여한다. 즉 영기문을 그대로 부재로 만들어 가구를 만드니, 건축의 부재를 영기문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가 처음 영기창이라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수덕사의 고려시대 불탁에서였다.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이제 목공예는 물론 모든 장르의 영기창은 영기화생론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고구려 7세기의 쌍영총 벽화에서 주인공이 앉은 평상(平床)과, 수덕사의 고려시대 불탁(佛卓)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곁들이려 한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고구려 쌍영총 주인공이 평상 위에 앉은 초상화


수덕사에 있는 고려시대 불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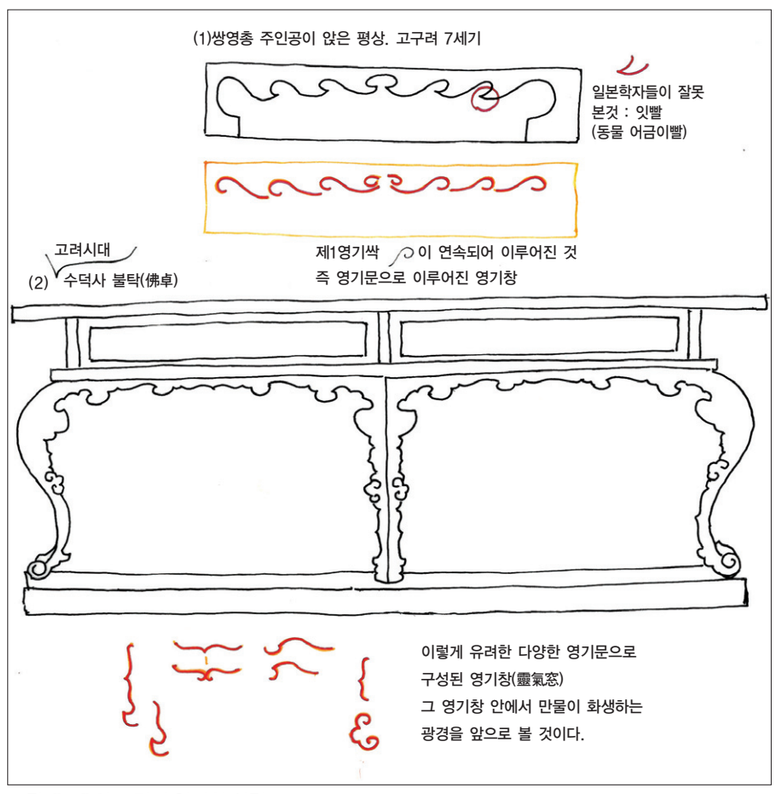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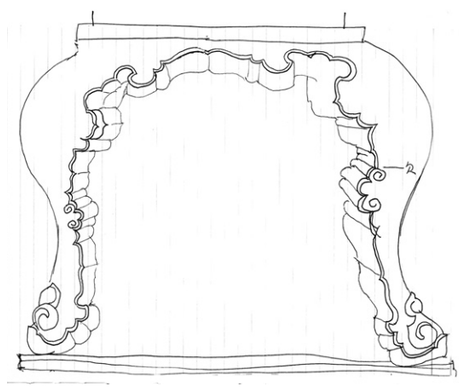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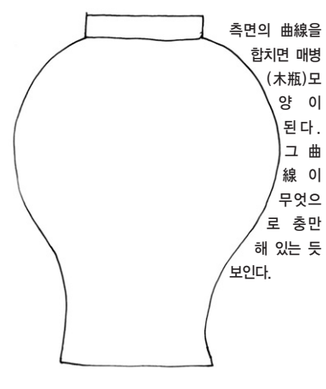


그림 ①, ②의 도면과 영기창 설명


수덕사 불탁의 측면 스케치



불탁 측면 곡선에서 취한 항아리 모양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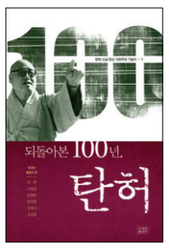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탄허 100년 속 한국불교, 한국불교 속 탄허 100년



되돌아본 100년, 탄허
오대산 월정사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2013년은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책은 한국불교학회와 오대산 월정사가 주관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2012 추계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융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탄허 스님의 화엄선과 원융적인 사상의 틀이 오대산정신에서 연유한다는 기초 위에서 탄허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법당 100채를 짓는 것 보다 스님들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966년 동국역경원 개원식에서 탄허 스님의 개원사다. 단순한 개원사의 의미를 넘어 당신의 일생 전체를 가름하는 문장이다. 탄허 스님은 가정 환경적으로 민족과 애국의 기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불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한국과 동양의 비전을 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승, 속의 계몽과 교육에 일생동안 매진했다. 스님은 교육이야말로 불교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시대과제라고 판단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전후의 피폐한 상황에서도 1956년 월정사에 '오대산 수도원' 발족을 시작으로 당신의 서원과 원력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역경'이었다.

그때까지의 불교교재들이 모두 한문으로만 되어 있음이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한 스님은 모든 교재를 현토하고 번역하는 대업에 시동을 건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불교 역경사에 한 획을 긋는다. 스님은 화엄경과 관련된 방대한 저술을 집대성하고 번역하여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등 한국불교 역경사에 가장 큰 불사를 이룩했다. 이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개인이 행한 역경불사로는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바로 탄허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사 최고의 학승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데에만 17년을 몰두했을 만큼 사회 통합의 해결책으로 화엄사상을 강조했다. 책에서는 이처럼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의 일원이자 유불선을 통달한 스님의 삶과 시대정신을 재조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탄허'의 업적은 '한암'의 그늘에서 잉태되고 발현됐다. '한암' 없이 '탄허'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 없고, '탄허' 없이 한암'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다. 숲이 울창하면 나무가 묘(妙)하고, 골이 굽이치면 신룡의 자취가 어리는 법. 약관의 탄허는 암울한 시대속의 실존적인 방황을 당대의 최고 선지식인 한암 스님에게 의탁한다. 22세의 탄허는 3년에 걸친 스승과의 문답 끝에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한다.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법통을 계승하여 〈신화엄경합론〉을 비롯한 70 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역경하고 주석하여 현대 한국불교 교육의 토대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유 불 도 3교를 회통하는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종교해석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종교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1장에서는 탄허 사상의 배경이 되는 오대산의 특질과 관련된 '오대산 문수화엄 신앙의 특수성 고찰'을 다루었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자장 스님에 의한 오대산 개창과, 신라하대의 확립되는 화엄을 바탕으로 하는 원융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는 탄허 스님의 동양학적 회통정신이오대산에 깃들 수 있는 한 이유를 납득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이를 통해서 탄허 스님의 융·복합

2012 관련 발표논문 엮어
"법당 100채 짓는 것 보다
스님들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해"
탄허의 삶으로 본 한국 근현대불교

적인 관점이, 오대산 본래정신과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제2장은 제1장 주제의 바탕적인 부분을 기초로 한 '탄허 택성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다. 탄허 스님의 한국불교사적 위치에 대해 모색했다.

제3장은 탄허 스님의 사승(師承)적인 관점에서의 사상 고찰이다. '한암과 탄허의 동이(同異)점 고찰'이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차이를 '선적인 교'와 '교적인 선'으로 파악하고, 양자가 일관하는 지눌선의 양상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은 스승과 제자임에도 완연히 다른 색깔을 가진 선지식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리는 오대산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4장은 탄허 스님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화엄과 관련된 것으로, '탄허 택성의 화엄사상'이다. 탄허 스님은 화엄에 대한 기존 한국불교의 일반론인 청량징관(淸凉澄觀)의 계통과는 다른 이통현의 설을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5장은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이다. 탄허 스님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간 선각자라는 점에서, 스님에게서는 다양한 모습들이 중층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6장은 탄허 스님의 예언 및 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탄허 스님의 예지, 그 배경과 의의'다. 예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본질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선지식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법보신문 · 월간 불광 공동 기획
불광출판사 펴냄
1만1천원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것 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음이 하는 것들로서 사랑, 미움, 후회, 희망, 절망 등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책은 그 중 하나인 '위로'에 관한 것이다. 말씀 그대로가 위로가 되는 열여덟 분의 선지식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이다.

책은 2012년~2013년 법보신문에 연재되었던 '명법문 명강의'와 월간 〈불광〉에 연재되었던 '살아있는 명법문' 중에서 가려 뽑아 엮은 것으로, '기억에 남는 명법문' 시리즈의 네 번째다.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도심 포교에 진력하는 정우 스님, 사회 운동에 앞장서는 도법 스님, 한국 최초 다문화 사찰 명락사 주지를 지낸 무원 스님, 청안 스님,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등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이다.

"여러분,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배우려면 컴퓨터를 연습해야 하고, 골프를 치려면 골프 연습을 해야 하듯이 행복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선지식의 어법엔 늘 위로가 있다. 힘든 대중을 향한 위로. 그것이 다름 아닌 '법문'이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의 법문 속 메시지는 '행복한 삶'으로 요약된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혜국 스님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긴다며, 행복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지홍 스님은 허망한 탐욕과 사견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설한다. "그것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진리에 눈을 떠야 하고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선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해 그릇된 집착이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지유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면 새로운 내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할 때 사량분별이 떨어진다고 답한다. 옛 스님과 선사 이야기를 인용하여 사량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답한다. 행복과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속에 있지 않을까? 일운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반문해 보길 권한다. '현재,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 나를 쫓아다니는 그림자가 싫어 달려도 보고, 쭈그려 앉아도 보고, 누워 있지는 않은지….' 도망치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를 사라갈 수 있다.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도 다음날로 미루거나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일운 스님 말씀처럼 이 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자신의 전부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유학자 아닌 시인 주자의 시 정수 100선

주자시 100선

주희 지음 | 장세후 옮김 | 연암서가 펴냄 | 1만5천원



"반 이랑 모난 연못에 거울 하나 열렸는데 /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돌아다니네 / 묻노니 어째서 그렇게 맑을 수 있는가 하니 / 맑은 물 흘러나오는 근원 있어서라 하네"

책을 읽으려고 펼쳤다. 마치 그리 크지 않은 네모반듯한 연못이 거울을 열어 사물을 비추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 책을 읽다보니 거울이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를 투영한다. 그 모습이 함께 어울려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내용이 풍부하기 그지없다. 책에게 물어본다. "어찌하여 그렇게 맑은 내용을 항상 담고 있을 수 있는가?"하고. 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 "그거야 연못에 항상 쉬지 않고 흘러드는 맑은 물이 오래도록 고여 썩은 물이 없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내용을 담은 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이다. 책은 훈고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학을 성리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자의 시 100선을 소개한다.

주자는 문사철에 두루 능한 학자였는데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 곧 유학자로만 부각된 인물이다. 요즘 들어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를 문학사에서 비중 있게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자는 문학 방면에도 두루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자는 여러 방면의 시, 이를테면 경치를 읊은 것, 마음 속을 읊어낸 것, 서사 영물시 등에 두루 많은 시를 지어 남겼다. 그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설리시(說理詩)이다.

당시의 많은 유학자들이 설리시를 지었지만 주자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서 병풍이나 액자, 족자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관서유감(觀書有感)'이나 '춘일(春日)' 같은 시는 바로 이 방면의 최고 걸작이다. 책에는 최근까지 발굴된 주자가 지은 시 1,500여 수 중에서 일반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작품 100수를 가려 뽑아 수록하여 우리말로 옮기고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았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6 ~ 2/1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묵 혜자	아침단청
9	지금 당장(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도법	다산초당
10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외 17인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0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불과 이룬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 · 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15쪽 | 값25,000원

우리는 시한부 인생…자기 삶 놓치지 말라



나의 치유는 너다

김재진 글
쌤앤파커스 펴냄
1만4천원

"얻으려면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채우려면 채워진 것을 비워야 한다.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은 반대의 일이다. 반대로 가라."

"언젠가 죽는 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데 왜 인생을 사소한 것에 소모하며 남의 일에 그렇게 분개하고 흥분하는가? 남의 일에 시시비비하고 오버하며 흥분하다가 정작 중요한 자신의 삶을 놓치지 말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와 만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공부 전문 유나방송 대표인 김재진 시인은 명상 치유 콘서트를 기획 연출하는 프로듀서로서 답게 마음에 관한 잠언형식의 에세이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세월' '고통' '사랑' '용서'라는 네 가지 인생수업을 주제로 쓴 이 책은, 너도 나도 행복하길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복에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교훈적 메시지로 가득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함께 인생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고, 모든 수업이 그렇듯 인생수업 또한 수업을 받는 태도에 따라 학습 진도에 커다란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경험할지는 모두 나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저자는 어느 한쪽의 결론을 내기 위해 몰아치진 않는다.

'세상에, 사람에, 관계에, 우리는 그 모두에 여전히 미숙하다. 그러니 탓하지 말자. 이 별에 우리는 배우러 왔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저자의 따뜻한 토닥임과 배려가 돋보인다. 또한 평범한 단어를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저자의 필력은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감로법문과 같은 힐링의 갈증을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총 40여 편이 실린 이 책은, 한 꼭지마다 짧은 시 구절로 시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저자인 김재진 시인의 작품이며, 간혹 다른 이의 시를 빌려와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아름답고 강렬하게 표현 했다. 시를 사랑하고, 영혼의 성장에 몰두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저자의 특성이 잘 반영된 책의 구성이다.

저자는 책 머릿말에서 인생수업의 네 과목인 '세월' '고통' '사랑' '용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 '분노와 증오심은 바깥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 는 용서의 장, '사랑을 하면 짧은 시간 기쁨이고 더 많은 시간 고통스러운 까닭은, 상대를 현재의 존재 상태로 두려 하지 않고 감정과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장… 등등. 저자의 인생 내공이 담긴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준다.

책을 읽다보면 치유라는 단어가 곳곳에 자주 보인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월, 고통, 사랑, 용서 관련 글 40편
타인 치유하기 전에 자신부터 살펴야
마음 치유는 모두 버리는 용기 필요

병들어 있다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병든 세상엔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치유사도 덩달아 늘어나는 법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치유하려 들기 전에 나 자신부터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때로는 아프면서도 스스로 아픈 줄 모르거나, 병들었으면서도 스스로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을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어설프게 누가 누구를 치유하겠다는 말을 경계한다. 이 책을 도반 삼아 스스로 인생수업을 마스터하고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우기를 바랄 뿐이다.

예를들어 저자는 치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마음의 원리를 터득해 뜻대로 마음을 부리는 마음공부와 치유는 같은 말이다. 잘났다 못났다를 가리지 않고 몽땅 그대로 내려놓기를 통해 이뤄지는 치유, 그것은 천길 낭떠러지에 한발 내딛는 행위에 다를바 없다. 모든 것을 내던지는 용기가 치유에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주문한다. "행복한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마음 상태를 행복쪽으로 틀어라. 기다림에 시간을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또한 삶에 지쳐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에세이라기 보다는 삶의 지침서라고 분류해 권해주는게 맞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저자 김재진 시인은?

〈조선일보〉와 〈영남일보〉 신춘문예 및 〈시인〉, 작가세계 신인상 등에 단편소설, 시,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30년 넘도록 글을 썼다.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를 비롯해 산문집 〈이 별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동화 〈어느 시인 이야기〉 〈엄마 냄새〉 〈나무가 꾸는 꿈〉등을 펴냈다. 불교방송 PD로 일했던 시인은 현재 치유와 위안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 유나(una.or.kr)를 만들고, 〈가슴에 남는 음악〉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 찾아주는 마음 처방전

생각 내려놓기

황통 지음 | 최인애 옮김
책만드는 집 펴냄 | 1만3천원



대만을 비롯한 중국서 두꺼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황통. '느리게 살기'를 인생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 저자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 진정한 행복 찾는 법을 조언해주고 있다. 이 책에는 현대인의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 모순을 도닥이고 감싸주는 짧은 우화들이 실려 있다.

때로는 가슴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정신이 번쩍들 만큼 따끔한 충고가 되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의 해결법들이 어렴풋이 보일 것이다. 저자는 '물통 비유'를 통해 고통과 내려놓음의 본질을 말한다. 마음의 물통을 비우고 고통에 빠진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동시에 이를 통해 나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권하고 있다.

여태껏 우리는 하나라도 더 '얻어야 한다는 교육만 받아왔지, 한 번도 '내려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돈이나 물질, 권력 같은 사사로운 욕심뿐만이 아니다. 원한, 질투, 불만, 이기주의 등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 역시 내려놓기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려놓음'을 자신이 손해보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참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힐링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힐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힐링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책 등 각종 매체를 막론하고 힐링은 시대의 화두로까지 자리 매김해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멍들고 곪아 있는지, 치유되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해준다. 성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르게는 영아기 때부터 일등지상주의에 길들여져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삶이 진정 만족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꼴등이 있기에 1등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기에 큰 사람이 있으며, 느린 사람이 있기에 빠른 사람이 있는 법이란 기본적 진리를 외면하고 최고만을 지향하며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90등, 100등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비좁은 고지를 차지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써버린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에 대한 고민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대만 베스트 작가의 '행복찾기'
욕심 놓으면 행복 찾아온다
행복, 남에게 던져야 돌아와

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내려놓음', 더 나아가 '베풂'을 뜻한다. 행복은 통통 튀는 공과 같아서, 반드시 먼저 남에게 던져야만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공을 던지기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내 손이 비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을 던지기도, 받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은 자동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실으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타이어가 터진다.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네 인생에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나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에 담은 찰나의 풍경들

그대 발 끝에 이마를 대다

금해스님 지음 | 행복에너지 펴냄 | 1만5천원



이 시대가 건네는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다치고 닫힌 이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위로와 힐링의 언어들. 가만히 치유되기만을 기다리기엔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이는 어둠은 너무 깊고 무겁다.

그렇다면 여기 금해 스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 우주 〈그대 발끝에 이마를 대다〉를 들여다보자. 작고 어여쁘지만 깊은 뜻이 담긴 말씀들, 사진에 담은 찰나의 아름다운 풍경들. 금해 스님은 이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온전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

그 어떤 상처라 해도 '나'라는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거룩한 마음 앞에 아픔은 저절로 물러서는 것이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외계(外界)의 한 끝자락이 그대 이마에 스침을 느끼는가. 지친 마음에 가만히 스미는 온기. 비로소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진 삶. 그렇게 매사 이 경건한 삶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상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책에도 하나의 우주가 오롯이 들어앉아 있다. 그 우주는 가부좌를 튼 부처처럼 고요하다가도 때로는 아이들이 날린 비눗방울처럼 눈앞으로 다가와 마음 안에서 터진다. 한 눈에 들어오는 글귀, 그래서 더 여러 번 읽게 되는 말씀들. 진정한 감동을 주는 글은 갖은 미사여구가 아닌 소박한 '두세 줄'로도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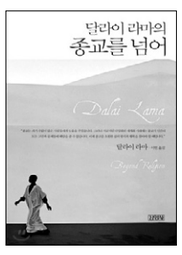
짧지만 깊이를 담은 글들을 통해 금해 스님이 우리에게 진정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활이 편해진 만큼 마음에 상처 받을 일이 많아진 삶. 열정이 없는 마음, 꿈을 잃은 두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현대사회의 거대한 완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할 것만 같은 마음의 병을 얻는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는 '위로와 힐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김주일 기자**

달라이라마의 자비와 사랑 법문

달라이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라마 지음 | 이현 옮김 | 김영사 펴냄
1만3500원



어린 시절 달라이라마의 현신으로 발견된 이후 평생 동안 중국 당국의 폭력에 맞서 자비와 사랑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온 제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 그가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21세기를 바라보며 던지는 대전환의 메시지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것도 인간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고뇌 속에서 탄생한 깨달음,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행복의 길, 깊은 영성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달라이 라마 사상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넓은 바다와 같이 넓고 큰 덕의 스승'이란 뜻의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를 일컫는다. 이 책의 저자인 텐진 갸초는 제14대 달라이 라마다. 달라이 라마(텐진 갸초)는 스스로 '이제 노인'이며, '인도에서 가장 오래 머문 손님'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 그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생을 돌아보며 인류의 평화로운 지속을 위한 오랜 생각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살아온 한평생이었지만, 끊임없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로 마음을 닫고 증오의 불길만을 키워가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2011년 티베트의 정치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으며 그는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종교 이후 세상을 이끌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총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에서 달라이 라마는 '현세주의'에 대해서 설파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서로 관용과 존경을 나누어야 하며 그 바탕에 종교를 넘어선 현실인식과 개인의 내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2장에서 달라이 라마는 자비와 내적 가치를 어떻게 고양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며 그 결과물인 마음 교육에 대해서 적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노옹이 「헌화가」를 지은 까닭은?

지방권력과 신라왕실의 갈등해소 위해



삼척에 위치한 수로부인 공원. 수로부인 헌화가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1. 수로부인은 누구인가

시인들은 연애 감정을 가질 때 아름다운 시를 빚어낼 수 있다고 한다. 김소월의 시나 한용운의 시들은 '이성' 혹은 '조국' 또는 '님' 등에 대한 연애감정을 원용하여 형상화해 낸 절창들이다. 연애는 이성 혹은 동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다. 동시에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이 끈은 사람뿐만 식물과 동물과 광물 등의 사물 사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꽃'은 어떠한 성취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이성 혹은 동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신라의 '원화'(源花) 역시 아름다운 미소녀들로 구성된 '꽃녀'들이었고, '화랑'(花郎) 역시 아름다운 미소년들로 구성된 '꽃남'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남녀의 만남 혹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꽃과 나비 혹은 벌과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애 감정 역시 매우 아름다운 것이며 건강한 것이다.

『삼국유사』를 들여다보면 남녀의 인연은 정치와 종교 및 역사와 사상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환웅과 웅녀, 해모수와 유화, 진지왕과 도화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 무열왕 김춘추와 문희 및 보희, 김유신과 천관녀, 원효와 요석, 의상과 선묘, 조신과 (김흔공의 딸) 김랑 등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로부인' 조목은 암소를 끄는 노인[牽牸牛老翁]과 절세 미인[容姿絶代] 수로부인(水路夫人)이 철죽꽃[躑花]과 노래(獻花歌)로 매개되고 있다. 그런데 '수로'와 '수로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학설은 분분하다. 일연(一然)은 "수로부인은 용모가 세상에서 견줄 이가 없었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귀신이나 영물에게 붙들려 갔다"고 하였다. 수로부인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거듭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깊은 산[深山]이나 큰 못[大澤]을 지날 때마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를 밝히는 것이 수로부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로'는 "수신(水神)이 살거나 나타나는 장소"(미시나, 三品)로 보거나, "신령스런 존재로 '소도'(蘇塗)의 음이 변한 '사로'(斯盧)와 동일하며 '수로'(首露)의 음차로 추정"(장진호)하기도 한다. 또 '수신(水神)을 맞이하는 의례에 등장하는 신령(神靈)', "범어 살야(salya)에서 사로(saro), 다시 수로(suro)로 변형된 것이며 '태양'을 뜻하는 범어"(김재붕)로 본 경우도 있다. '수로부인' 역시 "기우제를 진행하는 무(巫)"(이혜화, 김문태), "풍어제를 진행하는 무(巫)"(최인표), "무병(巫病)의 단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장진호), "서울(경주)의 아름다운 여인"(윤영옥, 박노준, 황패강) 등으로 보고 있다.

'수로'에 대해 '피리를 잘 불어 밝은 달을 멈추게' 했던 '월명'(月明)사, '백성의 안녕을 직언한 충언의 담론을 제기'한 '충담'(忠談)사, '천기나 천체의 운행을 조절하고 융화'한 '융천'(融天)사처럼 이름과 관련 내용을 연관시켜 푸는 이들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수로'(水路)부인은 "물이라는 생명의 길을 여는" 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길을 연다'는 것은 기우제나 풍어제를 진행하는 무(巫)이거나 무병(巫病)단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영매(靈媒)의 권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수로부인' 조목에 나타난 그녀는 절벽 위의 꽃을 딸 수 있는 능력도 보이지 않고, 바다룡에 맞서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다. 소를 끄는 노인이 건네주는 철쭉꽃을 받은 여인이자 바다룡에 나꿔채 들어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인일 뿐이다. 바다에서 돌아와 남편인 순정공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도 그저 평범한 여인의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은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의 아름다운 부인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2. 견우노옹과 해룡의 정체

성덕왕에 의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순정공(純貞公)은 누구였을까. 그가 성덕왕의 아들인 경덕왕비 삼모(三毛)부인의 부친 이찬 김순정(金順貞)이라는 설도 있으나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신라인들은 같은 음을 가진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이 조목의 맥락에서 볼 때 순정공은 이름 그대로 순수함[純]과 정숙함[貞]을 지닌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바다용에게 아내를 빼앗기자 엎어지고 자빠지며 발을 구르는 평범한 지아비로 보일 뿐이다. 때문에 순정공은 남성적인 매력과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순진하고 천진스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에게 벼랑끝의 철쭉꽃을 꺾어다 준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은 누구인가. 일연은 "그 노옹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其翁不知何許人也]고 하였다.

이와 달리 일부 학자들은 노옹을 "그 지역에서 기우제를 주관하던 사제"(김문태), "신병(神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신(天神)의 대리자"(장진호, 허영순), "선승(禪僧), 보살의 화신"(김종우, 김광준, 최철), "단순한 노인"(윤영옥, 박노준, 황패강)이라고 하였다. 또 '암소'에 대해서는 "불교의 심우도(尋牛圖)에서 우리들의 자성 즉 본래의 진면목"(김승찬, 최철, 김종우), "기우제에서 여성 즉 음(陰)을 상징"(김문태), "노인의 부인"(최성호), "단순한 소"(윤영옥, 박노준, 황패강,장진호)로 보았다. '점심'[晝膳]은 "제례의식 때 신에게 바치는 제물 또는 임금의 식사"(김승찬, 김광순), "단순한 점심"(이병도)으로 보았다. '돌로 된 산의 높이가 천길'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교통로 또는 신의 서식처인 신성지역"(김문태, 장수근, 김승찬), "천상의 신이 강림하는 장소"(장진호), "실제의 모습을 표현"(윤영옥, 박노준, 황패강)한 것으로 보았다.

동해용은 지방권력 상징

철죽바친 노인은 문수대성

'철쭉꽃'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양(陽)의 정령(精靈)"(김문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영력(靈力)의 매개물", "사랑의 매개물"(윤영옥, 박노준, 황패강, 최리자)로 보는 이들이 있다. '꽃을 꺾어 바침'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양의 정령인 철쭉꽃이 음의 정령인 수로부인에게 꽂혀짐 즉 양과 음의 교합을 통한 음양의 조화"(최진원, 김문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천신(天神)에게 감응"(장진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다의 용'는 "무서운 정체불명의 존재인 손"(김문태), "수신(水神) 혹은 용신(龍神)"(장진호)으로, '용이 부인을 나꿔채 바다속으로 들어가 버림'에 대해서는 "기우제를 주관했던 수로부인은 가뭄이 계속되자 군중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고 비가 올 때까지 물에 잠겨있는 것을 상징"(김문태), "수신(水神)을 체험하는 신병(神病)의 과정(장진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수로부인을 샤먼 혹은 사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수로부인' 조목에서 수로부인을 내놓으라는 「해가」는 수로왕을 맞이하는 「구지가」의 주가(呪歌) 형식과 패턴이 닮아 있다.

이 「해가」가 만들어진 계기는 또 다른 한 노인에 의해서이다. 이 노인은 또 누구일까. 수로부인이 바다용에 납치되자 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衆口鑠金]고 했는데 지금 바다 속의 미물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지역 내의 백성들이 나아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以杖打岸]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순정공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용이 바다로부터 부인을 모시고 나와 공에게 인도했다. 여기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영험함을 지닌 주술도구인 막대기로 수신(水神)을 다스리는 행위"(김문태), "풍어제와 무당과정에서 무(巫)가 굿을 할 때 타악기를 쳐서 엑시타시[忘我, 脫魂]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빠른 장단의 무악(巫樂)"으로 보았다. '용이 바다로부터 부인을 모시고 나와 공에게 인도했다'에 대해서는 "기우제에서 강우의 목적 달성"(김문태), "무당과정에서 노인은 천신(天神)을 믿은 큰무당으로 수신(水神)인 용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의미하며 이는 천신 우위사상을 나타낸 것"(장진호)으로 보았다. 만일 수로부인을 입무(入巫) 과정에 들어가는 무녀나 초월적 존재로 파악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헌화가」의 해석

문정공의 아내인 수로부인은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許皇玉)과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구지가」와 동일한 형식인 「해가」(海歌)를 덧붙이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가야의 수로왕은 인도 북부 갠지스 강가에 있다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로 세력권을 옮겨온 아요디아(Ayodhia,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후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를 거점으로 왜 열도와 대륙을 무대로 철과 배 그리고 쌀을 공급한 제국이었다. 가야의 개조 수로왕을 맞이하는 「구지가」는 신탁에 따라 군신(君神)을 맞이하려는 무도(舞蹈)에 수반되어 제창된 노래이자 제의(祭儀)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구지가」와 맥락이 다른 '수로부인' 조목에 왜 이 「해가」가 실려 있을까. 정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 내보내라/ 남의 부인 앗아간 죄 얼마나 크다 할까/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내어 구워 먹으리라."

이 「해가」는 「가락국기」에 나오는 "거북아 거북아[龜何龜何]/ 머리를 내밀어라[首其現也]/ 만일 내밀지 않으면[若不現野也]/ 구워서 먹겠다[燔灼而喫也]"는 「구지가」를 연상시키고 있다. '수로부인' 조목의 「해가」도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내어 구워 먹으리라"는 주사(呪詞) 형식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구지가」에서 거북은 신령스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군장(君長) 자체는 아니다. 여기서 은유의 명령법에 의한 주가(呪歌)는 '거북의 머리'에 가해지는 것일 뿐 군장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불러온다는 주술심리를 통해 나타나기 힘든 거북의 머리가 출현하면 신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수로부인'의 「해가」에 보이는 제1구는 「구지가」의 '머리' 대신 '수로부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2구에는 '남의 부인을 앗아간 죄 얼마나 크다 할까'로 되어 있다. 이 두 노래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수로부인이 순정공을 따라 부임하는 강릉(명주)은 서라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성덕왕 자신(孝明)이 수행했던 곳이자 형인 보천(寶川)이 오대산만다라 신앙을 완성시킨 곳이다. 하지만 이곳 명주 일대(오대산 포함)는 원성왕(785~804 재위)대 이래 방계 김씨(周元)세력의 근거지였으며 신라말에는 사굴산문의 무대이기도 하였다. 이곳에 신라의 관리인 문정공은 절세의 미인 아내 수로부인을 대동하고 강릉(명주)태수로 부임하다가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절벽에 핀 철쭉꽃을 꺾어달라는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노래까지 지어 바쳤다. 그런데 이 노인은 오대산 진여원에서 매일 새벽 변신하는 36종의 화불 중 34번째의 소의 화불로 변신한 문수대성이었다. 그리고 수로부인을 납치한 동해용은 백성들의 여론에 굴복하여 수로를 다시 바쳤다. 이것은 동해용으로 상징되는 강한 권력에 기반했던 지방 권력층이 불교인들의 여론에 굴복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덕왕은 왕권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개혁사업의 적임자로 순정공을 강릉태수에 제수하였다. 그 부임과정에서 보천(寶川)에 의해 완성된 화엄사상과 문수(밀교)사상으로 집성된 오대산만다라신앙에 입각하여 지역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추정된다.

수로부인 납치 귀환은

불심에의한 왕실·지방 화해 표현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이 바친 헌화가를 분석해 보자. "자줏빛 바위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양주동 역) "자줏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김완진 역) 이 노래에서 우리는 수로부인을 한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선행 연구들처럼 기우제나 풍어제 혹은 무(巫)가 되는 과정의 무녀(巫女) 혹은 초월적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수로부인은 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귀신이나 영물들에게 붙들려 갔을까. 단지 절세의 미인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순정공으로 대표되는 신라 왕실세력과 '깊은 산'과 '큰 못' 및 동해용으로 상징되는 지방권력과의 갈등 해소의 메신저로 보아야하는가. 수로부인이 '칠보로 꾸민 궁전음식은 인간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무당과정에서 불교의 미르(미륵)신앙과 결부되어 굴절한 설화로서 수로부인이 용궁에서 겪은 내용은 『미륵하생경』의 장엄세계"(장진호), "풍어제에서 어민들의 생계와 연계된 이상향"(최인표)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가」와 「구지가」와의 관계 속에서 「헌화가」를 살펴보면 노옹의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이라는 이 단지 아름다운 여인인 수로부인에게 꽃만을 건네주는 관계로 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오히려 순정공으로 대표되는 신라 왕실의 사상적 배경인 보천의 화엄사상과 문수(밀교)사상의 집대성한 오대산만다라 사상과 동해용으로 상징되는 지방 권력과의 갈등 해소의 메신저인 수로부인에게 오대산 문수보살의 36종 변상 중 34번째 '사자를 낳는 소'[牛產師子]형 화불로 나타나 보살행을 펼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잎에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 송곳 끝에 겨자씨가
머물지 못하듯 욕망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를 아라한(최상의 도를 성취한 사람) 이라 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함 월 선 원 (참선수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찾는 수행공간
생활속 수행을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052)243-4900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남 여 행자 모집

교육비 지원
(청주 용담동 광덕사)
043)258-3282
010-5459-328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한글본 대장경 구합니다

031)386-1569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황토, 상황氣, 참숯, 참솔잎, 뜸,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뜸,
배에는 전단뜸, 앉아서 좌훈뜸,
편안히 무릎뜸, 상황버섯
48시간 달인 물로 황토 반죽
직접 수작업 허리 관절 혈액순환
여성질환 잃어버린 건강 꼭 찾아
장수하세요.
www.wellgang.co.kr
운봉사 011-573-4438

출가자 및 초보부전 (비구니) 모집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음
3년 공부 후
소임부여
010-6429-5076

사찰 암자 구합니다

빈 사찰이나 암자 보시하실 분 찾습니다. 관리 필요하신 사찰이나 암자도 좋습니다.
기도로 도통한
환자보는 도승입니다.
(서울,경기,강원,충북)
010-2324-8011

조용한 암자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 약간명을 선착순으로 모집니다

– 대상 : 빙의, 우울증, 불면증, ADHD(주의력 결핍장애), 틱장애, 불안장애 등 병원치료가 어려우신 분.
010-9034-2727(금강선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경자생 비구 사찰 및 포교원 운영 소임원함.

사주명리 명상치유 등의 방편력 보유
010-4876-1042 성진

천년고찰 고성 운흥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종무소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강남)
40대 전후, 컴퓨터 사용 가능하신 분
010-8943-4150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접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비구 부전스님 (50세 미만) 모십니다

(마산)
010-3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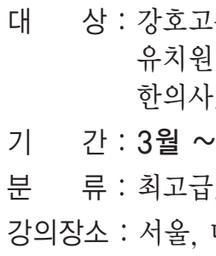
50대 비구입니다 운영 못하는 사찰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 사주는 이름 나이 없이 띠만 알면
부처님 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빙의 성격 사주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033)731-6617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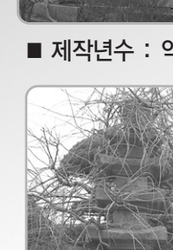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월 14일(목) 저녁반, 3월 15일(금) 오전반, 3월 19일(화)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神내림 받아야 할 운명은 없다



모든 (동자, 조상, 장군)신 등을
처리하고 제도.
전생, 천도, 우울증, 빙의, 산소,
집터, 神내림 해결.
053)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산청암달마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 암 역 리 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2013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 스님들께만 6개월간 명리학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 그동안 제1기에서 제4기까지 전국에서 6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초보자 위주로 교육하지만 그동안 다른 곳에서 명리학을 배우셨는데 통변에 자신 없는 스님께서는 강의 신청을 하셔서 교육기간동안 적중률이 뛰어난 통변비법을 배워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앞으로 사찰 운영하는데 신도들의 확보 문제에서 명리학의 활용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고, 학문인 동시에 살아온 삶들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사용되는 명리학은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삿된 학문이라고 거부하는 풍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이세상 어는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상의 명리학 비법을 이 기회에 장착하십시오. 스님께 자신감을 드릴 것입니다.

장 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제2장소 : 울산강의실(경상도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일시 및 기간 : 2013년 3월초부터 6개월간
■ 수강료 : 6개월간 무료
■ 신 청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한·중·일 명리 이야기

도자기는
청자와 백자
명리학은 한국의
戊山이 다시 쓴다!!!

자평진전, 궁통보감 적천수,
명리요강, 사주첩경
대만의 하건충 화제관주 저서
국내 출판물 비평과 보충

대 상 : 강호고수, 스님, 대학교육원교수, 유치원 원장, 초중등상담교사, 한의사, 정신과전문의 기타관계자
기 간 : 3월 ~ 8월 (6개월) 1주 1회
분 류 : 최고급, 중급, 입문자
강의장소 : 서울, 대전, 부산
질문과 토론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중학교 內
일 시 : 2013년 3월 3일(일) 오후 2시
문 의 : 010-5858-1191
042)628-2191

석가탑 인연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제작년수 : 약 60년 (가로 2미터, 높이 8미터)

■ 제작년수 : 약 60년 (가로 1미터, 높이 4미터)

– 연 락 처 –
016-249-054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불자정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허무하며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고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 화엄경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의왕
- 법당 : 50
- 요사 : 60
- 대지 : 1000
- 종각,가액 8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700
- 가액 : 15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목조)
- 요사 : 50평
- 부지 : 2000평
- 전세금 : 3억

유명관광지 점 ,문화재 보유 사찰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조정가)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요사 : 70평
(법당및요사채 신축허가필)
- 부지 : 1,30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3천만원 / 월 5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010-6505-8004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서구
- 법당 약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칠성,신중탱화
- 깨끗하고 조용한 산자락 사찰
- 약간의 텃밭도 있음
- 가액: 6천만원

010-5346-413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국립영천 호국원 정문앞
- 대지(개인유지)1070평 (676평 분할가능)
- 주차장 150평완비
- 가격은 절충, 연락요망

010-5633-876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수성구 요지
- 지하철 입구 바로 2층
- 약 30평 •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
- 포교, 상담, 교육 최적지

010-9690-8275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

051)412-040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57-24
- 최고급법당인테리어
- 법당내집기, 가구, 소품 포함
- 방2, 법당1, 화장실 등 사행활가능
- 보증금 2,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조절가능) 월세50만원

010-7767-13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8천 7백 5십만원. 절충가능

054)43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 북정동
- 평수 약 50평
- 방3, 부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900만원(절충가능)

010-5716-10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시 구의동
- 평수 85평 , 상가건물 3층
- 옥상 사용, 시설 A급
- 대웅전, 삼존불, 나한전, 명부전,
- 삼성각, 방4개,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18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

02)763-0599
010-5775-0025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7466-7701

포교원안내

- 위치 :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3리
- 대지 200평, 건평 35평
- 방 3개, 창고 3동
- 올수리
- 삼존불, 후불탱화
- 주변에 소나무 숲 저수지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없음

011-729-601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 상가대로변 1층
- 법당 大, 방2칸, 공양간, 목욕탕1,창고1
- 전세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 주차장 있음

010-3578-0639

포교원 및 토굴 안내

- 치악산 맑은 물자락 산자락
- 명상 기도 공부할 수 있는 별장식 도량
- 위치: 강원도 원주
- 대지 120평, 건평 90평
- 3층건물,
- 가액 3억 5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태백산 산신도량
- 대지 179㎡
- 조립식 건물 별도 산신각 1동
- 금액 9300만원

011-9794-5814

포교원안내

- 위치 : 산과 바다와 호수가 있는 속초 시내 중심가
- 인구 밀집지역 포교적지
- 잘 꾸며진 시설
- 4층 건물중 3층, 약 60평
- 법당(삼존불), 방3개, 공양간, 세면장, 화장실
- 총 4,000만원 (월세 없음)
- 비구니스님에게 최고로 좋은 장소

010-9085-080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51)506-40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지하철 부근
- 대지 84평
- 법당1개, 방3개, 주방
- 가액: 1억 9천만원
- 포교하실 스님 적합

010-9486-8735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시장앞
- 평수 45평
-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불문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 3층건물의 3층
- 평수 40평
- 법당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2천만원(조절가능)

010-4918-8921

신축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 총평수 : 413평
- 대지 : 300평
- 대웅전 25평(목조기와 요사채 1동) 창고 1동
- 가액: 2억 6천 5백만원

010-8794-125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사찰
- 부지 : 10000평
- 법당 : 30평
- 전각 : 4채
- 양도 : 100억

- 위치 : 인천
- 부지 : 7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양도 : 9억3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포교원(급)안내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 역전 앞 위치 상권 좋음
- 평수 : 45평 2층
- 보증금 +시설비 2천만원 월 10만원, 방사 2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급한 사정으로 급양도함

054)972-4442
010-6325-2089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하이마트 건너편)
- 독채: 임법당(18평)방4개, 창고1
- 아미타불(동불석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 칠성탱화, 영가단탱화, 산신각, 용왕당
- 법당집기
- 지하철, 시내버스1분거리(현재법회중)
- 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1천5백만원
- 보증금 1천 5백만원에 월 35만원

010-3783-3606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 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대출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카루나 케이턴 (심리치료사 · 미국)

〈1〉 훈련되지 않은 마음 훈련하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 해보자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북돋움刊)는 흔한 치유의 말 대신, 마음의 건강을 선사하는 처방전을 알려주는 책이다.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라마 조파 린포체와 고(故) 라마 툽텐 예셰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심리학자 카루나 케이턴(Karuna Cayton)이 불교의 기본 교리와 현대 심리학의 이론을 접목해,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에 설득력 있는 통찰과 현실적 지침을 함께 제시한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격주로 5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성륜 스님 작품

마음훈련의 세 가지 유형

문제를 일으키는 불행과 곤란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해법도 셀 수 없이 만다. 그러나 불교 심리학은 모든 심리적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되, 각 문제의 특성이 다르더라도 기본 접근법의 핵심은 같다.

감정의 교란에 끼어들어 가라앉히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부정적인 충동을 차단하는 것, 둘째는 감정을 관찰하고 풀어놓는 것, 셋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대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떤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감정에 빠져들거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가능하다. 고뇌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뇌가 일어났다면 불편한 정서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마음훈련의 두 번째 유형은 감정을 정면에서 마주 보되 그 감정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다. 불편한 감정이 일면, 그 경험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온전히 인식하고, 관찰하고, 마침내 의식에서 사라지도록 둔다.

마음훈련의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을 확장한 것이다. 단순히 감정을 살펴보고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분석 · 조사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는 단계로 한 걸은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훈련을 '생각 바꾸기'라고 한다. 생각 바꾸기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감정의 에너지를 이용해 우리가 지닌 가장 좋은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 바꾸기의 힘

생각 바꾸기의 핵심은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내적 잠재력을 일깨워 정신의 건강함을 길러준다. 생각 바꾸기는 우리 마음의 비옥한 거름을 써서 더 나은 자아를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사와 같은 용맹함이 필요하다.

근심하고 짜증 · 욕심내고 갈팡질팡할 때, 이런 산란한 감정이 현실의 진짜 본질을 흐린다. 그러나 진짜 현실을 깨닫고 나면 관용, 측은지심, 온화함, 용기, 지혜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만이 남는다. 그러므로 분노와 두려움, 욕망 같은 '적'을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생각 바꾸기는 이런 감정을 억누를 뿐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그 감정이 사라진 자리를 유익하고 행복한 정서로 채운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내 해묵은 습관이 덫을 놓아 나중에 후회할 길로 나를 내모는군. 이 상황을 이용해 마음을 수련할 기회로 삼겠어."

이런 태도는 다소 생소하지만 아주 멋진 변화를 가져다준다. 스스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챈다.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열고 의식을 기울이는 것에서 마음훈련이 시작된다. 그런 다음 거기서 관찰한 것을 고양하고자 하는 긍정적 특성으로 바꾼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곤란을 가르침이라고 여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꾸준히 공부해야 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 연습과 훈련을 거듭해야 강해지고 노련해진다.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즉 '언제나' 실천할 수 있다. 이로써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게 된다.

잠재력을 일깨우는 네 단계 여정

내적 잠재력을 일깨우려면, 내면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기꺼이 자기 마음의 학생이 돼야 한다.

1단계 선택하기 첫 단계는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는 선택을 매 순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수동적 상태에 고정돼 살아간다. 반응에 대한 의식 없이, 벌어지는 일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첫 단계는 자동 반응을 멈추고 의식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반응을 멈춘 후,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 내 정서적 삶을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떠올리는 것이다. 자신의 내적 현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2단계 연습실 만들기 현재를 의식할 줄 알게 되면, 늘 보이던 반응으로부터 틈을 두게 된다. 이 틈이 힘을 준다. 그러나 그 힘은 잠깐뿐이니 뭔가 다른 일을 더 해야 한다. 여태까지의 습관적인 반응과는 다른 무언가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 지금이 'ABC'를 암송할 때다. 'ABC'는 원래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인 포텐셜 프로젝트(The Potential Project)의 라스무스 후가드(Rasmus Hougaard)가 만든 것이다. A는 몸(anatomy)을 의미한다. 첫 번째 할 일은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가슴, 위, 머리, 턱 등 신체 어디든 경직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푼다. B는 호흡(breath)를 의미한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평소와 다른 호흡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저 집중한 채 꾸준히 호흡하면 된다. C는 숫자 세기(Counting)를 의미한다. 호흡과 한몸이 됐다면 1장에서 소개한 명상법인 숫자 세기 훈련을 하라.

해묵은 습관을 마음 수련에 이용
삶의 모든 문제는 '가르침'이다
"이 순간이 당신의 전부
찰나에 온전히 존재하자"

3단계 이름 붙이기 3단계에서는 의식에 떠오르는 감정을 식별해 이름을 붙인다. 충돌하는 여러 욕망이나 뒤섞인 혼란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이 혼재돼 복잡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3단계는 이런 내면에 눈을 돌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감정을 발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더 나은 존재, 더 건강한 자아가 되려면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4단계 행동으로 옮기기 4단계는 앞의 세 단계에서 내면을 바라보고 이해한 후 시도할 만한 여러 가지 조정법을 소개한다. 조정법의 첫 번째 목표는 불편한 감정을 나 자신, 자아 바깥의 것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즉, 정서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나 감정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3단계에서 감정에 이름을 붙여 문제되는 감정을 '외면화'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바깥으로 끄집어낸 감정을 나로부터 떼어내어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 다음은 다양한 조정법에 대한 소개다.

△마음 하늘에서 구름처럼 노닐기: 감정이나 생각, 기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구름이 그렇듯이, 모양이 바뀌었다가 하늘을 가로질러 바람 따라 흘러갔다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감정이 마음을 휘두르던 힘을 잃는 것이다. △물고기처럼 놓아주기: 미끄러워 잡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내면에 붙들어 두겠다고 애쓰면, 물고기를 한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놓쳐버리게 된다.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다. 갈 것은 가도록, 헤엄쳐 가게 두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기: 상황이나 상대가 지금과 다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지 말고 오로지 순간, 시시각각, 그 찰나에 존재해보자.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 충만감이 차오른다. △근사한 세상: 무엇이건 마음에 떠오른 것, 그것이 이 순간 당신의 삶이다. 당신이 가진 전부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리킨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유일하며 완벽하게 새롭다. 선입견을 품거나 평가하지 말고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예, 선생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스승이 된다. 이렇게 호기심, 용기, 열린 자세, 강인함을 갖고 다큐멘터리를 보듯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의 있습니다: 떠오르는 감정과 상념, 기분,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난 뒤, 재빠르게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경험의 주체, 즉 자기 자신에게로 빠르게 시선을 돌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목표는 자신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의식이 유동적이며 변한다는 것, 정지된 채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열중의 힘

마음훈련을 시작할 때 북돋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정서는 '열중'이다. 중간에 낙심하거나 도저히 못 하겠다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열중으로 우울, 자기 연민, 권태에 맞서고, 나아가 이런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싸울 상대를 꼽으라면, 바로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며, 자신에 취해버리는 태도다. 누구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져들수록 더욱 불행해진다. 많은 경우, 자기 연민은 상습적인 우울로 이어지기 쉬우며, 그런 상태에 빠지고도 애초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열중하면,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인격과 내적 잠재력을 북돋울 기회로 보인다. 사건을 위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건강한 능력을 일깨울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이 생길 때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면서 계속 살아갈지, 가슴과 마음을 열어 세상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한다. 마음훈련 네 단계와 함께 자신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해보라. 불편한 정서에 반응하는 나쁜 버릇을 걷어차 버리는 일부터!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한층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내적 잠재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제 손으로 만들어나간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북돋움'에서 펴낸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카루나 케이턴은



티베트 불교를 오랫동안 수련해온 심리치료사이다. 불교 교리와 서양 심리학 이론을 접목한 불교 심리학의 보편적인 원리를 단순하고 명확한 말로 풀어내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에 20년 넘게 헌신하고 있다. 카루나는 현재 전 세계에서 160군데가 넘는 센터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불교 단체인 마하야나 전통보존재단의 위원으로 봉사하는 한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루나 그룹을 설립하여 불교 심리학의 지혜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1급 · 2급 지도사 과정 모집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3~4월 60시간 ▶1급 : 5~6월 80시간
교육 참관, 워크숍, 명상수련복,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85 용비어천가 1340호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선현사 부설
제1기 용천불교대학 작법반 학인 모집
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 강 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 현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

211회
3000배 용맹정진
정수리 ~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용천혈 챠크라를 열어주어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을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완전 웰빙 심신건강 예방
숨통을 뚫어드려 가슴 시원,
숨 고요, 마음 고요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완벽한 절수행
⊙날 짜 : 2월 23일(토) 저녁 9시 ~ 2월 24일 아침 7시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기도포,수건)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언양법당
KTX울산역3분, 서 · 울산IC3분, 언양버스터미널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 052)254-7768 010.3487.0035
※청견스님의 용체佛자 붓글씨+다보탑 황금카드+흑단염주+예불예경 선물

부처님 사리 놓고 다투는게 부처님 공경인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8)

하늘과 사람과 용이 사리(舍利)를 나누어 탑을 세우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파파국을 비롯한 8개의 나라 대중이 군대를 갖추어 부처님의 열반을 지키러 왔다. 그리고 구시나가라 역사에게 말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열반하셨지만 부처님은 만인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온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리를 받아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탑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몫을 나누어만 준다면 온 백성이 중히 여기면서 함께 부처님을 기리겠습니다."

역사가 대답했다.

"세존께서 우리나라에 내려오시어 이 땅에서 열반하셨으므로 당연히 국내의 사민(士民)들이 공양해야 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각국의 왕들이 함께 의논했다.

"온화한 말로 구하여 주지 않는다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으로라도 빼앗아 가져갑시다."

그러자 한 사문이 여덟 대중 안에서 말했다.

"만약 병사를 일으키면 서로가 비길 것이므로 결국 서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쌓고 닦으면서 무량겁 동안을 참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것이며, 그 부처님의 인욕을 찬탄해야 하는바, 어찌 병사를 일으켜 서로 능멸하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경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리가 여기 있으니 8등분으로 몫을 나누어 곳곳의 백성들 모두가 공양할 수 있게 합시다. 여러분 또한 모두가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외우면서 어떻게 사리를 갖고 다투어 서로 해칠 생각에 이르렀습니까?"

그 말을 들은 구시나가라 역사가 대답했다.

"당신의 의견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리를 8등분했다. 이때에 석제환인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서 왕들에게 말했다.

"우리들 제천에게도 마땅히 몫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뇩달 용왕과 문린 용왕과 이나발 용왕이 나타나 여덟 왕에게 말했다.

"우리들에게도 사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시 구시나가라 역사가 말했다.

"여러분, 제발 그만들 두십시오. 모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곧 셋으로 몫을 나누더니 한 몫은 제천들에게 주고, 한 몫은 용왕들에게 주며, 또 한 몫은 여덟 왕에게 주었다. 제천은 몫을 나누어 받자 천상으로 돌아가 칠보탑을 세웠고, 여러 용왕들도 자신의 몫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가서 역시 칠보탑을 세웠다. 여덟 나라의 대표로 마갈국의 아사세왕이 그들의 몫을 세니, 저마다 각각 8만 4천 알의 사리를 얻었다. 아사세는 기뻐서 풍악을 울리며 하늘을 진동시켰다.

이때, 난두시 용왕이 중도에서 만나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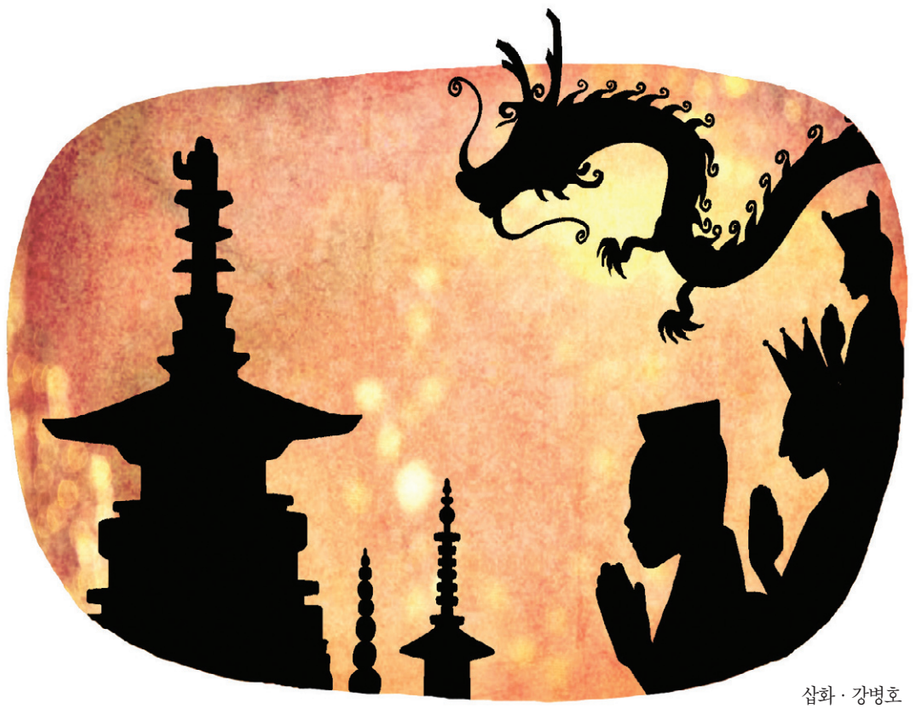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남기신 사리를 저에게도 한 몫 주십시오."

아사세왕이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난두시 용왕이 말했다.

"내가 바로 난두시이다. 너희 나라 땅덩이를 들어서 8만 리 밖으로 던져 티끌같이 부수어 버릴 수도 있다."



삽화 · 강병호

왕은 두려워서 부처님의 코밑수염을 그에게 주었다. 용은 수미산 아래 탑을 세웠으니, 높이가 8만 4천 리나 되는 수정 유리 탑이다.

아사세 왕이 죽고 아육왕이 그 국토를 얻자, 대신이 아육왕에게 말했다.

"난두시 용왕이 먼저 아사세왕을 업신여겨 부처님의 코밑수염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육왕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귀신왕에게 명하기를, 쇠그물과 철적을 만들어 수미산 아래의 물속에 두고 용왕을 잡아오라 했다. 이번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용왕이 크게 두려워하며 꾀를 내어 말했다.

"아육왕이 부처님을 모시고 깊이 잠이 들면, 그 틈을 타 그의 궁전을 수미산 물속 수정탑 아래 옮겨다 놓아야겠다. 그리고는 내가 나타나 직접 마주 보며 자세히 본말을 설명하면 성난 것이 반드시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두시는 곧 바로 용을 보내 아육왕의 궁전을 들어 옮겼다. 아육왕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높이 8만 4천 리나 되는 수정탑을 보고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때 난두시 용왕이 스스로 나와 사과하며 말했다.

"아사세왕이 자진해서 가져다 저에게 준 것이지, 제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석가여래께서 옛날에 저와 약속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후 장차 1겁을 마칠 때에 모든 경률과 가사, 발우 등을 가져다 이 탑 안에 보관하여라. 미륵이 내려오면 그때에 다시 그것을 꺼내리라' 고 했습니다."

아육왕이 그 말을 믿자 난두시는 다시 용을 시켜 왕궁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하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사리에 의지하려 했다. 하여 부처님의 사리는 하늘과 사람과 용왕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됐으며, 사리를 봉안한 탑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받지 못한 부족은 다비터의 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봉안하고 탑을 세웠다. 탄탑(炭塔)이라고 한다. 다비를 했던 자리에도 탑이 세워졌다. (〈쌍권니원경〉과 〈십송률서〉와 〈보살처태경〉 및 〈아육왕경〉에 나온다.)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⑧



생각하기 나름

나의 사돈은

나와 가족은 경상남도 부산에 살고 있는 '경상도' 사람이다. 16년 전, 둘째 딸이 전라도 영광 사람과 결혼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됐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지역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을 쉽게 사용하고 있었다. '전라도', '경상도'. 말만으로도 서로가 이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돈 관계는 너무나 좋은 인연으로 서로가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우리 사돈이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분들이라고 힘주어 자랑한다.

선조로부터 좋은 가풍을 이어받은 사돈 내외를 우리 가족은 존경하고 있다. 사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사돈 같은 사람 어디 있당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한 번도 우리 사이엔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를 해 본 일이 없다. 더구나 우리 딸과 사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그저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좋은 인연에 감사하고 가을이면 김장을 15년이나 해서 보내오고 있다. 갓 찧은 쌀이며 고춧가루며 콩이랑 아무튼 뭘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사돈에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다.

전라도 지역 사돈 맺었지만
우리집엔 '영 · 호남' 없어
'좋기만 한 것', '나쁘기만 한 것' 없어

사돈은 아들 딸 5남매를 너무도 훌륭히 잘 키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키우셨다. 지금 우리 사돈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계시리라 생각 된다. 두 분 어른의 교육과 인성이 이처럼 큰 보람의 삶을 이루셨으니 나는 '우리사돈 만세' 라고 늘 인사한다.

그 동안엔 시골에서 흙과의 생활이 고되었지만 이젠 아무걱정 없는 행복으로 건강하시길 나는 늘 축원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웃의 친구보다 가까운 우리사돈 전라도 사람, 이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선거 때마다 혼사 때마다 왜 '경상도', '전라도' 로 거부반응부터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삼가하고 존중하여 서로 우리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자랑으로는 많이 부족한 우리 딸의 점수를 나보다 더 크게 주시는 우리 사돈이 마냥 고맙고 우리 사위 또한 우리 집의 든든한 큰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라도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니 생각의 망상 지우면 다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믿는다. 내가 미국 가서 살면 미국의 시민이고 미국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누구나 똑 같음을 인식하면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리라. 사돈 내외 분 사랑합니다.

부산의 눈과 서울의 눈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엔 눈이 잘 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 어쩌다 내린 눈 위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눈을 기다린 적이 있다. 며칠 전 결혼식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딸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 눈이 내리기 시작 하더니 밤사이 너무도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세상이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싸박 싸박 눈을 밟으며 길을 걸으려 했는데 길은 미끄럽고 내 몸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가방을 끌고 너무 힘들어 택시를 타고 조계사로 갔다. 마침 입춘기도 회향으로 스님의 우렁찬 축원이 경내를 가득 채웠고, 법당엔 발 디딜 틈 없이 신도들로 가득했다.

할 수 없이 법당 마당 나무아래 서서 합장하고 함께 기원을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위에 큰 눈덩이가 떨어져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보는 눈이라서 마냥 좋기만 했다.

한번 들리고 싶었던 현대불교신문사를 방문하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부처님 일 하는 그들이 고맙고 거룩하게만 보였다.

친구랑 둘이서 모처럼 인사동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쇼핑도하고 차도 마시며 마치 이국인처럼 거리를 활보했지만 그토록 즐거울 것 같았던 눈길은 무척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 눈을 자주 볼 수 없는 우리 부산사람 생각으로는 눈만 오면 좋을것 같았는데 불편함을 느껴보니 우리 따뜻한 부산이 또 내 고향땅이 다시 생각났다. 그래도 적당한 눈의 아름다움을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면 하고 기다린다. 녹지 않은 물건이라면 택배로 선물할 수 도 있을 터인데…. 눈(眼)에 담아온 서울 하늘과 조계사 지붕의 하얀 눈은 내게 한 동안 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또 설날이 되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지만 나이를 먹으면 거꾸로 힘이 사라지는 내 나이 칠순에 무엇으로 세상 빚 다 갚을까 걱정이 된다. 꿈꾸듯 흘러가는 '지금' 을 바로 보고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을 용서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손 흔들어 회향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주고 또 주어도 줄지 않는 사랑과 기쁨을 만들고 좋은 인연에 감사하며, 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임을 함께 느껴지길 바라며 '오늘' 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임진년 그믐밤임을 아쉬워하며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 癸巳년엔 하늘의 해처럼 밝은 얼굴 밝은 가슴으로 모두가 행복하길 다시 한 번 축원 드리며 지나온 많은 시간을 돌아본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난방모드 겨울철 외기에 의해 차가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모드 여름철 외기에 의해 더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차가운 지열을 이용하여 냉방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여러분 각자 내 영원한 내공을 타파할 수 있어야

제주도의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하게 됐습니다. 몇 달 됐지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기복으로 믿게 됐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 정법 만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처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부처가 된다는 뜻은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의 세계 유의 세계, 보이지 않는 데 보이는 데를 한마음에 쥐고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자유인 말입니다. 그 자유인이 되기 어렵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이 되려면 정법을 만나야 되는데 정법 만나기가 또 어렵다는 얘깁니다. 사람은 많지만 사람 만나기 어렵고, 절은 많지만 그 절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허물은 썼지만 마음 씀씀이를 잘 쓰면 사람이고 잘 쓰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서라기보다도 자기가 한 생각을 잘하고 행동 하나를 잘하고 말 한마디를 잘했을 때, 삼합(三合)이 맞았을 때에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딘가 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치 다 안다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써 말을 하고 행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참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잘 알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 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주 천체, 일체 만물만생이 공생하면서 공용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죠.

내 마음을 잘 쓰면 체가 없는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하니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배척을 당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한마음이 돼 주질 않아요. 사람은 전부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게 돼 있고 마음에 의해서 좇아다니는 거니까요. 그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됨으로써 육신은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육체도 호응을 안 해 주죠. 그러니 무의 세계에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지 않으면, 봐 주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따로 있고 지금 현상세계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돌아갑니다.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은 하나지만' 하는 건 축과 같다 이겁니다. 저 프로펠러가 돌아가든 연자 방아가 돌아가든 뭐가 돌아가든 축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안의 축을 믿으세요. 축을 믿는다면 그 축에 의해서, 그걸 심봉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이 세상법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주 전체가 돌아가듯이 이 몸뚱이도 내 축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마음을 만 가지로 낼 수 있죠. 만 가지로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즉 말하자면 묘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망상이라고는 생각 마세요. '나는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오니 이거 언제 공부하느냐.'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 · 최주현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 · 집 · 멸 · 도' 이랬습니다. 고를 고라고 생각을 안 하니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이라는 언어가 붙습니까? 그러니 도는 무(無)죠. 왜? 어느 거 하나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생명 없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내버릴 게 없기 때문이지요.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어느 것이 프로펠러고 어느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없듯이 세상 이치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벌레도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을 낳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풀포기 하나도 둘이 아니므로 버릴 게 없습니다.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영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 쓸 수가 있고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각자 내 영원한 내공을 타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자신의 길잡이가 생겨서 샘물의 맛을 볼 수 있으며 '아, 샘물 맛이 참 좋더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내공의 타파가 있어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삼심(三心)의, 삼세심(三世心)의 내공을 타파할 수 있죠. 그거를 타파함으로써 내가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을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사공법을 타파할 수 있죠, 이 세상 법을. 그렇지 않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에너지만 많이 넣어 주면 담기지도 않고 넘쳐 흘러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치적으로만 들어 놓아도 언젠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 하고 말입니다. 사공법을 타파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오신통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전에도 얘기했죠? 지금은 망원경이라고 하던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망원경을, 즉 천안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언젠가 했습니다. 또 숙명통은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또 타심통은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또 천이통을, 예를 들어서 천체무전통신기라고 해도 됩니다. 표현을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 있으면 다섯 가지를 굴릴 수가 없으니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야 원통력을 벗어난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항아리 속에 들어 있으면 항아리를 굴릴 수가 없고 항아리를 벗어난다면 항아리를 굴릴 수가 있죠. 안 그럴까요?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으니까 지구 바깥을 벗어나든지 우주 바깥을 벗어나든지 그 안에 있든지 자유롭습니다. 내가 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내 마음의 근본으로부터 이 세상 천지 만물 이 자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근본이나 태양의 근본이나 인간 삼세의 근본이나 인간의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내 한마음 근본인 거죠. 체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쥘 수도 없는,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묘하고 영원한 그 불심 자체, 바로 표현해서 주인공 그 자체의 근본입니다, 축.

그러니 그 근본에 모든 게 들어 있고 그 근본에서 모든 게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내는 거는 천차만별로 낼 수 있죠. 24시간을 통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애정, 미움, 증오, 사랑, 온통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니 머리카락 수효보다 더하죠.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가 없듯이, 모래알을 셀 수가 없듯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도 무효입니다. 생각을 했어도 없고 또 생각을 했어도 없고 그렇건만, 여러분은 생각을 해 놓고 그것에 착을 두고 잡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남을 해하게 안 했는데 어떻게 내게 해함이 돌아오겠는가

☞ 29면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 끄달리죠. 생각 하나 잘하면 그게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에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놓으라고 합니다.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거는 '주인공밖엔 해결 못한다.' 하고 믿고 놓고 이런다면 양변이 다 거름이 되는 거죠. 그냥 넣기만 하면 없어지고 넣기만 하면 없어지고 그러니, 수가 없이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여여하게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내 영원한, 내 몸 태어나기 이전, 그 콩씨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콩싹이라면, 작년에 콩씨를 심어서 콩싹이 되었다면 화한 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콩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싹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콩씨, 작년 콩씨를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기복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네? 바깥에서 찾는 게 바로 기복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귀신 노릇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해하게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 해함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건 자연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틀림없는 질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 하세요. 서로 모르든지 알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쳐다보기만 하고 못 집어먹는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요,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갖다 놓지 못하고, 또 가고 오기만 하고 그것을 집어 먹지 못한다면 그것도 걱정이고 무효예요. 그러니 내가 갔으면 봐야 하고 봤으면 먹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인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난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부처님을 처음에 가서 보니까 막대기 같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부처 같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없으면 부처님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를 생각했고, 나중에는 부처가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는 '아하! 부처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은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참다운 인간의 맛을 알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흐뭇함,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 흐뭇함을 한번 느껴 보셨습니까? 아마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든 잘됐든, 몸이 비참하게 됐든 안 됐든 그거를 다 놔 버리세요. 이 육신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람결 같아요. 뜬구름이 금방 한데 모였다 헤어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자동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리고 있으니 마음에 능력이 생기면 못 쓰던 육신도 발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동 발전소가 있어서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부풀어지지 않는, 즉 영원한 보배, 생산처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죠. 생산처.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천차만별의 용도대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서로 주고 서로 먹고 쫓고 쫓기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이루종차 몸뚱이로 다니면서 다 하리까. 마음 한 번 잘 쓴다면, 이 자동기 하나만 잘 돌리면, 믿고 거기 놔서 돌리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내 앞에 금으로 생산이 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넝마니 무쇠니 은이니 하는 가지각색의 이름 있는 모든 것이 그 자동기만 잘 돌리면 거기에 들어가서 용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 앞에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집어 먹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난 아무 걱정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 자기가 샘을 파서 자유스럽게 샘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을 움죽거려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는 말입니다. 내 한생각에 스스로 오고 스스로 빠지고 하는 그런 자동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셨지마는 내용을 입력해야만이 컴퓨터에서 나오죠? 그러니 인간이 없다면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고 "난 아무개 부처님을 믿어." 이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해 놨고, 왜 지장보살이라고 해 놨고, 왜 그렇게 일체제불의 이름을 전부 따로따로 해 놨나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을 찾을 겁니다. 이치가 그러하니까요. 또 좋은 데로 가려면 아마 지장보살을 찾을 겁니다. 명을 길게 해 달라고 하려면 칠성부처 찾겠죠? 또 일이 잘못돼서 재판이나 걸리고 그러면 산신을 찾거나 신장을 찾을 겁니다. 마음이 고렇게 요변덕스럽게 요것 찾고 조것 찾고 그렇게 되는데, 세상일도 그래요. 경찰서에 갈 일이면 경찰서에 가야 하고 또 법원에 갈 일이면 법원에 가야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만법의 근본, 즉 말하자면 그 근원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다 해내느냐? 그렇습니다. 마음! 지장은 보배와 같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임신을 했는데 애가 잘못됐느니 어떻게 됐느니, 또는 어린애가 갓 태어났는데 사람 노릇을 못할 정도로 어디가 아파서 애를 쓴다든가, 가정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또는 무슨 일이 생겨서 경찰서에 간다든가 이런다면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더 잘 압니다. 남들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지요. 어떤 변고가 생겼다는 건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주인공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인공 그 자체에….

예전부터 장자 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주인공 자체 근본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주 더 바랄 게 없는, 칠보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자식은 아비를 찾지 않고 고아로서 항상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추운 겁니다. 그러니 아비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말했을 겁니다. 아비는 자식을 아는데 자식은 아비를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 즉 말하자면 주인공은 아비가 되고 지금 육체를 움죽거리고 다니는 운전수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게 마음입니다. 축은 아비요, 바로 그 열 가지 백 가지로, 천차만별로 생각나는 거는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하자는 대로 육체는 따라다니니까 마음에 따라서 배가 고프게도 만들고 구덩이에 빠지게도 하고 별의별 짓이 다 나죠. 그런데 그 심봉을, 여기는 시골이니까 잘 아시겠죠. 맷돌을 돌릴 때 그 심봉, 축을 끼우지 않고 돌리면 잘 갈아집니까, 안 갈아집니까? 안 갈아지죠? 그것을 끼우고 돌리면 잘 갈아지죠? 우리가 일체를 소화시키는 데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생활을 해 나가는 거하고 안 믿고 그냥 해 나가는 거하고는 천차만별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자성신, 이 세상을 두루 할 수 있는 자성신, 묘한 묘법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높게 생각하지도 말고 낮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낮다고 깔보지도 말고 높다고 높게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자기로만 보세요, 자기. 몸도 자기와 같고 아픔도 자기와 같고, 모든 걸 자기같이만 본다면 외착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법은 횡설수설했습니다. 여기 가서 조금 떼다 붙이고 저기 가서 조금 떼다 붙이고요. 왜냐하면 한 구절을 얘기하려면 여러 군데서 거기에 필요한 부속이 가서 붙어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저는 무슨 책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느 선지식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파악한다면 너희는 성불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른다면 네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네가 돌아가는 걸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그러니 어찌 네가 자유스럽게 걸리지 않고 여여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고요.

그러니 영계에서는 여러분이 주장자를 쥐고 있지 못해서 주인이 없으면 빈집이란 말입니다. 왜 미치는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집을 비웠으니까 영계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이니까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본래 주인과 들어온 주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하하…. 내칠 힘은 없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야죠. 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여기 내 몸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내 식구들이 있는데 왜 한마음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 식구들이 지금 몸에 수십억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수십억 마리가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생명은 같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몸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다 따라 줍니다. 그 묘한 법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왕벌 하나가 움직이면 벌들이 그냥 다 따라가듯 하고,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듯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명령이 한번 떨어졌다 하면 뭐, 그건 일사천리니까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서 탁탁 치는 겁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몸뚱이의 모든 생명들은 내 한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는 신경을 쓰고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속에 있는 생명체들도 다 타락을 하는 겁니다. 타락을 했으니 몸에 병이 안 날 수가 있나요? 병나서 고통스럽고 식구들도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음 괴로우니 화합하지 못하고 단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글쎄, 하늘이 무너져서 금방 굶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왜 타락을 합니까? 그것도 주인공이 한 건데, 자기가 한 건데 말입니다. 자기가 안되게도 했지만 안되게 했으면 잘되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려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것이니까요. 가난함도 가난치 않음도,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안 생기는 것도,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하는 거니까 네놈이 알아서 하라고 놓으세요. 이열치열이 있죠, 왜? '네놈이 이 세상에 네 몸을 내놓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네놈이 해라.' 이거예요. 막말로 무식하게 '네놈이 이 몸뚱이도 만들어 놨으니까 네놈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놔 버려요. 모든 걸 그렇게 믿고 놔 버리세요. 포기하는 놔 버림이 아니라 믿고 놔 버리세요. 잘하고 못하고 죽고 사는 건 너한테 달렸으니 네가 해라 이거예요. '난, 몸뚱이는 너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오관을 통해서 바깥의 좋고 그른 거를 다 들여 주기는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문간의 문지기나 한가지예요. 보고 듣고 들여 주는 거요, 마음속에. 문지기가 들여 주면 또 안에서 문지기를 통해서 내주죠. 그러니 모두가 둘이 아니에요.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자성신
이 세상을 두루 할 수 있는 자성신
묘한 묘법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2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제1기

한국불교 전통의식 (범음범패) 학인 모집

1 강의 내용
1) 기초반 : 3개월
- 종성 · 향수해례 · 사성례 · 천수경 · 행선축원 · 사시불공
- 요령 · 목탁 다루는 법
2) 중급반 : 9개월
- 49재 및 천도재 · 각종 시식 등
- 태징 ·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3) 고급반 : 6개월
- 바라(천수 · 사다라니 외)
- 작법(도량게 · 다게)
4) 연구반 : 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개강일시 : 2013년 3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5시)
3 접수일자 : 수시 접수
4 모집인원 : 10명
5 회 비 : 월 10만원 / 3개월분 선납 / 교재비 3만원 별도
6 대 상 : 스님 · 포교사 및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등
7 연 락 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615-3
불지사 梵音佛教大學
★ 지도) 승범 · 원광 / H·P 010-9368-0209

북핵 머리에 이고 사는 남쪽 국민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주변국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전망과 불교적 해법을 대북 활동 전문가들이 제시했다.

"화쟁 사상으로 남북 공존 모색해야"



제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前금강산 신계사 도감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1세기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핵실험이 아니라 외부 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운명은 외부열강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됐다. 이런 때일수록 주체성을 가지고 현명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모두의 주체의식이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상생하지 못하면 1세기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연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는 체인처럼 엮여 있다. 이를 남북이 함께 풀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안보에 대한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을 동시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군사비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복지 교육 등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들의 의견과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안보가 무너진다는 것은 복지 교육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자주국방은 내실 있게 사회 문제는 유연하게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는 좌우 신구로 나뉘어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불교는 북한에서도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정신적 힘이 되어준 원효 서산 만해 스님은 그들도 존경하는 인물이다. 불교의 화쟁사상을 통해 남북이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제재 국면… 상반기 이후 완화



고유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사
동국대 교수

북한이 세계 국가들의 우려에도 핵실험을 진행한 데에는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한 유엔의 제재 초치에서 이유를 들을 수 있다.

로켓 발사 정도의 사안은 의장 성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제재 조치를 취했고, 우방국이라고 믿어왔던 중국 역시 이 같은 조치에 동조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들게 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핵이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 않고, 성능이 향상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역시 최근 방한해 '3NO'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3NO' 정책은 북한이 핵의 수를 늘지 않게 하고, 성능의 향상을 막아야 하며,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평화 체재를 구축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수순을 밟게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향상된 입지를 가지고 중국 한국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한동안은 제재 국면을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북한의 향상된 핵성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뢰 프로세스' 자체가 이 같은 사태를 가정하고 만든 것이고 아직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약으로 현 정부보다는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불교계 역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북한불교문화재전수조사와 평양불교회관 건립사업을 연결해 정부의 대북지원기금(1조 5천억원 규모)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층간 소음' 갈등 해법은 공동체 구현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설 연휴에 벌어진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아랫집 거주자의 분노는 윗집에 사는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런 잘못이나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홧김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살인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경우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한다. 폭행과 상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폭행의 40% 정도와 상해의 76% 이상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우발적 홧김범죄와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명경시풍조를 그대로 반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왜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되었을까?

아마도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려는 공짜심리,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사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리의식의 결핍,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피해의식이 자살과 분노범죄로 점철되어 인명까지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리사회에 인명경시가 만연한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분노가 그 임계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분노가 넘치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공동체사회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깨닫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한다. 패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존중이 상실된 승자독식의 사회, 즉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좌절하게 되지만,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작은 충격이나 계기만 있어도 좌절의 화살이 내부로 향하면 자살이고, 외부로 향하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라는 일차적 공동체마저 해체된 원자화 사회여서 분노를 다스리는 훈육의 장과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와 규범을 일깨워주는 사회화 기관이 사라지고, 학교도 경쟁만 부추겨서 이를 더 심화시켜서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사실, 홧김 범죄자의 80% 이상이 소외계층의 소수자라는 통계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치료, 놀이, 여가활동 등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소외된 소수자들에게는 그러한 호사로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인명경시풍조도 결국은 공동체사회(community)의 붕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웃사촌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이고, 그냥 낯선 이방인으로만 남아도 좋으련만 이웃원수가 되버린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주차다툼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현실이 이웃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우리사회는 다시 잘 조직화된 공동체사회를 재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사회의 재건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는 보살핌을 받고 패자부활의 사회가 되는 보호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인명경시풍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질과 학습에도 그 원인이 있기에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와 가치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올바른 사회화과정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을 빚는 곳은 어찌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소외된 소수자가 분노에 휩싸여 자살과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절하는 훌륭한 마부처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실한 마부이고, 다른 마부는 그저 고삐만 쥐고 있다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진실 된 훌륭한 마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성보 문화재 관리 체계 정립 기대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성보 문화재 정보를 즉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2002년부터 10년 간 진행한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와 사지 조사 사업의 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찰 주지 스님과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한 문화재 관리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도난범 등으로부터의 예방 효과도 상당하다.

이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115점에 달했지만 일제조사가 시작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난 발생 사례는 총 22건에 그쳤다. 조사 전인 10년 동안과 대조하면 약 71% 감소한 수치다.

이전에는 장물로 성보문화재가 나와도 원소재지 여부가 불투명해 유통이 됐지만 일제조사로 인해 소재지가 밝혀지면서 유통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도난 사건이 준 것이다. 선의취득 부분도 보다 문화재 정보 공유로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다.

김용사 불망비 귀부의 경우 사찰 측에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난 사실을 파악해 회수한 사례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성보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매장문화재와 사지를 파악하는 사지조사 사업과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의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성보관리나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문화재가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것이다. 조사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 활용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극화 현상 해법 연구 환영한다

현 시대의 양극화 현상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과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15.5%)의 차이가 사상 최대인 7.9%를 기록했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불교계 내부에도 존재한다. 도농 사찰 간의 격차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중·농촌 사찰들의 붕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찰과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법 마련은 불교의 시대적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올해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사회 양극화와 사찰 간 양극화 현상의 해법 찾기는 환영할 만하다.

사회 양극화 연구는 지난해 양극화 보고서 연장 사업으로 3푸어 시대를 조망하고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진단한다.

종책연구 분야의 종단 기초 재정연구에서는 도농 사찰간 양극화 현상과 재정 자립 방안, 전국 사찰 재정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사찰 양극화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 마련은 다른 종교에 비해 늦은 편이다. 개신교는 농촌 교회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연구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신교는 연 2500~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교회를 극빈교회로 분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 역시 근빈사찰의 재정 현황과 자립 방안, 중앙 종단·교구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안들은 국가와 사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교와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불교계가 추진하는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이 책은 현재 모호한 풍수지리 정의에 일대 혁명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풍수의 본질적 실체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살아있는 글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대사를 열거 한다.

우리의 풍수역사는 천백년전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를 시조로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때가 즉 풍수 1세대이다. 도선국사는 그가 생전에 지은 저서들을 제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겨놓고 후대에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그 법통을 잇게 하는 절묘하고 신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500년 후 이조초기 무학대사가 청학동을 찾아들어가 그 법통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 놓았다. 풍수 2세대인 것이다. 그 후로 청학동의 실체를 알아냈다.

모성학지음 / 신국판 / 532쪽 / 정가 23,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원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7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WELFARE CORPORATION W.F.B W.F

전국지부 및 회원 모집 안내

설립취지서



이사장 윤기순

·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 법인은 고령화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안전생활 생산적 노년 편리한 환경에서 능동적인 고령 친화 사회구현을 위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초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실체적으로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환희심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을 해소하고자 한다.

· 특히 시방법계 제방 불교인들이 일불제자로서 조화와 대통합을 통해 세계일화로 범종단의 화합을 성취하여 원력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신행을 창조하 는 정토세계를 구현 예토세계의 고통중생에게 무량공덕과 자비봉사의 대원력과 행원을 사회속에 회향시켜 진정한 불교적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치를 제공하는 불교 복지문화 마케팅 패러다임을 구축 우리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을 다함께 보태 노인 적합형 사회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이 법인은 예비 노인들의 노후대비 정신함양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고령화 사회 마스터플랜의 효율적인 단계별 성과관리 방식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강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 사회복지의 서비스 향상과 노인의 고소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노인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인들이 의식주에서 충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 노인무료급식 및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의 날 효행잔치 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 긴급구호, 난방비, 김장김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불교종단은 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또한 불교종단은 복지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무소득,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불교 종단들도 복지문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하여 포교 및 전법활동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복지문화에 적극 동참하면 사회인과 소통하고 불교의 사회국제 성과를 높일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도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이 사 장 윤기순　　회 장 각운 무산　　총 재 경담 각성　　대외협력위원장 성대 무공

모 집 부 문		
구 분	내 용	비 고
종 단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종단, 단체는 회원지부 종단으로 등록가능	등 록 비 무 료
사 암	각 사암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사찰은 회원사찰로 입회하여 사회복지관련 정보 제공	사찰가입비 무 료
회 원	일반불자로서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봉사체험시설안내	회원가입비 무 료



본 복지재단은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복지혜택문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재단은 승려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종교적 사회적 책임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나눔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317호. 338호)　전 화 : 02)2198-5022~4 / 팩 스 : 02)2198-5025 / H.P 010-4167-3666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5,5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1,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등(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5,5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1,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일반등(30cm) @80,000원
- 공단·바림 칼라등(30cm)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장만월등(국산)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등철사(100개) 6cm/8cm/10.5cm/12cm 70,000원/75,000원/80,000원/85,000원

★ 국산 ★ 방수전선 (한줄50구)
23cm / 25 cm / 30 cm 5줄이상 @ 65,000원 | 50 cm / 1m / 2 m 기타주문생산

바림등 빨강,연분홍,진분홍,주황,보라,흰색

청사초롱

공단·바림 칼라등

비닐만월등 파랑, 진분홍, 노랑, 분홍, 초록

한지칼라등지 완성
8cm 30,000원
10.5cm 40,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8cm ▲10.5cm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000원/ 7,000원/ 30,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붓다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